

지식경제부 정책 참고자료

* 동 자료는 7.9 ~ 7.13까지의 지경부 정책 자료임

2012. 7. 16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목 차

□ 지경부 주요 정책·행사 요약	3
□ 지경부 주요 정책	
<산업·IT>	
1. (정책) 3D Media Lab 개소로 3D융합산업 견인 본격 시동!!	9
2. (정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U턴 기업도 지원한다	13
3. (정책) ‘산업기술개발 정부지원 제출서류 절반으로 뚝’	18
4. (정책) “KBS- EBS, IT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첫걸음	27
5. (기타) 상반기 IT수출은 감소했으나, 전체 수치 흑자를 견인	31
6. (기타) 상반기 자동차 산업 동향	73
7. (정책) 우리산업의 장래 먹거리, 미래선도기술개발 본격 착수	81
8. (정책) 소프트웨어 계의 “슈퍼스타 K”	98
9. (정책) 지경부, 빅데이터 SW산업 육성전략 모색	119
10. (정책)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의 요람, 판교 클러스터 출범!”	126
11. (정책)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생태계 조성 추진	133
12. (정책) 창조적 융합의 시대, 문화부와 지경부 손을 잡다	137
<무역·투자>	
13. (행사) 다국적기업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147
<에너지·자원>	
14. (정책) 셰일가스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향 제시	153
<표준>	
15. (정책) 신기술제품(NEP) 및 친환경 재활용제품(GR) 43개 인증	157
16. (정책) 출입문 열쇠로 교통카드·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	169

지경부 주요 정책 · 행사 요약

< 산업 >

□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발전 추진)** 지경부는 문화부와 인문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기기, 서비스,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홍석우 장관은 7.12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일시·장소 : '12.7.12(목) 14:00~15:00,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아르코미술관
* 참석 : 홍석우 지경부 장관, 최광식 문광부 장관,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 이남식 기술·인문융합창작소장, 김홍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20여명

□ **(미래선도기술 사업단 출범)**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대기업간 동반성장 R&D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7.11일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년 정도의 개발기간 후에 미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형 3개 사업단의 협약식 및 출범 행사를 개최

* 일시·장소 : '12.7.11(수) 10:30~11:30, 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
* 참석 : 홍석우 지경부장관, 황창규 R&D 전략기획단장, 3개 사업단 소속 기업 CEO 등 200여명

□ **(디자인 톡!톡!톡!)** 홍석우 장관은 7.13일 디자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산업의 핵심 요소로서 인식 전환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의 “홍석우 장관과 함께하는 디자인 톡!톡!톡!”을 개최

- 당일 간담회에서는 로봇 분야 미래 디자인 개발사례를 발표하고, 디자인 사고를 통한 창조적 혁신 방안과 IT·제조·사회과학·디자인 등을 융합하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

* 일시·장소 : '12.7.13(금), 11:00~13:00, 한국디자인진흥원(분당)
* 참석 : 홍석우 지경부 장관, 디자인 업계, 신진 디자이너, 전공 학생 등 100여명

□ **(판교클러스터 출범)** 지경부는 메모리 위주의 불균형 발전, 중소 반도체 업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내 반도체 생태계인 '판교 클러스터' 구축

- 7.11일 홍석우 장관이 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 산·학·연·관 간 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반도체 최강국 도약을 다짐

* 일시·장소 : '12.7.11(수) 14:30~16:00, 판교 테크노밸리
* 참석 : 지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ETRI원장, KETI원장, 반도체산업 협회장, 삼성전자, 동부하이텍, 팹리스 기업 50여개사 대표,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등 대학 총장, 반도체인력사업 단장 등 관계자 250여명

□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마련)**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식경제R&D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R&D 전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발표*(7.9)

*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시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특강 실시

- 일시·장소 : '12.7.9(월) 14:00~15:30,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연봉빌딩)
- 참석 : 홍석우 지경부장관, 이기섭 KEIT원장, 여성벤처협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기업 CEO 등

** 주요 개선 내용

- 불필요한 서류는 면제하고, 오프라인 서류는 온라인 제출로 전환
- 양식 간소화 및 분량상한선 설정을 통해 서류작성 부담 완화
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단기·소형사업의 경우 ①서류작성 분량 458p → 139p, ②제출서류 49종→23종 등 감소
- 쉽고 편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U턴 기업 지원)** 지경부는 U턴기업 지원과 보조금 지원기업의 부담 완화를 골자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

- U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준하는 수준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하였으며, 보증보험*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사정 상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IT >

-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 홍석우 장관은 7.10일 “선순환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선포식”에 참석, 방송사와 IT중소기업간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

* 방송사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중소 IT기업 등이 부가정보를 추가개발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유통

- 방송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스마트기기 제조업체 등 IT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기기간 융합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기대

* 일시·장소 : '12.7.10(화) 15:00 ~ 16:30, 엘타워 메리골드홀(5층)
* 참석 : 홍석우 지경부 장관, KBS사장, EBS사장, ETRI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산업기술평가원장, IT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

- (IT정책자문단 회의) 홍석우 장관은 7.12일 “IT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 그간 추진해온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을 점검하고 IT융합 2단계 확산 전략과 기술 국제표준 활용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

- 특히, IT인력 개편방향과 주력산업과 IT융합을 가속화 시키고, 국민생활 밀착형 분야로 확산하는 IT융합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

* 일시·장소 : '12.7.12(목) 11:30 ~ 13:30, 서울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 : 홍석우 지경부 장관, 자문위원, 성장동력실장, 기술표준원장, 정보통신국 국·과장, 기술표준정책국 국·과장 등 40여명

-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 지경부는 7.11일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과 SW공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

- 윤상직 1차관은 동 컨퍼런스에 참석, 산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수단으로서의 빅데이터의 활용과 SW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일시·장소 : '12.7.11(수) 13:00 ~ 18:00,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 참석 :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KT경제경영연구소, 연세대, 업계 등 400여명

- (SW Maestro 과정 발대식) 지경부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의 제3기 연수생(100명) 발대식을 개최하고 3단계 경쟁시스템을 통한 15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돌입

* SW 마에스트로 제3기 과정 선발 : 지원자 448명(경쟁률 4.5:1)자중 서류 및 면접 심사 통해 100명의 연수생 최종 선발

* 일시·장소 : '12.7.11(수) 11:00 ~ 13:00, 엘타워(서울 양재동)
* 참석 :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 연수생 100명, 멘토단 20명, 1~2기 연수생 20명 등

< 에너지 >

- (세일가스 TF 공개세미나) 지경부는 7.11일 세일가스 관련 총괄·도입·개발·발전·산업 분과별로 그 동안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세일가스 TF 공개세미나”를 개최

- 향후, 이번 공개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추가 연구를 거쳐 8월말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

* 일시·장소 : '12.7.11(수) 14:00 ~ 17:20, 교육문화회관
* 참석 : 조석 지경부 2차관, 강주명 서울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산·학·연 인사 200여명 규모

< 기표원 >

- (국가 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기술표준원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7.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

- * 일시·장소 : '12. 7.13(금) 09:00~10:40
- * 참석 : 국경위 위원장(주재) 및 국경위 민간위원 15명, 기재·교과·고용·국방·지경부장관, 법제처장, 중가·조달청장, 중소기업음부즈만, 기술표준원장

□(교통카드 등록형 출입문 개폐장치 리콜시행) 기술표준원은 디지털도어록에 이어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열릴 수 있음이 확인,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재 발령

- 또한,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자는 즉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 산업·IT >

3D Media Lab 개소로 3D융합산업 견인 본격 시동!!

- 3D 기술&장비 지원 전문시설 구축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모델 창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D 융합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3D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생산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3D Media Lab.」을 구축(상암동 누리꿈스퀘어)하고 7.9(월)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3D Media Lab.」은 3D컨텐츠 및 관련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3D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D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축되었다.

- 최근 3D기술은 **영화와 방송** 이외에도 건축, 광고, 의료기기 등 전통산업과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융합시장을 창출하고 있어, 「3D Media Lab.」은 **국내 최초의 3D지원 전문시설**로써 시장 형성 및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3D Media Lab.」은 3D 방송차, 3D 편집·합성실, 3D DI/시사실, 렌더팜, 3D 테스트베드실, 연구La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총괄운영은 KEA와 3DFIA가 담당하면서 3D제작 장비 및 시설 지원, 3D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3D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개소식은 총괄운영기관인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

협회) 윤중용 회장, 3DFIA(3D융합산업협회) 김기남 회장,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3D 관련업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 개소식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3D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3D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新 3D융합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한 「3D Media Lab.」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서는 「3D Media Lab.」에 구축된 장비 및 시설과 SKT LTE망을 연동하여 세계 최초로 LTE망을 이용한 3D 영상 전송을 시연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3D융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에 구축된 「3D Media Lab.」은 3D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역할을 하며,

○ 高價의 외산 3D 전문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국산 3D 제품 원가절감 및 신뢰성 확보, 산·학·연·관의 實用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3D 융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붙임 1. 「3D Media Lab」 구축개요 1부.
2. 「3D Media Lab」 시설개요 1부.
3. 「3D Media Lab」 개소식 행사(안) 1부. 끝.

붙임1 3D Media Lab 구축개요

1. 3D 융합산업 현황

- 3D 융합산업은 3D기술이 영화,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 산업(의료, 교육, 건설,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에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방위 신산업

- 3D시장은 콘텐츠, 디스플레이(TV, 단말기 등) 및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국내 3D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3D융합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0)약 946억 달러→ ('14) 약 5,128억 달러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 3D 산업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10-'14)
Total	94,613	253,841	387,310	434,712	512,877	53%
HW	19,873	78,492	123,619	142,745	173,878	72%
SW	33,501	36,450	39,726	43,283	47,168	9%
Contents	41,239	138,899	223,965	248,684	291,831	63%

자료: FCR, 2011, Insight Media, 2011, Espicom, 2012, Infiniti Research, 2011, Jon Peddie Research, 2006,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Insight Plus 재구성, 2012

2. 추진배경 및 사업목표

- 3D산업은 장비, S/W, 콘텐츠가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산업

→ 성장초기인 3D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협업모델 구축

- 국내 3D기업 대부분 매출 10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로 개발환경 열악

→ 중소 3D기업의 시장 적시성과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기술 및 장비지원

- 국산 3D장비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3D산업 활성화 유도

→ 개발된 국산장비의 사용성 평가와 품질비교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3. 사업내용

- 사업지원 :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 최종목표 : 최근 영상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3D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계에 3D 인프라 및 기술 지원

- 구축장소 : 서울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 4층



4. 시설개요

시설명	구성요약	규모
3D 방송차	3D영상 제작을 위한 각종 장비의 이동식 제어 명령실 - 주요장비: 3D 영상제작 차량, HD카메라, 3D리그 등	1대
3D 편집실	2D, 3D, VR, AR 제작을 위한 영상의 편집 및 합성시설 - 주요장비: 영상편집 및 합성시스템	2실
연구Lab.	장기 프로젝트 등을 위한 협업 연구공간	1실
DI실/시사	- 디지털영상의 색보정 및 각종 특수효과 작업시설 - 주요장비: SCRATCH 기반의 DI 작업시설	1실
렌더룸	- 게임, 애니메이션 등 3D CG 제작을 위한 렌더링 시스템 지원 - 주요장비: 렌더링 서버, 소프트웨어(Max, Maya)	1실
3D테스트 베드	- 사용자 시청환경의 3D제품 테스트공간 및 3D 상영공간 - 주요장비: 3DTV, 3D Projector, 3D 계측기	1실
공용공간	운영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1실

붙임2 3D Media Lab 시설개요

1. 3D Media Lab CI 디자인



2. 3D 영상 촬영차 (규모: 8톤 트럭)

○ 주요기능

- 3D영상 제작에 필요한 HD 카메라, 비디오 스위처, 비디오 서버, 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탑재
- 3G영상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D RIG 방식 및 S3D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다양한 3D 입체영상 제작이 가능

○ 시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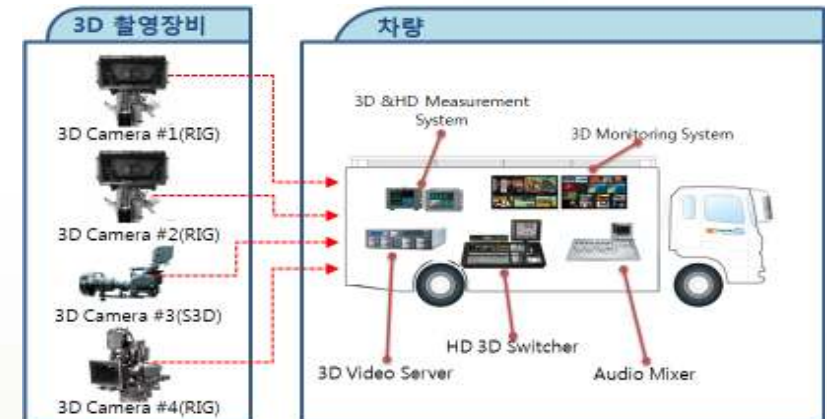


[3D 영상촬영차 외관]



[3D 영상촬영차 내부시설]

○ 3D 영상촬영차 장비구성도



○ 3D 영상촬영차 외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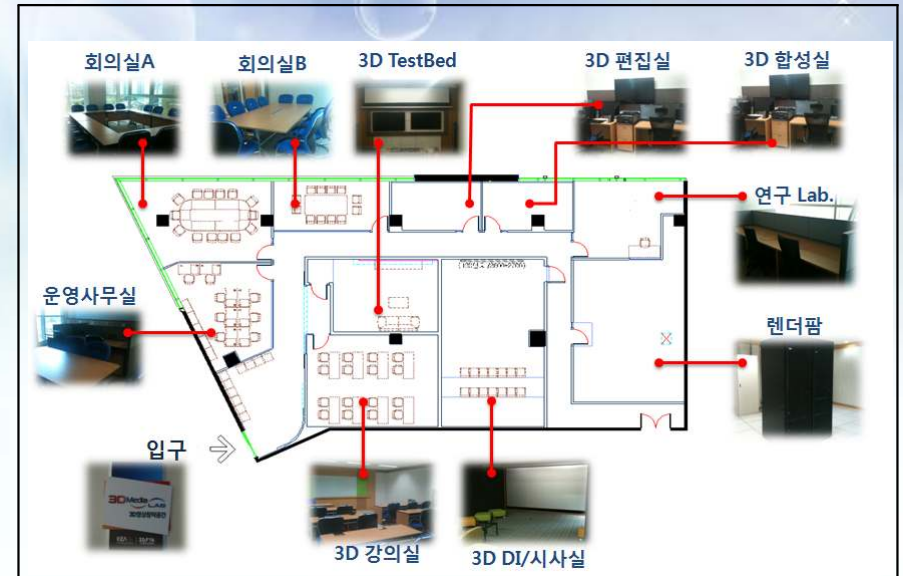
○ 주요장비 구성내역

방송차량(OB VAN)	HD Camera System
3D Synchronous Lens System	9" Multi Formate LCD Monitor(2D)
S3D Camera System	17" Multi Formate LCD Monitor(2D)
S3D Lens System	24" Multi Formate LCD Monitor(3D)
3D RIG	Digital Mixing Console System
3D Multi-image Processor	CD/Memory Recorder
Tripod & Dolly	Audio Monitoring System
HD Production Switcher	Intercom System
Video Server System	MIC System
Signal Measurement System	Video Patch
HD-SDI Character Generator	Audio Patch

3. 3D 후반작업시설

□ 시설개요

- 위치 :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 4층
- 시설규모 : 실평수 총 135평



□ 3D 편집시설(3D편집실, 3D합성실)

○ 주요기능

- SD급에서 부터 HD급까지 2D와 3D 영상의 편집 및 합성작업 가능

- HD VCR을 이용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의 포맷변환 및 입출력 기능 지원

○ 시설사진



[3D 편집실]

[3D 합성실]

○ 주요장비 구성내역

APPLE MacPro	Media Composer
Apple LED Cinema Display	Cineform Neo3D
Final Cut Studio 3	FxFactory Pro 2 (DL Version)
Storage	Nuke(Ocula_3D 포함)
Tablet	2D/3D Monitoring System

□ 3D DI/ 시사실

○ 주요기능

- 2D 및 3D 영상의 디지털 색보정 및 3D 스테레오 편집 가능하며 효과적인 디지털영상제작 작업 수행 가능
- Cinema DLP를 설치하여 2K급 2D/3D영상의 시사 기능 지원

○ 시설사진



○ 주요장비 구성내역

DI 솔루션	2D/3D monitoring System
27" Cinema Display	Network System
Storage System	Network Switch
HDCAM VCR	3D Cinema DLP,3D Screen
3D편광 변조장치	3D 안경 (편광방식)

□ 렌더팜

○ 주요기능

- 70노드 렌더링 전용 서버와 Maya, Max 등 렌더링 소프트웨어로 구성
-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게임 등 2D와 3D CG에 대하여 840 Core 규모의 렌더링 작업 지원

○ 시설사진



○ 주요장비 구성내역

Render Server (File Server)	Render Node (Blade Server)
Storage System	Network system
Autodesk Maya	Autodesk 3dsMax
Chaosgroup	V-ray
Adobe After Effects	RMS (71Node)
CG Workstation (TD실)	

□ 3D 테스트베드

○ 주요기능

- 일반가정의 거실을 모델로 3DTV와 3D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3D 시청환경을 구축
- 3D영상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3D영상의 특성·품질 테스트 및 제작 가이드라인 연구공간 제공

○ 시설사진



○ 주요장비 구성내역

Active 3D TV	Passive 3D TV
3D BDP Home Theater	3D DLP
3D Screen	3D영상 분석시스템

□ 3D 강의실

○ 주요기능

- Maya, Max, CAD 등 6종의 3D제작 소프트웨어와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3D 디스플레이 등을 구비하여 3D이론과 실습 병행

○ 시설사진



○ 주요장비 구성내역

Active 3D TV	Passive 3D TV
영상제작 S/W	영상편집 S/W
CAD S/W	3D DLP
3D Screen	응용프로그램 개발 S/W

붙임3

3D Media Lab 개소식 행사

□ 행사 개요

- 일 시 : '12.7.9(월), 11:00~13:00
- 장 소 : 누리꿈스퀘어 광장 및 **3D Media Lab.**(비즈니스 타워4층)
- 참 석 :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3D융합산업협회, 3D업체대표

□ 행사 일정

시 간(분)	행사구분	장소
11:00~11:04 (4')	3D Media Lab. 개소식 개회 및 행사안내	3D 방송차 (누리꿈 광장)
11:04~11:07 (3')	인사말씀 (지식경제부)	
11:07~11:10 (3')	축 사 (KEA, 3DFIA)	
11:10~11:13 (3')		
11:13~11:25 (12')	3D 방송차 제막식 (제막식 및 기념촬영)	
11:25~11:30 (5')	3D 방송차 투어	
11:30~11:35 (5')	이 동	3D Media Lab. -입 구-
11:35~11:45 (10')	지원센터 구축개요발표	3D Media Lab. -3D 회의실-
11:45~11:55 (10')	후반작업시설투어	3D Media Lab. 전체
11:55~12:00 (5')	3D 영상시연 (3D 중계차-LTE망 연동)	3D Media Lab. -DI/3D시사실-
12:00~	오 찬	상암동 소재 식당

※ 개소식 행사일정(우천시)

시 간(분)	행사구분	장소
11:00~11:02 (2')	3D Media Lab. 개소식 개최 및 행사안내	3D 방송차 (누리꿈 광장)
11:02~11:05 (3')	3D 방송차 제막식	
11:05~11:10 (5')	기념촬영	
11:10~11:15 (5')	3D 방송차 투어	
11:15~11:20 (5')	이 동	3D Media Lab.
11:20~11:24 (4')	인사말씀 (지식경제부)	3D Media Lab. -3D 회의실-
11:24~11:27 (3')	축 사 (KEA, 3DFIA)	
11:27~11:30 (3')		
11:30~11:40 (10')	지원센터 구축개요발표(3D)	
11:40~11:50 (10')	후반작업시설투어	3D Media Lab. 전체
11:50~12:00 (10')	3D 영상시연 (3D 중계차-LTE망 연동)	3D Media Lab. -DI/3D시사실-
12:00~	오 찬	상암동 소재 식당

□ 3D Media Lab. 약도



SUBWAY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 건너편 정류장에서 7711, 7730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BUS 버스

171, 271, 470, 710, 7711, 7013, 7715, 7019, 7730, 7019, 7730, 9711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172, 7015, 7716번 버스는 DMC 홍보관 앞 하차, 도보 3분 거리)



CAR 자가용

내부순환로 : 중동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중암교에서 직진
상암교 지난 후 : 남지천 공원 방향으로 직진 후 상암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U턴 기업도 지원한다

— U턴 기업 지원과 기업 부담완화를 주요 골자로 고시개정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과감히 없애기로 하였음

<U턴기업 지원>

-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비상경제 대책회의 시 (4.26)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향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됨

* U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 최대 한도는 국비기준 5억원

-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 비율이 높아짐

<보조금 최대 지원 비율>

지역분류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이전기업·U턴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70:30)	입지(-) 투자(5%)	입지(20%) 투자(7%)	입지(40%) 투자(10%)
수도권 인접지역	(50:50)	입지(-) 투자(3%)	입지(-) 투자(5%)	입지(15%) 투자(7%)
지원실적 저조지역	(80:20)	입지(-) 투자(7%)	입지(30%) 투자(10%)	입지(45%) 투자(15%)

* 지원실적 저조지역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광역 지자체

* 수도권 인접지역 : 조특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기초 지자체 (원주, 홍천, 충주, 음성, 청주, 진천, 아산, 천안, 당진)

- U턴 기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을 말하며,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최근 2년간과 비교하여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 U턴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
-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
-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
(단, 국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기업부담 완화>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하였음

-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지매각,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이와 함께 기업의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사정 상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이 밖에도 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기업 임직원 출석을 생략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보증보험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효력발생 시기>

□ 지경부는 지난 6월 29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자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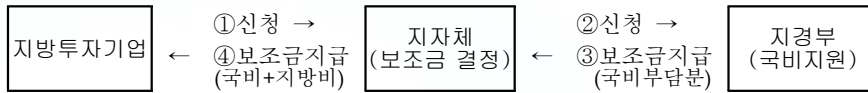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의 사항은 지원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12년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임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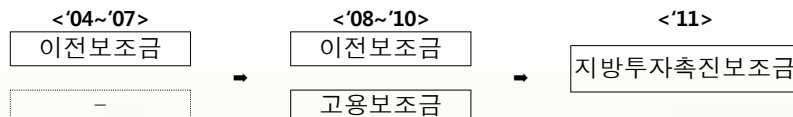
참고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개요

- (보조금 제도 개요) 지자체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을 국비·지방비 매칭(일반지역 70:30)으로 지원
 -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U턴 기업***
 - *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원
 - **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입지보조·설비투자 보조
 - 지원절차 :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지경부에 신청하면 지경부는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MOU를 체결 등)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급

- (추진경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04년 도입
 - 그간 「이전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으로 운영하다 '11년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통합 운영



- '04~'11년간 총 4,926억원을 지원(지방투자촉진 4,106억원, 고용보조 820억원)

'산업기술개발 정부지원 제출서류 절반으로 뚝'

- 단기·소형사업의 경우 49종(460쪽)→23종(140쪽)으로 축소 -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단기·소형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정량적 개선효과(단기·소형사업)>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정부 기술개발 지원제도 불편사항('12.2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807개 대상) :

1위 까다로운 심사절차(20.8%), 2위 지원신청시 복잡한 서류제출(19.3%)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연행)	(변경후)
기술개발의 필요성(개요, 중요성, 파급효과) 관련현황(기술, 현황, 경쟁기관,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방법 · 체계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방법
연구시설, 장비 보유현황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현황	수행기관 현황(장비/연구원)
총사업비(현금, 현물 등) 구성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총사업비(현금, 현물 등) 구성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사업화 계획	사업화 계획

지식경제부는 이상의 간소화 방안을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는 홍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집단적 타성”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서 R&D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며, 타부처의 기술개발사업에도 참고토록 하여 간소화 바람이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홍석우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서, R&D全过程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총 25시간)을 중소·중견기업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부속서류 간소화(단기·소형과제)>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하여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분량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 간소화(단기·소형과제)>

또한,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하여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 중소기업에서 각종 서류 작성, 연구비 관리, 물품·장비 구매, 지적권 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 지원 인력

동 교육센터의 R&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과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R&D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이후에 개최된 “제2회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석우 장관은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유로(Euro)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경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7.9[月] 행사 세부일정

순서	행사명	시간	주요내용
1.	「지식경제 R&D 교육센터」개소식	14:00	○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 — R&D 주 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서비스 무상실시 ○ 교육센터(연봉빌딩) 1층 현관에서 장관님 외 참석자의 제막식, 사진촬영
2.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특강	14:05	○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 등이 ‘지식경제 R&D 교육’ 강좌 청취 (주제 :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및 교육생들과의 토론
3.	제2회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	14:30	○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 단체장과의 소통의 장 ○ 중소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 홍보

* 장소 :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연봉빌딩’ 현관 및 10층

참고 2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요

□ 연구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

** 선릉역 부근 연봉빌딩 10층에 위치

□ 전담기관(KEIT)이 주관하여 R&D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과제 신청부터 지재권 관리에 이르는 R&D 전 과정에서 강의 주제를 선별하여 25시간 교육 과정을 개설('12. 5월)

- 4일간 교육 후 테스트를 실시하며 70점 이상에게 수료증 발급

○ 중소기업 직원*, 대학연구소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 중소기업에서 연구지원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 교육의 의무적 이수 필요

○ 주제별로 전담기관 직원이 강의를 담당하고 필요시 외부강사 위촉

□ 전담기관은 교육 실적을 집계하고 재교육 대상자를 지속 관리

< R&D 교육 프로그램 강의 주제 >

구 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과제도출·신청	- 과제기획 프로세스 이해(2시간) 및 기획서 작성(2시간) - R&D 환경 및 정책의 이해 (1시간) - R&D 사업 소개 (1시간)
과제선정관리	-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3시간) - R&D 관련 규정의 이해 (2시간)
과제진도관리	- 평가관리대응 실무 (2시간) - 과제수행 결과정리 실무, 연구노트 작성법 (2시간) - 기술보호 등 보안관리 (1시간), 연구윤리 (1시간)
성과관리	- 지적재산권 등 R&D 성과 관리 (1시간) - 기술료 제도의 이해 (1시간)
사업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방법 및 RCMS 실습 (6시간)

참고 3 "R&D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세부 내용

1. 추진배경

-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들은 R&D 전주기 (기술수요조사-신청-평가-관리)에서 400p ~ 1,000p 분량의 서류를 작성하고, 57종의 첨부서류 제출
 - R&D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연구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많은 시간, 자금, 인력이 소요되는 서류 준비 및 작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낌

2. 추진전략

- 사업유형별 간소화 목표를 설정하고, 서식 및 분량 총량 관리 실시
 - 지식경제 R&D 전사업을 유형화하여 추진하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단기·소형 R&D사업의 서류 간소화를 중점 추진
 -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사업유형, 대규모 사업 등은 간소화 및 사업관리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

<사업유형별 목표치(예시)>

사업유형	목표치(평균*)	대상사업군(82개)
단기·소형	현재대비 50% 이상 축소 (총서류) 現49종 → 改23종 (△53%) (총분량) 現460p → 改140p (△69%)	글로벌전문사업, 부품소재사업 (투자연계형) 등 40개
중장기·중대형	현재대비 40% 이상 축소 (총서류) 現65종 → 改33종 (△49%) (총분량) 現780p → 改400p (△48%)	산업융합원천사업, 미래선도사업, WPM 사업 등 42개

3. 세부 추진방안

① 거품 뺀 서류 제출

- 불필요한 서류는 면제하고, 오프라인 서류는 온라인 제출로 전환
 - 사업 신청단계에서 요구하던 제출서류를 최소화 (12종 → 6종, 소사업 대상 공통)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제3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던 것을 전담기관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
 - 전자협약 시스템을 쏘 전담기관으로 확대하여, 오프라인 업무 부담 및 서류 중복 제출 최소화(총 21종 서류 중 13개 제출 면제, 8개 온라인 제출)
 - * 수행기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등 면제, 관리통장 사본, 협약서, 수정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② 쉽게 쓰는 보고서

- '양식 간소화' 및 '분량상한선 설정'을 통해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
 - * 기술수요조사서·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항목 간소화, 소규모 사업 PPT발표 생략, 결과 위주의 수행보고서, 주요 실적 위주의 성과활용보고서

③ 눈높이에 맞는 지원서비스 제공

- 초보자도 서류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운영
 - * 사업공고문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모범사례, R&D 해피콜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등

4. 기대효과(평균)

	제출서류 감축	시간절감 효과
단기·소형사업	49종, 460p → 23종, 140p	643시간→270시간
중장기·중대형사업	65종, 780p → 33종, 400p	951시간→510시간

참고 4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 개요

□ 목적

-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단체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 홍보

□ 참석자

- 지경부 장관, 산업경제실장, 중견기업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대변인,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성벤처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 CEO,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사 진	성 명	직 위	사 진	성 명	직 위
	남민우 (62년생)	벤처기업협회장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한병준 (61년생)	정보산업조합이사장 유니아이텍 대표이사
	김은호 (46년생)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동진이공 대표이사		송재희 (56년생)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정숙 (59년생)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포커스컴퍼니 대표이사		장승국 (62년생)	ATC 협회 이사 비츠로셀 대표이사
	김홍근 (50년생)	금속가구협동조합연합회장 피아산업 대표이사		나종주 (58년생)	ATC 협회 부회장 디케이씨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장영규 (53년생)	공간정보조합 이사장 코리아퍼스트 대표이사			

□ 주요 논의 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경부의 노력 홍보 및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
- 성과공유제 확산 등 동반성장 및 중소·벤처기업 지속적 성장

여건 조성 등에 관한 건의사항 청취

KBS- EBS, IT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첫걸음

- 방송사의 콘텐츠를 IT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지식경제부는 6.10(화) 15시 엘타워에서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선포식을 개최

- 동 행사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인규 KBS 사장, 박덕훈 EBS사장, 김홍남 ETRI원장,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장, 이기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IT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

□ 동 행사에서, KBS를 비롯한 방송계, IT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는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계와 IT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결의하면서 동반성장 선포문에 서명함

- 주요 내용은, 방송사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스마트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통해 방송사와 IT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며,
-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표준화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앞으로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중소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IT중소기업은 개방형 콘텐츠 유통체계인 "오픈 스마트 에코시스템*(Open Smart Eco-System)"을 구축하기로 하고,

- 이에 필요한, 콘텐츠와 기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함

* 오픈 스마트 에코시스템 : 콘텐츠와 기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개방하

고, IT중소기업들이 방송사 등에서 제공된 콘텐츠에 부가정보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사업화하여 유통하는 시스템

(예) '1박2일' 콘텐츠에 여행지에 대한 숙박정보, 교통정보 등을 추가하거나, 해외 판매시 현지어 자막, 더빙 등을 추가하여 판매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KBS 등 방송사와 중소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IT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 앞으로, IT중소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사 등이 제공한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앱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또한,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이 접목되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이 만들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동반성장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상생협력 정보공유포럼에서 KBS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과 아시아방송 허브전략'을, EBS는 '디지털자료 저장소 구축현황과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고,
 - 인터렉티브비전社は '오픈 스마트 얼라이언스와 개방형 생태계'를, 동국대는 '뉴미디어 글로벌 방송허브 구축전략'을 발표함
 - 또한, 동 행사에 참석한 IT중소기업들은 방송사 등 콘텐츠 제공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함

<참고 1>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선포식 개최계획

<참고 2>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개요

<참고 1>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 선포식 개최계획

□ 개최배경

- 방송사와 중소 IT기업이 협력하여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기간 융합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동반성장의 기반 조성
- 방송사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중소기업 등이 부가정보를 추가 개발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개방형 미디어 생태계 구축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2. 7. 10(화), 15:00 / EL타워 메리골드홀(5층)
- 참석자 : KBS 사장, EBS 사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ETRI 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관련 중소기업 등 150여명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KBS, EBS,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행사내용 : 방송사-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선포식 및 정보공유 포럼 개최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5:00 ~ 15:02	·개회 및 내빈 소개(사회자 : KBS아나운서)
15:03 ~ 15:05	·개회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15:06 ~ 15:20	·축사(지경부장관, KBS 사장, EBS 사장)
15:21 ~ 15:30	·동반성장 선포문 낭독(사회자) 및 기념 촬영(산학연 대표)
15:31 ~ 15:40	·Coffee Break
15:41 ~ 17:00	·개방형 융합미디어 상생협력 정보공유 포럼(각 30분) - ABU와 아시아 방송 허브 전략(KBS) - 오픈 스마트 얼라이언스와 개방형 생태계(인터랙티브비전社) - ERDB 구축 현황과 글로벌 전략(EBS) - 뉴미디어 글로벌 방송 허브 구축 전략(동국대)

<참고 2>

글로벌 개방형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개요

□ 개요

- 콘텐츠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개방
- IT기업 등 개발자는 개방된 표준을 활용하여 방송사 등에서 제공된 콘텐츠에 부가정보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사업화하여 유통
- IT기업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신규사업 기회를, 방송사는 콘텐츠 판매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생발전 가능

*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기여한 사업자간 분배

□ 참여자 및 역할

- 콘텐츠 제공자 : 국내 방송사, ABU(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회원사, 중소 콘텐츠 개발자 등
 - 플랫폼 표준에 맞춰 각사의 콘텐츠를 제공
- 유통시스템 제공자 : OSA(Open Smart Alliance, 중소기업 위주의 운영주체)
 - 유료기반 콘텐츠 오픈 마켓플레이스 제공
- 네트워크 제공자 : 국내 및 글로벌 CDN 제공사, 망사업자 등
 - 국내 및 전 세계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 제공
- 디바이스 제공자 :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솔루션 업체 등
 - 개방된 표준을 바탕으로 수많은 디바이스와 앱 제작



상반기 IT수출은 감소했으나, 전체 수지 흑자를 견인

- 세계 IT수요 부진, 휴대폰 해외 생산 확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상반기 IT수출은 5.2% 감소했으나, 하반기는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 -

□ 상반기 IT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한 732.7억불, 수입은 6.5% 감소한 379.7억불, 수지는 352.9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IT수요 부진, 휴대폰 해외 생산 확대로 상반기 IT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는 실적 기록

* '12년 세계 IT시장성장률(Gartner, %) : ('11.9월 전망) 4.6 → ('12.3월 전망) 2.5

* 스마트폰 해외 생산 비중(%) : ('10) 15.9 → ('11) 56.8 → ('12.1Q) 79.9

○ IT수지는 전체 수지의 약 3.3배인 35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수지 흑자에 기여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동기대비)

구 분		2012년		2011년	
		6월 ^P	상반기 ^P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473.5 (1.3)	2,753.9 (0.7)	467.4 (11.1)	2,735.9 (23.6)
	IT 산업	129.0 (△2.5)	732.7 (△5.2)	132.3 (1.5)	773.2 (6.2)
수입	전체 산업	423.9 (△5.4)	2,646.5 (2.5)	448.2 (27.1)	2,582.5 (26.7)
	IT 산업	62.1 (△10.2)	379.7 (△6.5)	69.1 (10.4)	406.0 (15.1)
무역수지	전체 산업	49.6	107.4	19.1	153.4
	IT 산업	66.9	352.9	63.1	367.2

□ 하반기 IT수출은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급 안정화와 중국 소비부양책, Windows8 출시효과 등으로 다소 성장이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간 수출 규모는 지난해 수준으로 전망

○ 휴대폰은 해외생산 확대(지난해 9월 이후 본격화)에 따른 통계

기저효과 상쇄와 신제품 출시로 수출 감소율 개선

* 휴대폰 수출증감률(%) : ('11.1~3Q) 14.0 → ('11.4Q) △30.0 → ('12.1Q) △34.6 → (2Q) △34.2

< 붙임 1 > '12년 상반기 수출 주요내용

< 붙임 2 > 품목별 수출입 실적

< 붙임 3 > 동향 세부자료

< 붙임 1 > '12년 상반기 수출 주요내용

1.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개도국 성장세 둔화로 **3%초반 대 성장 예상**

* '1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OECD) 3.4% , (IMF) 3.25% , (LG경제연) 3.1%

- 유로지역 향방에 따라 경기 변동성 확대 및 하향 전망 가능성 존재

- 국내 경제는 수출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3 ~ 3.6% 내외의 성장 예상**

<주요 기관별 국내 경제 성장 전망(%) >

전망기관 (최근전망시점)	OECD ('12.4)	IMF ('12.6)	KDI ('12.5)	현대경제연 ('12.6)	기재부 ('12.6)	KIET ('12.6)	LG경제연 ('12.6)
당초전망(A)	3.8	3.5	3.8	4.0	3.7	3.7	3.6
수정전망(B)	3.5	3.25	3.6	3.5	3.3	3.2	3.0
비고 (A)-(B)	△0.3	△0.25	△0.2	△0.5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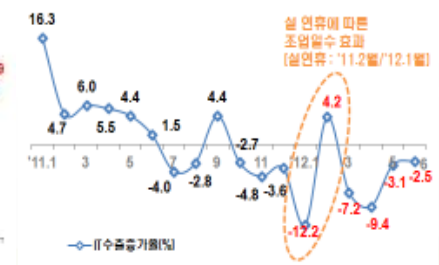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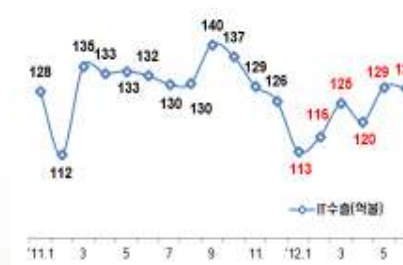
2. 상반기 IT수출 주요 특징

- 상반기 IT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는 실적 기록

* '12년 상반기 수출 실적 : (IT) 733억불, △5.2%, (전체) 2,754억불, 0.7%↑

<IT수출 금액 추이(억불) >

<IT수출 증감률 추이(%) >



- IT산업은 전체수지의 약 3.3배인 353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수지 흑자 견인

* 무역수지('11.상→'12.상): (IT) 367억불흑자 → 353억불 흑자(△3.9%), (전산업) 153흑자 → 107억불 흑자(△30.0%)

□ 상반기 IT수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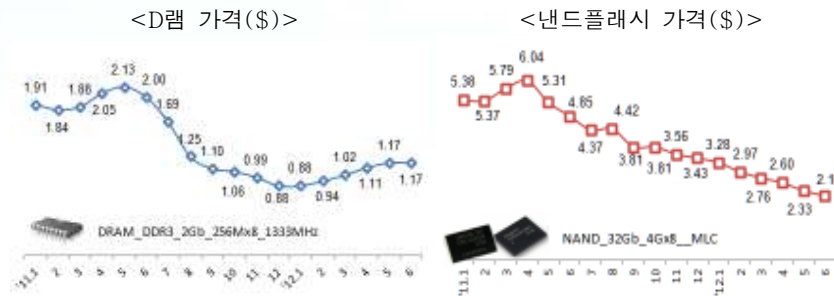
① 상반기 IT산업 부진은 세계 IT수요 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단가 하락 등과 함께, 휴대폰 해외 생산 확대가 결정적

-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IT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예상 (참고1, 참고2)

* '12년 세계 IT성장률(Gartner, 2012. 3) : 2.5% < '12년 세계 경제성장률(IMF, 2012. 4) : 3.5%
'12년 세계 경제성장률(IMF, 2012. 6) : 3.25%

-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패널은 글로벌 수요부진과 단가 하락의 이중고

* 단가 추이('11.상반기→'12.상반기, \$) : (DRAM) 2.0→1.0, (낸드) 5.5→2.7, (LCD) 265→210



자료 : DRAmExchange, 2012.06

- 휴대폰은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 및 실적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수출 패턴(해외 생산 강화) 변화는 IT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참고3)

* 수출 증감률(%), '12.1Q→2Q) : (IT) △5.5→△5.0, (휴대폰 제외 IT) 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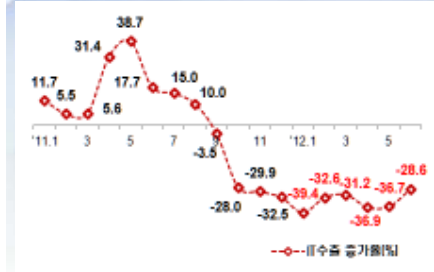
* 세계시장점유율('10→'11→'12.1Q SA, %) : (스마트폰) 10.0 (4위)→24.0 (1위)→34.5 (1위)
(휴대폰) 29.9 (2위)→27.5 (1위)→29.4 (1위)

* 스마트폰/휴대폰 해외생산비중(%) : ('11) 56.8→('12.1Q) 79.7 / ('11) 77.0→('12.1Q) 80.1

<휴대폰 수출 금액 추이(억불)>



<휴대폰 수출 증감률 추이(%)>



② 품목별로는 시스템반도체, PCB, 2차전지 등 모바일부품과 SW 수출은 호조세

- 시스템반도체는 3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PCB, 2차전지도 증가세 기록

* 상반기 실적 : (시스템반도체) 111억불, 32%↑, (PCB) 20억불, 28%, (2차전지) 22억불,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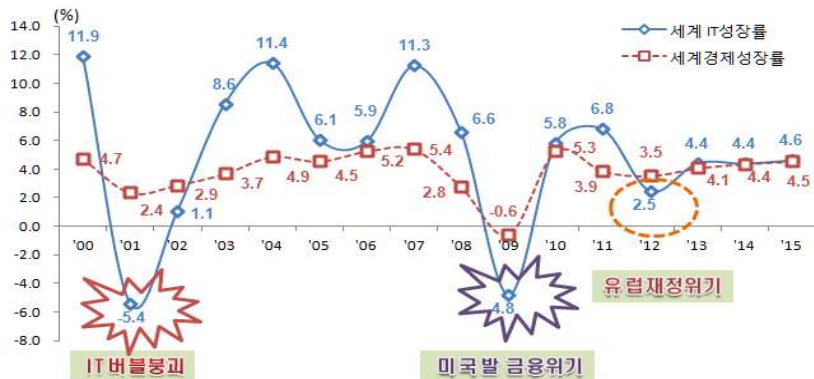
- 취약 분야인 SW산업은 IT서비스 해외 진출 강화와 공공부문 IT예산 조기집행으로 수출 및 생산은 '10년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 '12년 상반기 SW 실적(임베디드SW 제외) 추정 : (생산) 14.2조원 5.3%↑, (수출) 7.1억불 10.6%↑

③ 상반기 중소기업 IT수출은 연간 50만불 이상의 수출 상위 중소기업 수 비중이 향상되는 등 수출 저변이 점진적으로 향상

* 50만불 이상 IT수출 중소기업 수비중(%) : ('09) 13.5→('10) 14.7→('11) 14.9→('12) 15.2

〈참고 1〉 세계 IT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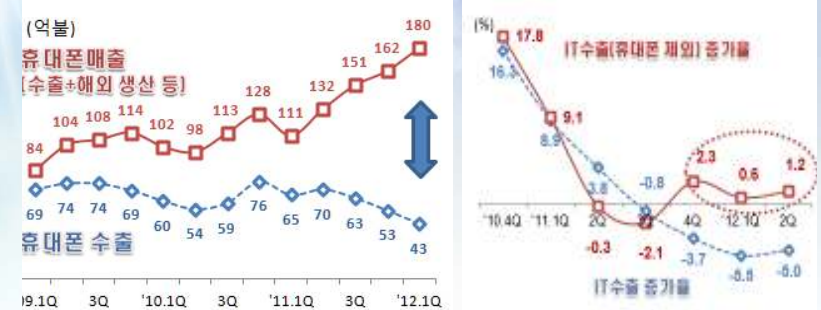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IMF 2012.

〈참고 2〉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2012년 경제 및 IT 부문 수정 전망

(단위 : %)

구분	전망기관	당초	수정	비고
전체 수출	지경부	6.7	3.5	↓
세계 경제	IMF	4.4	3.25	↓
세계 IT시장	Gartner	4.6	2.5	↓
IT HW	Gartner	8.3	5.7	↓
휴대폰	Gartner	10.5	9.4	↓
컴퓨터	Gartner	8.6	△0.4	↓
반도체	Gartner	4.6	4.0	↓
LCD패널	DisplaySearch	17.6	15.2	↓
	Displaybank	7.0	6.0	↓
TV	DisplaySearch	2.3	1.4	↓
SW	IDC	4.9	4.7	↓
통신서비스	Gartner	2.3	1.0	↓

〈참고 3〉 휴대폰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IT 및 휴대폰 수출 감소



자료 : SA, NIPA 2012

▷ 국내 휴대폰 산업은 매분기 사상 최대 매출기록, '11년에 이어 '12.1분기 세계 1위 달성

▷ 휴대폰 수출은 해외 생산 본격화로 인해 7~8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과 휴대폰 매출 간 격차가 크게 확대

* 휴대폰 반기 수출(억불) : ('03.상) 68 → ('04.상) 105 → ('08.상) 167 → ('12.상) 88

* 휴대폰 매출과 수출간 격차(억불) : ('11.1Q) 46 → (3Q) 88 → ('12.1Q) 137

▷ 휴대폰 제외 시 IT수출은 3분기 연속 증가세 전환

< 붙임 2 > 품목별 수출입 실적

1. 수출 실적

□ 품목별 상반기 수출 실적

-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은 부진했으나, 시스템반도체, PCB, 2차전지 등 모바일부품과 태블릿 PC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호조세

【반도체 : 243.8억불, △1.6%】

- (시스템반도체 : 111.1억불, 31.5%↑) 모바일AP,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등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36개월 연속 수출 증가 기록

* 시스템반도체 수출증감률(%) : ('12.1) 33.4 → (3) 31.3 → (4) 25.7 → (6)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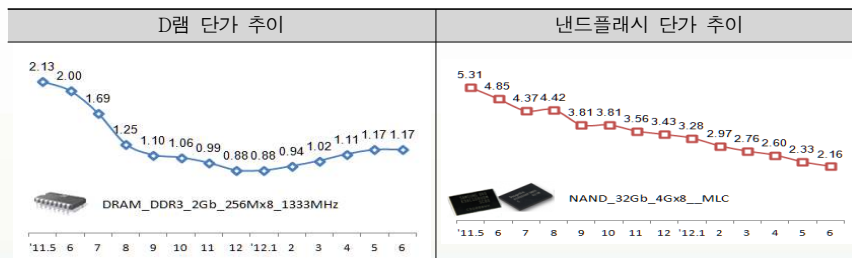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제치고 11년 4분기에 이어 '12년 2분기 연속 세계 4위'(1위 미국, 2위 일본, 3위 EU 등) 기록

*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 iSuppli) : ('11.1Q) 3.3→(3Q) 4.2→(4Q) 4.6→('12.1Q) 5.2

- (메모리반도체 : 99.8억불, △22.9%)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단가(△45.1%)는 여전히 낮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대만 경쟁사의 파산 신청 및 감산 등으로 수출 감소세 완화

* 메모리 수출증감률(%) : ('12.1) △32.5 → (3) △24.9 → (5) △20.3 → (6) △8.8

* 세계 3위 D램 업체인 Elpida(日)는 파산보호 신청(2.27)에 따른 공개 매각이 추진 중이며, 대만 1위 난야, 이노테라 등도 9분기 연속 적자 등 경영 여건 악화



자료 : DRAmEXchange, 2012.06

- 울트라북 및 윈도우8 출시에 따른 수요 확대, 마이크론의 Elpida 인수에 따른 반도체 수급안정화로 반도체 업황은 점차 개선 전망

【디스플레이 패널 : 148.9억불, △3.9%】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유로 2012,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 등으로 EU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수출 감소세 완화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증감률(%) : ('12.1Q) △6.0 → (2Q) △1.9

* 디스플레이 패널 對EU 수출증감률(%) : ('12.1Q) △12.4 → (2Q) 21.6

【휴대폰 : 88.4억불, △34.4%】

- 휴대폰 및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점유율(출하량)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 국내 휴대폰업체인 삼성전자는 '12년 1분기 스마트폰, 4G LTE 폰 시장에서 최대 성과를 거두며 휴대폰(점유율 : 25%), 스마트폰(점유율 : 30.1%) 세계 1위 업체 등극(SA)

-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11 : 77% → '12. 1Q : 80.1%)에 따른 국내 휴대폰 생산 감소로 수출은 9개월 연속 20% 이상 감소

* 휴대폰 수출증감률(%) : ('11.10) △28.0→('12.1) △39.4→(4) △36.9→(6) △28.6

【컴퓨터 및 주변기기 : 36.8억불, 5.8%】

- 휴대용 컴퓨터, SSD(Solid State Disk)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증감률(%) : ('12.1) △2.2→(2) 29.2→(3) △13.2→(4) 2.6→(5) 22.5→(6) 3.0

- (컴퓨터 : 6.4억불, 51.5%↑) 태블릿PC, 노트북 PC 등 휴대용 컴퓨터 수출 호조세

- (주변기기 : 25.8억불, 6.5%↑) SSD(Solid State Disk) 등 보조기억장치(8.4억불, 7.9%↑), 모니터(9.3억불, 0.2%↑) 등이 수출 증가 전인

【TV : 30.9억불, △19.1%】

- (LCD TV : 4.1억불, 6.1%↑) LED TV, 스마트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 확대에 증가세 기록
- (TV부분품 : 25.6억불, △21.1%) 글로벌 TV시장 수요 침체가 해외 공급 거점 실적둔화, 부분품 수출 감소로 이어짐

* 12년 상반기 세계 TV시장 성장률 전망(DisplaySearch) : △4.8%

□ 국가별 수출 현황

- 중국(홍콩포함, 364.5억불, 3.7%↑), ASEAN(78.7억불, 10.5%↑)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72.1억불, △21.7%), EU(62.8억불, △17.5%↑), 일본(39.6억불, △4.1%) 등 선진국 수출은 감소세 지속

‘12년 상반기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불, % : 전년 동기대비)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휴대폰	IT 전체
전체	243.8 (△1.6)	148.9 (△3.9)	88.4 (△34.4)	732.7 (△5.2)
중국(홍콩포함)	133.9 (1.3)	109.5 (△2.3)	21.1 (△14.4)	364.5 (3.7)
미국	14.1 (△7.5)	0.6 (△42.4)	26.7 (△42.0)	72.1 (△21.7)
일본	13.4 (△10.8)	0.8 (△73.4)	11.8 (27.4)	39.6 (△4.1)
EU	8.7 (△39.8)	18.3 (4.1)	11.5 (△29.3)	62.8 (△17.5)

2. 수입 실적

□ 상반기 IT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379.7억불

- 시스템반도체(97.4억불, 6.8%↑),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용기기(6.6억불, 18.4%↑)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 국내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휴대폰(13.6억불, △53.6%), 컴퓨터 및 주변기기(47.0억불, △2.9%) 수입은 감소

* 국내업체의 내수시장 점유율(Gartner, '11.1Q → '12.1Q, %) : (휴대폰) 81.6 → 96.6

‘12년 상반기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기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223.9 (△1.8)	47.0 (△2.9)	62.1 (8.2)	379.7 (△6.5)
중국(홍콩 포함)	66.6 (△8.9)	29.8 (△5.6)	14.2 (4.0)	134.1 (△13.3)
미국	24.9 (24.6)	2.7 (0.3)	11.7 (1.6)	42.7 (11.8)
일본	38.8 (△1.4)	2.3 (△3.7)	13.3 (10.6)	59.1 (0.4)
대만	44.6 (10.0)	1.0 (0.4)	0.4 (△20.2)	49.9 (△1.2)

< 붙임 3 > 동향 세부자료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3. 수입 및 수지 동향

4. 2012년 상반기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참고) 6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① 휴대폰(부분품 포함)

▶ '12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16.3억 대(5.3%↑)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며 이중 신흥시장은 12.0억 대(7.1%↑)를 기록, 세계시장의 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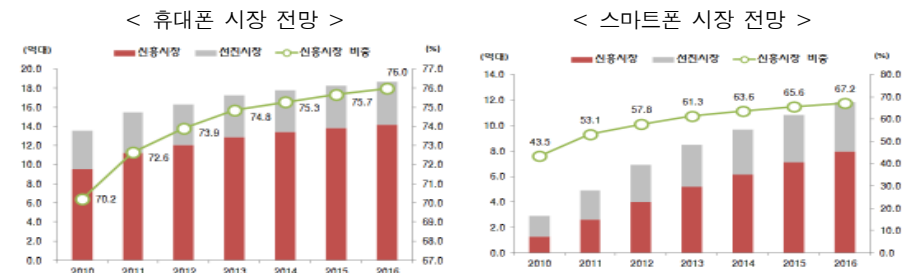
◦ 스마트폰은 6.9억 대(40.4%↑)가 출하될 예정이며, 선진시장 2.9억 대(26.6%↑), 신흥시장 4.0억 대(52.6%↑) 등 두 자릿수 성장하며 휴대폰 시장을 견인

※ 휴대폰 반기별 성장 전망('12.상→하, %) : 피쳐폰(△11.9 → △10.2) / 스마트폰(40.3 → 40.5)

◦ 올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이 확실

※ 스마트폰 출하 전망('11→'12) : 중국 0.9억 대→1.5억 대(70.7%↑) / 미국 1.0억 대→1.2억 대(20.8%↑)

휴대폰/스마트폰의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SA, 2012.05

▶ 국내 업체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4분기 연속 세계 1위 달성

◦ '12년 1분기, 삼성전자는 Nokia를 제치고 휴대폰 출하량에서 사상 처음 세계 1위에 등극하였고 스마트폰에서도 Apple과 격차를 확대하며 1위 재탈환

※ 휴대폰 출하 대수('12.1Q) : 삼성전자 9,250만 대(34.3%↑), Nokia 8,270만 대(23.8%↓)

◦ 삼성전자와 Apple은 스마트폰 출하량의 54.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 삼성전자+Apple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 ('09) 18.0→('10) 23.8→('11) 38.8→('12.1Q) 54.0

주요 업체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출하 기준)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12.1Q	
				1Q	2Q	3Q	4Q	연간		
휴대폰 전체	한국	29.5	29.9	26.9	28.3	28.9	26.3	27.5	29.4	↑
	삼성전자	19.4	20.6	19.3	20.7	22.8	21.6	21.2	25.0	↑
	Nokia	36.9	33.3	30.4	24.7	27.2	25.8	27.0	22.4	↓
	Apple	2.1	3.5	5.2	5.7	4.4	8.4	6.0	9.5	↑
	ZTE	—	3.7	4.3	5.5	4.8	5.6	5.1	5.3	↑
	LG전자	10.1	8.6	6.9	6.9	5.4	4.0	5.7	3.7	↓
스마트폰	한국	4.2	10.0	16.2	23.9	27.1	26.8	24.0	34.5	↑
	삼성전자	3.7	8.0	12.2	18.3	23.4	23.2	19.9	30.1	↑
	Apple	14.4	15.9	18.1	18.4	14.3	23.6	19.0	23.8	↑
	Nokia	38.8	33.4	23.5	15.1	14.0	12.5	15.8	8.1	↓
	RIM	19.7	16.3	13.4	11.3	9.8	8.5	10.5	6.7	↓
	HTC	6.0	8.0	9.3	10.8	10.8	6.3	9.1	4.5	↓

자료 : SA, 2012.05

- ▶ 국내 업체는 선진 시장에서 Apple과의 격차를 축소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에서는 Nokia를 추월하며 선진·신흥 시장 모두에서 스마트폰 시장지배력을 확대
- Nokia·RIM·HTC 등은 점유율이 급락 추세이며,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3와 Apple의 아이폰5 등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더욱 하락할 전망

선진 및 신흥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점유율

(단위 : %)

구 분	선진시장				신흥시장			
	2009	2010	2011	'12.1Q	2009	2010	2011	'12.1Q
국내업체	4.1	11.1	23.0	29.5	3.2	10.0	23.6	31.5
Apple	18.7	19.8	25.9	31.1	7.2	9.6	12.3	16.8
Nokia	21.7	18.1	7.6	4.2	74.2	57.3	27.7	13.0
RIM	27.7	20.3	11.4	7.0	6.7	11.3	10.4	6.8
HTC	7.3	11.8	12.4	7.0	4.6	3.1	6.0	4.1

자료 : Gartner, 2012.05

2) 수출 실적 및 전망

- ▶ 국내 업체는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가격경쟁력 제고, 시장지배력 확대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쳐폰 및 스마트폰의 글로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출하량이 '11년 2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동기간 해외 출하량은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

국내 업체의 휴대폰 출하 추이

(단위 : 백만 대, %)

구 분	2009	2010	2011					'12.1Q
			1Q	2Q	3Q	4Q	연간	
글로벌 출하	345.0	406.1	95.7	101.2	113.3	115.6	425.8	108.8
(증감률)	(16.0)	(17.7)	(2.4)	(4.7)	(11.1)	(1.5)	(4.9)	(13.7)
국내출하	111.7	120.4	29.7	23.7	21.5	23.0	97.9	21.7
(증감률)	(△9.8)	(7.8)	(15.1)	(△24.6)	(△1.5)	(△27.8)	(△18.7)	(△26.8)
해외출하	233.3	285.7	66.0	77.5	91.8	92.6	327.9	87.1
(증감률)	(34.5)	(22.5)	(△2.5)	(18.8)	(30.0)	(12.8)	(14.8)	(31.9)
해외출하비중	67.6	70.4	69.0	76.6	81.0	80.1	77.0	80.1

자료 : 통계청, SA, Nipa 2012.05

- ▶ 상반기 휴대폰(88.4억불, △34.4%) 수출은 세계 1위 등극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생산 확대로 '04년 이후 처음으로 반기(半期) 기준 100억불을 하회
- 스마트폰(51.4억불, △22.2%), 피쳐폰(4.9억불, △74.4%) 등 완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의 생산을 위한 부품품(32.1억불, △35.2%) 수출도 부진
- ▶ (지역별) 해외거점(중국, 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의 영향으로 중국(홍콩 포함, 21.1억불, △14.4%), 미국(26.7억불, △42.0%), EU(11.5억불, △29.3%) 등 주요 시장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 반면, 對일본(11.8억불, 27.4%) 수출은 LTE폰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며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중국, 미국, EU 등을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에 등극
- ※ '12.6월 수출 : 일본(4.2억불, 52.8%), 중국(+홍콩, 4.0억불, △13.6%), 미국(3.1억불, △58.0%), EU(1.2억불, △30.4%)

휴대폰(부품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휴대폰 (부품품 포함)	22.1 (17.7)	21.7 (15.0)	20.7 (10.0)	20.3 (△3.5)	19.1 (△28.0)	18.8 (△29.9)	15.1 (△32.5)	14.4 (△39.4)	13.3 (△32.6)	14.9 (△31.2)	14.6 (△36.9)	15.5 (△36.7)	15.8 (△28.6)	88.4 (△34.4)
스마트폰	10.7 (97.6)	8.3 (45.3)	7.3 (8.4)	9.1 (2.3)	9.9 (△14.7)	10.5 (△17.2)	8.0 (△27.6)	8.6 (△14.6)	7.3 (△26.2)	8.5 (△8.3)	8.5 (△33.8)	9.5 (△28.2)	9.0 (△16.0)	51.4 (△22.2)
피쳐폰	2.9 (△56.0)	2.5 (△53.7)	1.8 (△57.9)	2.0 (△46.6)	2.6 (△58.7)	2.1 (△63.4)	1.6 (△61.0)	0.8 (△81.1)	1.0 (△69.3)	0.8 (△74.0)	0.8 (△69.5)	0.7 (△75.8)	0.8 (△73.2)	4.9 (△74.4)
부품품	8.6 (25.5)	10.9 (41.4)	11.6 (47.7)	9.3 (9.0)	6.7 (△23.8)	6.2 (△25.6)	5.4 (△23.3)	5.0 (△46.8)	5.1 (△24.4)	5.5 (△39.4)	5.3 (△31.1)	5.2 (△36.3)	6.1 (△29.3)	32.1 (△35.2)

②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 Elpida 파산신청 등에 따른 수급 조정 등으로 D램 등 단가가 회복되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 재발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1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은 5.1% 감소

※ 세계 3위 D램 업체인 Elpida(세계시장점유율 : 13.5%)는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에 따른 세계 PC생산 차질, 엔고 등의 영향으로 법정관리 신청(2월27일)을 단행

-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는 지난해에 비해 40%를 상회하는 가격 하락으로 '12.1분기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6.1% 감소한 131억불

- ▶ 국내업체는 글로벌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세공정 우위 및 우수한 양산 기술을 바탕으로 12년 1분기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향상

- 낸드플래시는 애플의 구매선 다양화(국내 업체 중심→일본 업체 비중 확대) 등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

※ 세계시장 점유율(iSuppli, %) : D램 ('11.1Q) 62.9 → ('12.1Q) 65.3, 낸드플래시 ('11.1Q) 46.4 → ('12.1Q) 45.4

- ▶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실적 악화 지속으로 국내 업체와의 격차 확대

- Elpida는 누적적자 심화로 파산 신청하였고 Elpida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4위업체 Micron이 선정되어 Elpida 인수 절차 진행 중

- 대만 1위 Nanya와 Inotera는 각각 1분기 영업손실 86.5억 대만불(약 3,350억원), 39.8억 대만불(약 1,540억원)로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 상태 악화

- 이에 따라 일본, 대만 등 경쟁 업체의 보수적인 설비투자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상되며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 '12년 1분기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제치고 2분기 연속 세계 4위 등극

※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 , iSuppli) : ('11.1Q) 3.3→(2Q) 3.6→(3Q) 4.2→(4Q) 4.6→('12.1Q) 5.2

- 최근 모바일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시스템반도체는 대표적인 적자 품목에서 수지 흑자 창출 품목으로 탈바꿈

※ 시스템반도체 수지(억불) : ('08) △71.0→('09) △54.3→('10) △23.5→('11) 8.8→('12.1-6) 13.7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매출액 기준)

(단위 : 억불, %)

구 분		미 국	일 본	EU	한국	대만	기 타	전체
‘12.1Q	매출액(억불)	310.9	56.7	38.8	24.4	20.5	14.8	466.1
	시장점유율	66.7%	12.2%	8.3%	5.2%	4.4%	3.2%	100%
‘11.4Q	매출액(억불)	325.4	60.7	39.5	22.2	21.8	16.5	486.1
	시장점유율	66.9%	12.5%	8.1%	4.6%	4.5%	3.4%	100%
‘11.3Q	매출액(억불)	340.2	69.3	43.9	21.6	23.2	16.4	514.6
	시장점유율	66.1%	13.5%	8.5%	4.2%	4.5%	3.2%	100%

주) 노란색 음영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Top4국가

자료 : iSuppli 20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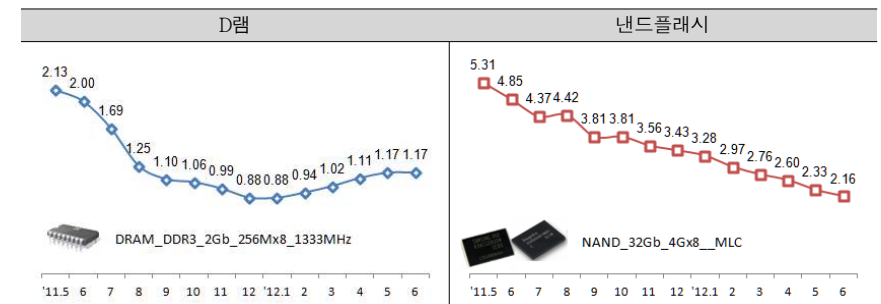
2) 수출 여건

- ▶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낸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Elpida의 파산으로 D램 단가는 반등세

- D램 단가는 3위인 Elpida 파산으로 반등세를 지속

- 낸드플래시는 업체 간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3분기 이후 윈도우8, 아이폰5 등 MS,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 수요 회복으로 하락세 둔화될 전망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2.06

3) 수출 동향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한 243.8억불

- 반도체 수출은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감소세 둔화 등으로 '12.4월 이후 증가세 회복
- HW+SW 융합형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111.1억불, 31.5%↑)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수출 호조로 3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메모리반도체(99.8억불, △22.9%)는 Elpida 파산 신청이후 D램 단가가 회복세로 수출 감소율이 크게 둔화 중

▶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AP 등 수출 호조와 일본, 대만 업체의 감소에 따른 수급안정화로 수출 증가세 회복 예상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반도체	42.1 (△3.8)	39.7 (△14.0)	41.1 (△13.3)	45.9 (△3.7)	43.5 (△4.5)	40.8 (△1.3)	42.8 (0.7)	37.6 (△8.1)	38.7 (5.9)	43.1 (△3.6)	38.3 (△7.7)	42.4 (1.7)	43.5 (3.4)	243.8 (△1.6)
메모리	21.3 (△15.7)	18.2 (△31.1)	17.4 (△37.6)	18.6 (△30.0)	18.1 (△26.0)	17.3 (△14.4)	16.1 (△24.9)	14.7 (△32.5)	15.2 (△19.1)	17.6 (△24.9)	15.4 (△30.8)	17.6 (△20.3)	19.4 (△8.8)	99.8 (△22.9)
D램	12.2 (△27.0)	10.1 (△43.3)	9.7 (△48.3)	9.5 (△45.5)	8.9 (△45.5)	8.5 (△33.1)	8.7 (△30.4)	8.0 (△30.8)	8.1 (△26.9)	9.7 (△24.1)	8.8 (△29.4)	9.6 (△23.7)	10.3 (△15.6)	54.5 (△25.0)
낸드	2.4 (1.3)	2.6 (8.4)	2.7 (9.4)	2.9 (28.2)	2.9 (35.9)	2.7 (18.6)	2.5 (△0.6)	1.9 (△22.1)	1.6 (△27.4)	1.6 (△41.8)	1.4 (△50.2)	1.4 (△57.3)	1.5 (△36.8)	9.5 (△40.6)
시스템 반도체	15.2 (15.0)	15.9 (12.8)	17.4 (22.3)	21.3 (39.5)	20.3 (34.8)	18.9 (21.2)	21.4 (39.1)	18.5 (33.4)	18.0 (47.3)	19.9 (31.3)	17.3 (25.7)	19.0 (32.6)	18.5 (21.5)	111.1 (31.5)

③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2012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1,262억불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대형 LCD 패널 시장은 3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수요 기대, 런던 올림픽 등의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11년 756억불 대비 11.6% 증가한 844억불을 기록할 전망

※ 대형 LCD패널 시장규모(억불) : ('11.1Q)177→('2Q)198→('3Q)195→('4Q)186→('12.1Q)181→('2Qe)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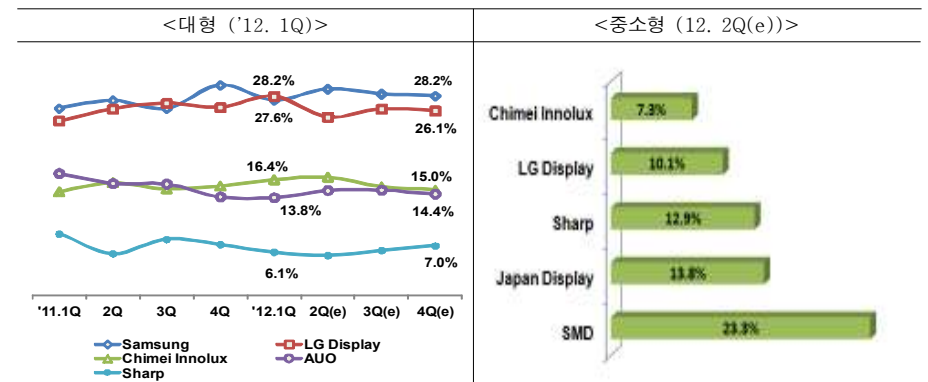
※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12년 한국의 대형 LCD 패널 1분기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한 55.8%로 세계 1위(DisplaySearch, '12.5) : 대만(31.1%, △11.9), 일본(9.4%, △35.7)

- 중소형 LCD 패널 시장은 스마트폰의 점유율 확대에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팬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하락 및 한국업체의 강세 지속

※ 중소형 LCD패널 시장규모(억불) : ('11.1Q)60→('2Q)58→('3Q)67.1→('4Q)69→('12.1Q)62→('2Qe)64

※ 1위 업체인 SMD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2년 2분기 한국 중소형 LCD 패널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33.6% 증가한 33.8%로 세계 1위 전망(DisplaySearch, '12.4) : 일본(31.3%, △15.1), 대만(26.4%, △10.7)

주요 업체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매출기준)



자료 : DisplaySearch(2012.05)

자료 : DisplaySearch(2012.04)

- ▶ (하반기) 런던 올림픽 특수 및 디지털 방송 전환,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 보조금 지원 정책, 시장 수급 안정화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성장세 전망
- Displaysearch는 하반기 LCD TV 수요 증가로 LCD 수급의 안정적 성장 및 LCD TV 패널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구환신, 가전하향 등 소비자 보조금 지원 정책 종료로 '12년 상반기 중국 내수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중국의 새로운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정책을 통해 LCD 수요 확대 전망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전망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1				2012			
	1Q	2Q	3Q	4Q	1Q	2Q (e)	3Q (e)	4Q (e)
LCD 대형 (성장률)	176 (-11.9)	197 (12.1)	193 (-1.9)	189 (-2.2)	180 (-4.8)	205 (14.1)	240 (16.8)	247 (2.8)
LCD 중소형 (성장률)	69 (14.3)	68 (-0.7)	80 (18.0)	81 (0.7)	78 (-3.9)	82 (5.1)	N.A.	

자료 : DisplaySearch, 2012.05

2) 수출 실적 및 전망

- ▶ '11년 대비 LCD 업체들의 보수적인 설비투자, 수요 기대에 따른 세트 업체들의 재고 확충, 패널가격 상승,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계절적 성수기 등으로 수출의 소폭 증가 및 보합세 예상
- 하반기 이후 주요 패널 업체들의 대형 LCD라인 증설 취소 및 지연으로 수급 불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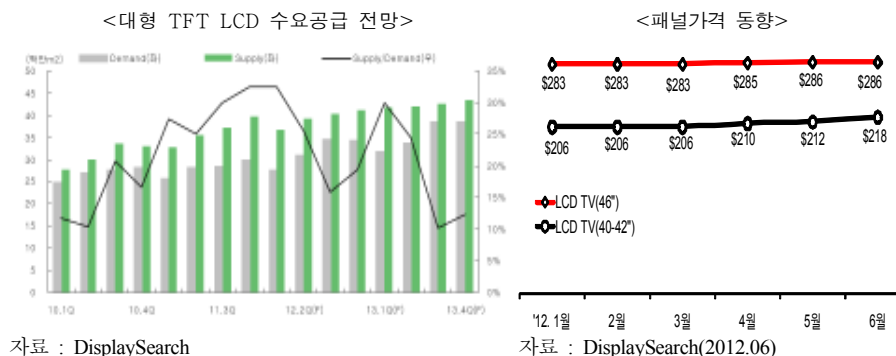
형 추세는 점차 개선되어 17.6%로 전년보다 공급 초과율은 낮아질 전망

※ '12년 상반기 대형 LCD 패널의 경우 주요 패널업체들의 8세대 라인 가동과 부진한 수요 영향으로 28.8%의 공급과잉을 기록

-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인해 런던 올림픽을 대비한 세트 업체들의 패널재고 확충 속도는 더더질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하반기 패널 가격의 상승폭은 당초 시장의 기대 이하가 될 전망

※ 패널가격 추이(LCD TV 40~42", 불) : ('12.3월) 206 → (4월) 210 → (5월) 212 → (6월) 218

패널 수요공급 전망 및 가격동향



자료 : DisplaySearch

자료 : DisplaySearch(2012.06)

- 패널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가전 내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중국 내수시장 확대 기대
- ※ 중국은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12.6~'13.5)이며, LCD TV의 경우 최저 100위안에서 최고 400위안까지 보조금 수혜 가능
-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분기부터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뉴아이패드의 글로벌 판매 확대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뉴아이패드용 LCD 패널 본격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런던올림픽(7월)의 3D 방송 중계에 대비한 3D TV 수요 예상

- ▶ 상반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49억불 수준

- LCD 패널은 중국 노동절 기간 동안의 예상보다 저조한 LCD TV 판매, 상반기 부진한 수요로 인한 패널 재고 확충 지연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수출 감소
-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한 1.7억불 기록
- ▶ (지역별) 남미(2.2억불, 25.3%↑), EU(27개국)(3.4억불, 57.3%↑), 동유럽(3.3억불, 67.7%↑) 등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 저조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패널 (증감율)	26.4 (△8.3)	25.2 (△21.2)	25.2 (△21.2)	27.6 (△3.7)	29.2 (1.1)	26.5 (△2.7)	25.3 (△4.6)	22.8 (△11.2)	22.7 (0.6)	25.2 (△6.6)	25.9 (△1.6)	27.0 (△0.2)	25.3 (△4.0)	149 (△3.9)
부분품 (증감율)	3.0 (△3.8)	2.8 (△19.3)	2.6 (△15.0)	2.8 (1.2)	2.8 (4.0)	3.0 (5.4)	2.8 (△2.6)	2.8 (2.7)	2.8 (23.0)	2.8 (△10.7)	2.8 (△13.5)	3.1 (6.4)	2.9 (△1.4)	17 (△0.2)

4 TV

1) 시장 환경

- ▶ '12년 TV 시장은 전년대비 0.3%(평판TV 1.4%) 성장한 1,151억불(평판TV 1,136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지난 해 선진시장을 넘어선 중국 등 신흥시장은 올해 665억불(7.6%↑) 규모의 시장을 형성, 선진시장(486억불, 8.1%↓)과의 격차를 확대할 전망
- 신흥시장의 비중은 '11년 53.9%에서 올해 57.7%로 3.9%p 상승하며 전체 TV 시장의 성장을 견인
- ▶ (경쟁 환경) 글로벌 시장의 침체 속에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프리미엄 시장 주도, 수직계열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등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
-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40%대를 돌파. 반면, 일본 기업들은 자국 시장의 급격한 몰락과 LED TV, 3D TV, 스마트 TV 등으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밀리며 위상이 급격히 하락
- 하반기에도 국내 기업들은 OLED TV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 한일중의 TV 시장 점유율('11.1Q~'12.1Q %, 매출기준): 한국(36.9→40.8), 일본(34.3→27.4), 중국(16.5→20.1)

세계 TV 시장 전망 및 1분기 업체별 실적



2) 수출 실적 및 전망

▶ 상반기 TV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1% 줄어든 30.9억불로 집계

◦(부분별) LCD TV 수출은 6.1% 증가하며 성장한 반면, LCD TV에 밀려 글로벌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PDP TV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 6월의 경우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LCD TV 수출마저 하락 반전
- 상반기 수출의 83% 이상을 차지한 부분품 수출이 21% 이상 하락하며 전체 TV 수출 크게 하락

※ 국내 기업의 LCD TV 해외출하 비중은 12년 1분기 기준 92.2% (통계청, DisplaySearch)

※ 글로벌 TV 시장의 수요 침체가 해외 공급 거점의 실적 둔화→부분품 수출 감소로 이어짐

◦(지역별) 상반기에는 전체 TV 수출의 2.8%를 차지하며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미국(19.6%)에 대한 수출만 증가하였을 뿐 31.3%를 감당한 중남미(△23.4%), 14.9%를 차지한 EU(△31.8%), 13.4%를 차지한 중국(△23.4%) 등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

- 최대 수출국이자 對미 공급 거점인 對멕시코 수출이 28.9% 하락하였고, 유럽 공급 거점인 슬로바키아(△49.7%), 폴란드(△38.6%), 헝가리(△8.0%)에 대한 수출도 크게 하락
- 對미 수출의 경우도 1분기의 폭발적 성장(62.7%)이 상반기 실적을 견인하였으나 2분기에는 역성장(△27.5%)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

▶ 하반기에는 런던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중국의 새로운 소비부양책, 계절적 수요 등을 배경으로 TV 업황이 점차 개선되며 수출 역시 성장둔화의 폭을 줄일 것으로 기대

◦(세트) 연이은 FTA 협정 발효로 인한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며 프리미엄 TV 세트의 직접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등장할 OLED TV도 세트 수출

확대에 기여할 전망. 다만 글로벌 시장 및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PDP TV 세트 수출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부분품) 상반기 TV 수출 감소를 주도한 부분품 수출은 하반기에 글로벌 수요가 다소 회복되며 생산거점을 통한 해외 공급 확대로 하락 폭을 축소할 전망

◦(경쟁 환경) 일본 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

- Sony는 올해 출시할 신제품 수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TV 판매 목표도 당초 4,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 Panasonic도 신제품 수를 30% 축소 계획

- 최근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자국 시장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TV (부분품 포함)	6.4 (△20)	8.5 (22.0)	7.7 (10.2)	7.8 (18.1)	6.2 (0.1)	5.4 (△4.7)	4.3 (△17.7)	4.7 (△25.9)	5.3 (△101)	5.4 (△24.9)	5.4 (△140)	5.1 (△145)	4.9 (△23.8)	30.9 (△191)
LCD TV	0.8 (11.8)	0.9 (48.5)	0.9 (59.4)	0.8 (40.2)	0.7 (35.2)	0.8 (38.0)	0.5 (△1.9)	0.6 (20.3)	0.6 (15.1)	0.6 (0.7)	0.8 (9.2)	0.8 (18.2)	0.7 (△15.9)	4.1 (6.1)
PDP TV	0.2 (△128)	0.2 (△186)	0.3 (16.9)	0.3 (9.8)	0.3 (△146)	0.2 (△303)	0.1 (△152)	0.2 (△142)	0.2 (△178)	0.2 (△51.1)	0.1 (△57.7)	0.1 (△56.8)	0.2 (△27.1)	1.0 (△386)
TV 부분품	5.3 (△32)	7.4 (21.3)	6.5 (5.8)	6.6 (16.5)	5.2 (△25)	4.4 (△8.2)	3.7 (△193)	3.9 (△307)	4.6 (△118)	4.5 (△33)	4.5 (△143)	4.2 (△167)	4.0 (△24.8)	25.6 (△21.1)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 (PC) 2012년 전통 PC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태블릿PC 등 신규 품목 인기에 따른 PC 교체주기 연장으로 침체기($\Delta 0.4\%$) 지속
 - (데스크탑 PC) AIO(All In One) 수요 확대 및 문서편집 기능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바일PC 및 태블릿PC 제품의 인기로 시장 규모 축소($\Delta 2.2\%$)
 - (모바일 PC) PC, 스마트폰, 태블릿PC 겸용 OS인 'Windows 8'와 울트라북 제품의 하반기 출시에 따른 고성능 모바일PC 수요 확대 및 시장 성장(0.9%) 기대
 - ※ 삼성전자, '12년 1분기 세계 PC(데스크탑+모바일)시장 점유율 8위(4.5%), 모바일PC 시장점유율 7위(7.1%)
- ▶ (태블릿PC) 2012년 저가형 태블릿PC 및 기업용 태블릿PC 시장 확대(98.1%) 전망
 - 삼성, 구글 등이 출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저가형 태블릿PC가 고가의 아이패드, 저가의 킨드파이어와 경쟁을 준비하는 한편,
 - MS가 Windows 8 태블릿PC 'Surface'를 출시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 예상
 - ※ '12년 1분기 세계 태블릿PC 시장 점유율(%): 애플 1위(63.1), 삼성전자 2위(10.5)
- ▶ (보조기억장치) 차츰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HDD의 '12년 출하량은 대용량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7.7% 증가할 전망. SSD는 울트라북 등 차세대 모바일PC 출시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74.4% 성장 예상
 - ※ '11년 세계 SSD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23.5 (Intel) 15.3 (Toshiba) 12.0 (OCZ) 6.2 (STEC) 5.8

세계 PC, 태블릿PC, 보조기억장치 시장 성장 전망 (출하량, 단위:백만대)



자료 : Gartner(2012.06), SA(2012.05), IDC(2012.04, 06)

2) 수출 여건

▶ 美 법원,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예비 판결(6.26)

- 다만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 10.1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 출시된 '갤럭시탭2 7.0(4월)' 및 '갤럭시탭2 10.1(5월)'가 태블릿PC 수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

국내 태블릿PC 출시 현황 및 컴퓨터 수출 추이



제품명	출시일	가격(16G WiFi)	비고
갤럭시탭 7	2010년 10월	399\$	- 독일, '7.0 Plus N' 출시('12년 2월)
옵티머스패드 (G-Slate)	2011년 3월	539\$	- 3D 디스플레이 기능 탑재 - 애플, '아이패드2' 출시
갤럭시탭 10.1	2011년 7월	499.99\$	- 독일 내 판매금지('11년 9월), '10.1N' 출시('11년 11월) - 미국 판매금지 예비판결('12년 6월)
갤럭시탭 8.9	2011년 9월	449.99\$	- 아마존, 킨드파이어(8G, 199달러) 출시
갤럭시탭 7.7	2011년 11월	562.99\$ (3G겸용)	- 최초 AMOLED 태블릿PC
갤럭시탭 7 Plus	2011년 11월	429.99\$	- 허니콤 3.2 OS
갤럭시탭2 7.0	2012년 4월	249.99\$ (8G)	- ICS OS, 저가형 제품 - 애플, '뉴아이패드' 출시('12년 3월)
갤럭시탭2 10.1	2012년 5~6월	399.99\$	- 구글: '넥서스7(8G, 199달러)' 출시 - MS: '서피스' 출시 - 아마존: '킨드파이어2' 출시 임박

자료 : NIPA, 관련 기사 및 Amazon, BestBuy(2012.06) 가격 정보 재구성

3) 수출 동향

▶ 컴퓨터 수출 호조에 따라 '12년 2분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체 수출이 상승세로 전환,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5.8% 상승한 36.8억불 기록

◦ (컴퓨터) 컴퓨터는 상반기 6.4억불(51.5%↑)수출을 기록하며 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승에 기여

- 태블릿PC를 포함한 휴대용 컴퓨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상반기 수출 호조

※ 컴퓨터 수출증가율(전년대비, %) : ('12.1월)138.1 → (2)225.6 → (3)△29.4 → (4)18.5 → (5)180.3 → (6)12.1

◦ (컴퓨터부품) 해외생산 확대 및 현지 부품 조달체계 강화로 컴퓨터 부품의 생산 및 수출은 '11년 8월 이후 감소세 지속

※ 컴퓨터부품 수출증가율(전년대비, %) : ('11년)△12.4 → ('12.1월)△38.9 → (3)△52.1 → (5)△42.2 → (6)△29.4

◦ (주변기기) 상반기 주변기기 수출은 25.8억불(6.5%↑) 기록. 보조기억장치(8.4억불, 7.9%↑) 수출과 생산지 이전에 따른 프린터(5.8억불, △6.2%) 수출 성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모니터(9.3억불, 0.2%↑)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

- SSD를 포함한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3월 이후 증가세를 회복, 6월 수출은 45개월 만에 최고 수출액(1.8억불, 30.8%↑) 갱신

- 6월 프린터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 감소한 0.9억불, 국내 프린터 업체의 생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하반기 프린터 수출 감소 예상

▶ (지역별) 중국과 미국, ASEAN 지역 向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 남미와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의 상반기 수출 부진

◦ 중국(홍콩 포함, 15.0억불, 15.8%↑)은 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미국(6.7억불, 10.3%↑)과 ASEAN(2.8억불, 39.5%↑)지역으로의 컴퓨터 수출 호조가 상반기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

- EU(4.6억불, △9.9%) 수출은 보조기억장치 수출 급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최근 컴퓨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반기 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의 성장 전환을 기대

※ EU 컴퓨터 수출증가율(전년대비, %) : ('12.1월) 90.0 → (2) 816.6 → (3) 177.2 → (4) 135.5 → (5) 429.3 → (6) 14.1

◦ 생산 현지화 추진에 따라 남미(2.3억불, △16.5%)에 대한 컴퓨터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도(0.3억불, △3.8%), 아프리카(0.1억불, △20.7%) 지역 등 신흥시장의 수요 침체로 보조기억장치, 프린터 등 주변기기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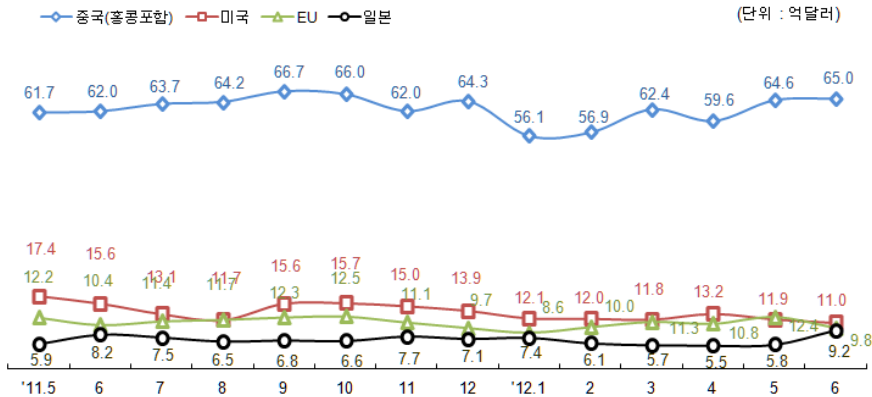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6.3 (△3.2)	6.7 (15.8)	7.2 (35.7)	7.3 (24.6)	7.0 (△4.4)	6.7 (△14.5)	6.6 (0.7)	5.6 (△2.2)	6.3 (29.2)	5.6 (△13.2)	6.1 (2.7)	6.7 (22.5)	6.5 (3.0)	36.8 (5.8)
컴퓨터	1.1 (29.6)	1.5 (156.1)	2.0 (513.8)	2.2 (200.3)	1.8 (△0.9)	1.3 (△50.0)	0.9 (△1.7)	1.1 (138.1)	1.2 (225.6)	0.8 (△29.4)	1.0 (18.5)	1.3 (180.3)	1.2 (12.1)	6.4 (51.5)
컴퓨터 부품	0.7 (△26.5)	0.9 (30.8)	0.8 (△8.2)	0.7 (△17.4)	0.7 (△19.8)	0.6 (△36.8)	0.7 (△35.9)	0.6 (△35.9)	0.7 (△15.1)	0.5 (△52.1)	0.6 (△32.4)	0.5 (△42.1)	0.5 (△29.4)	3.4 (△36.0)
주변기기	4.2 (△6.5)	4.1 (△5.4)	4.3 (5.3)	4.3 (3.7)	4.3 (△1.5)	4.6 (11.5)	4.8 (11.0)	3.9 (△7.4)	4.1 (15.1)	4.1 (0.7)	4.4 (6.7)	4.8 (18.5)	4.5 (6.6)	25.8 (6.5)
보조 기억장치	1.4 (8.5)	1.4 (8.1)	1.3 (△12.9)	1.2 (△18.5)	1.2 (△21.2)	1.7 (28.6)	1.7 (30.4)	1.2 (△16.8)	1.1 (△8.0)	1.0 (0.9)	1.5 (14.7)	1.7 (23.1)	1.8 (30.8)	8.4 (7.9)
프린터	1.1 (10.0)	1.1 (10.5)	1.0 (12.0)	1.2 (22.4)	0.9 (△16.5)	0.7 (△21.1)	1.0 (1.6)	1.0 (△10.4)	1.1 (28.8)	0.9 (△16.1)	0.9 (△13.5)	1.0 (△6.4)	0.9 (△11.0)	5.8 (△6.2)
모니터	1.6 (△27.0)	1.5 (△25.4)	1.8 (12.9)	1.7 (4.2)	1.9 (15.2)	1.8 (5.5)	1.7 (△7.4)	1.4 (△9.3)	1.6 (11.1)	1.8 (3.6)	1.6 (2.6)	1.7 (15.9)	1.2 (△21.2)	9.3 (0.2)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① 중국(홍콩 포함) : 364.5억불 수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109.5억불, △2.3%), 휴대폰 (21.1억불, △14.4%)은 감소했으나, 반도체(133.9억불, 1.3%↑)는 증가세 기록

◦ 對중국(홍콩 포함) IT수출 비중은 49.8%를 차지하는 등 IT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경기 향방이 향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금액	62.0	63.7	64.2	66.7	66.0	62.0	64.3	56.1	56.9	62.4	59.6	64.6	65.0	364.5
(증감률)	(5.0)	(2.2)	(2.6)	(8.7)	(9.8)	(6.3)	(11.5)	(△1.2)	(15.5)	(△0.8)	(1.1)	(4.7)	(4.8)	(3.7)
중국	48.1	49.6	48.7	50.5	48.9	46.8	48.5	43.0	43.4	47.2	45.8	48.8	51.4	279.6
	(4.9)	(2.3)	(△1.0)	(7.0)	(3.1)	(2.8)	(10.3)	(△0.1)	(13.5)	(△0.5)	(3.4)	(2.9)	(7.0)	(4.1)
홍콩	13.9	14.1	15.5	16.1	17.1	15.1	15.8	13.1	13.5	15.2	13.8	15.8	13.5	85.0
	(5.7)	(1.6)	(15.9)	(14.5)	(34.6)	(18.6)	(15.5)	(△4.7)	(22.6)	(△1.8)	(△5.5)	(10.8)	(△2.6)	(2.3)

② 미국 : 72.1억불 수출, 전년 동기대비 21.7% 감소

▶ 반도체(14.1억불, △7.5%), 휴대폰 수출(26.7억불, △42.0%), 디스플레이 패널(0.6억불, △42.4%)등 주요 품목 수출 부진으로 12개월 연속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금액	15.6	13.1	11.7	15.6	15.7	15.0	13.9	12.1	12.0	11.8	13.2	11.9	11.0	72.1
(증감률)	(△0.1)	(△21.2)	(△20.5)	(△2.9)	(△1.85)	(△1.73)	(△9.1)	(△13.6)	(△4.7)	(△14.3)	(△29.0)	(△31.7)	(△29.5)	(△21.7)

③ EU : 62.8억불 수출,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

▶ EU는 런던 올림픽, 유로 2012 등 스포츠 특수 대비 디스플레이 패널(18.3억불, 4.1%↑)는 증가했으나, 재정위기 재발 등으로 반도체(8.7억불, △39.8%), 휴대폰 (11.5억불, △29.3%) 수출 저조

EU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금액	10.4	11.4	11.7	12.3	12.5	11.1	9.7	8.6	10.0	11.3	10.8	12.4	9.8	62.8
(증감률)	(△34.8)	(△25.9)	(△31.3)	(△23.4)	(△32.0)	(△32.8)	(△33.3)	(△33.1)	(△20.4)	(△20.1)	(△22.9)	(1.5)	(△6.3)	(△17.5)

④ 일본 : 39.6억불 수출,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

▶ 휴대폰(11.8억불, 27.4%↑)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13.4억불, △10.8%), 디스플레이 패널(0.8억불, △73.4%)은 감소세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금액	8.2	7.5	6.5	6.8	6.6	7.7	7.1	7.4	6.1	5.7	5.5	5.8	9.2	39.6
(증감률)	(19.7)	(0.7)	(△2.6)	(6.3)	(△6.1)	(1.2)	(△10.0)	(△6.0)	(△4.0)	(△16.5)	(△10.9)	(△3.3)	(12.5)	(△4.1)

5 기타 국가

- ▶ 반도체 주요 수출 지역인 ASEAN(78.7억불, 10.5%↑)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
 - 중남미(38.5억불, △12.5%), 중동(21.2억불, △12.2%) 등 신흥시장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감소

3. 수입 및 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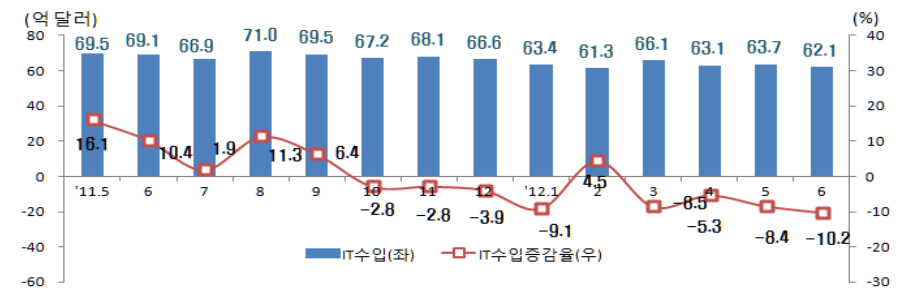
- ▶ 상반기 IT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379.7억불 기록
 - 시스템반도체(97.4억불, 6.8%↑),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용기기(6.6억불, 18.4%↑)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 국내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휴대폰(13.6억불, △53.6%), 컴퓨터 및 주변기기(47.0억불, △2.9%) 수입은 감소
 - ※ 국내 업체의 내수시장점유율(Gartner, '11.1Q → '12.1Q, %) : 81.6 → 96.6
 - 미국(42.7억불, 11.8%↑) 수입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134.1억불, △13.3%), 싱가포르(23.8억불, △14.3%), 대만(49.9억불, △1.2%), EU(28.0억불, △13.3%) 등 감소

'12년 상반기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기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223.9	(△1.8)	47.0	(△2.9)	62.1	(8.2)	379.7 (△6.5)
중국(홍콩 포함)	66.6	(△8.9)	29.8	(△5.6)	14.2	(4.0)	134.1 (△13.3)
미국	24.9	(24.6)	2.7	(0.3)	11.7	(1.6)	42.7 (11.8)
일본	38.8	(△1.4)	2.3	(△3.7)	13.3	(10.6)	59.1 (0.4)
대만	44.6	(10.0)	1.0	(0.4)	0.4	(△20.2)	49.9 (△1.2)

최근 IT 수입 추이



▶ 상반기 IT 무역수지는 35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의 약 3.3배

IT 무역 수치

(단위 : 억불)

구 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전체	19.1	46.5	4.1	12.3	39.0	30.0	22.6	△22.2	13.4	23.4	20.7	22.6	49.6	107.4
IT산업	63.1	63.1	59.2	70.9	70.0	61.3	59.1	49.2	55.0	59.0	57.2	65.7	66.9	352.9

◦ (품목별) 휴대폰(74.8억불), 반도체(89.1억불), 디스플레이 패널(116.6억불)은 흑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치

(단위 : 억불)

구 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휴대폰	17.7	18.9	17.3	16.3	15.8	12.3	11.7	12.0	10.8	12.2	12.5	13.2	14.1	74.8
반도체	16.5	11.4	12.7	18.0	15.4	14.6	16.5	11.6	13.4	16.3	13.4	16.3	18.2	89.1
패 널	20.1	19.6	19.4	21.9	23.5	20.8	19.8	17.3	17.6	19.1	20.5	22.1	20.0	116.6
TV	6.2	8.4	7.6	7.5	6.1	5.2	4.2	4.6	5.2	5.1	5.2	5.0	4.8	29.8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230.5억불), EU(34.8억불), 미국(29.4억불)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19.5억불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치

(단위 : 억불)

구 분	'11.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상반기
중국(홍콩)	36.0	39.8	37.4	41.4	43.1	35.4	40.9	33.5	35.2	38.4	37.1	41.7	44.6	230.5
EU	4.2	6.4	6.9	7.3	7.7	6.1	4.3	4.3	5.4	6.6	5.8	7.6	5.0	34.8
미국	9.0	6.0	4.0	7.8	7.7	7.4	6.2	4.7	4.8	3.6	6.1	5.2	5.1	29.4
일본	△2.3	△3.2	△4.4	△4.1	△3.8	△1.9	△4.0	△2.2	△3.5	△4.5	△4.7	△4.0	△0.7	△19.5

4. 2012년 상반기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1996년	1,297.2	412.3		1,503.4	270.3		-206.2	142.0
1997년	1,361.6	414.6	0.6	1,446.2	291.3	7.8	-84.5	123.3
1998년	1,323.1	389.4	-6.1	932.8	221.2	-24.1	390.3	168.2
1999년	1,436.9	519.3	33.4	1,197.5	324.9	46.9	239.3	194.4
2000년	1,722.7	672.1	29.4	1,604.8	443.5	36.5	117.9	228.6
2001년	1,504.4	526.7	-21.6	1,411.0	355.4	-19.9	93.4	171.3
2002년	1,624.7	617.8	17.3	1,521.3	389.8	9.7	103.4	227.9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상반기	2,735.9	773.2	6.2	2,582.5	406.0	15.1	153.4	367.2
하반기	2,816.2	793.0	-2.3	2,661.7	409.4	1.5	154.6	383.6
1월	444.7	128.2	16.3	419.8	69.8	29.6	24.8	58.4
2월	384.7	111.6	4.7	364.0	58.6	13.0	20.7	53.0
3월	480.5	134.8	6.0	455.7	72.2	11.9	24.9	62.6
4월	485.4	132.8	5.5	441.9	66.7	11.1	43.5	66.2
5월	473.3	133.5	4.4	452.8	69.5	16.1	20.5	63.9
6월	467.4	132.3	1.5	448.2	69.1	10.4	19.1	63.1
7월	489.5	130.0	-4.0	443.0	66.9	1.9	46.5	63.1
8월	457.9	130.2	-2.8	453.8	71.0	11.3	4.1	59.2
9월	465.1	140.4	4.4	452.8	69.5	6.4	12.3	70.9
10월	466.1	137.2	-2.7	427.1	67.2	-2.8	39.0	70.0
11월	460.1	129.4	-4.8	430.1	68.1	-2.8	30.0	61.3
12월	477.4	125.7	-3.6	454.9	66.6	-3.9	22.6	59.1
2012년	2,753.9	732.7	-5.2	2,646.5	379.7	-6.5	107.4	352.9
1/4분기	1,348.5	354.0	-5.5	1,334.0	190.8	-4.9	14.5	163.2
2/4분기	1,405.4	378.7	-5.0	1,312.5	188.9	-8.0	92.9	189.8
상반기	2,753.9	732.7	-5.2	2,646.5	379.7	-6.5	107.4	352.9
1월	412.0	112.6	-12.2	434.2	63.4	-9.1	-22.2	49.2
2월	463.2	116.3	4.2	449.8	61.3	4.5	13.4	55.0
3월	473.4	125.0	-7.2	450.0	66.1	-8.5	23.4	59.0
4월	461.3	120.3	-9.4	440.6	63.1	-5.3	20.7	57.2
5월	470.5	129.4	-3.1	448.0	63.7	-8.4	22.6	65.7
6월	473.5	129.0	-2.5	423.9	62.1	-10.2	49.6	66.9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6,617	1.7	100.0	12,900	-2.5	73,265	-5.2	100.0
정보통신기기	136,884	-1.3	87.4	10,853	-5.7	62,126	-8.7	84.8
○전자부품	89,134	-2.4	56.9	7,613	2.1	43,396	-1.0	59.2
- 반도체	50,146	-1.1	32.0	4,352	3.4	24,375	-1.6	33.3
· 메모리반도체	23,533	-17.3	15.0	1,941	-8.8	9,984	-22.9	13.6
· 시스템반도체	19,959	24.0	12.7	1,846	21.5	11,109	31.5	15.2
- 평판디스플레이	31,380	-7.1	20.0	2,533	-4.0	14,886	-3.9	20.3
- 전자관	188	-32.7	0.1	3	-82.9	24	-79.2	0.0
- 수동부품	1,605	0.4	1.0	128	-0.2	751	-7.2	1.0
- 접속부품	4,868	15.9	3.1	489	26.0	2,779	23.5	3.8
- 기타전자부품	113	43.0	0.1	10	2.1	58	17.0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620	-1.1	4.9	645	3.0	3,678	5.8	5.0
- 컴퓨터	1,396	38.4	0.9	121	12.1	644	51.5	0.9
- 주변기기	5,069	-6.4	3.2	451	6.6	2,582	6.5	3.5
· HDD	519	-63.1	0.3	9	-77.7	52	-85.2	0.1
· 프린터	1,201	5.2	0.8	94	-11.0	577	-6.2	0.8
· 모니터	1,968	-14.7	1.3	124	-21.2	931	0.2	1.3
· 컴퓨터부품	956	-12.4	0.6	50	-29.4	338	-36.0	0.5
- SW 및 콘텐츠	199	4.3	0.1	24	-3.7	114	17.7	0.2
○통신 및 방송기기	27,809	0.1	17.8	1,810	-25.6	10,130	-31.1	13.8
- 통신기기	27,574	0.2	17.6	1,789	-25.9	10,008	-31.4	13.7
· 유선통신기기	1,089	-18.0	0.7	72	-17.1	467	-14.5	0.6
· 무선통신기기	26,486	1.1	16.9	1,717	-26.2	9,541	-32.0	13.0
휴대폰(부분품 포함)	25,048	0.6	16.0	1,579	-28.6	8,839	-34.4	12.1
- 방송국용 기기*	234	-5.3	0.1	22	4.9	122	1.9	0.2
○영상 및 음향기기	10,705	2.1	6.8	721	-18.2	4,430	-15.0	6.0
- 영상기기	8,305	3.5	5.3	525	-23.2	3,306	-18.8	4.5
· TV	7,804	4.7	5.0	488	-23.8	3,086	-19.1	4.2
LCD TV	851	31.2	0.5	71	-15.9	412	6.1	0.6
TV 부분품	6,625	2.6	4.2	398	-24.8	2,564	-21.1	3.5
- 음향기기	1,152	6.5	0.7	108	19.8	611	11.5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1,248	-9.5	0.8	88	-18.6	512	-13.6	0.7
· 셋탑박스	579	-24.0	0.4	31	-36.3	173	-38.2	0.2
○광자기매체	1,618	8.8	1.0	63	-43.0	493	-37.7	0.7
정보통신응용기기	19,733	29.9	12.6	2,048	19.0	11,139	19.9	15.2
○의료정밀광학기기	5,277	33.7	3.4	516	16.3	2,944	17.0	4.0
○가정용 기기	4,762	5.6	3.0	424	3.7	2,347	-7.7	3.2
· 냉장고	2,483	7.1	1.6	231	6.8	1,234	-9.3	1.7
· 세탁기	655	-4.4	0.4	43	-19.0	250	-26.4	0.3
· 에어컨	342	19.5	0.2	41	18.8	226	-7.0	0.3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83	8.6	0.3	52	23.2	234	-5.5	0.3
○전기 장비	9,211	46.6	5.9	1,055	27.8	5,614	40.8	7.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937	20.9	3.2	411	-11.6	2,341	-1.9	3.2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81,539	7.8	100.0	6,208	-10.2	37,975	-6.5	100.0
정보통신기기	69,673	7.0	85.4	5,167	-12.5	31,767	-8.9	83.7
○전자부품	46,592	5.0	57.1	3,693	-3.1	22,387	-1.8	59.0
- 반도체	32,483	4.3	39.8	2,537	-1.0	15,461	-3.1	40.7
· 메모리반도체	6,781	12.1	8.3	364	-24.0	2,602	-25.6	6.9
· 시스템반도체	19,081	3.5	23.4	1,648	7.3	9,741	6.8	25.7
- 평판디스플레이	6,691	3.0	8.2	528	-15.8	3,221	-2.2	8.5
- 전자관	80	-32.6	0.1	7	-1.0	44	4.6	0.1
- 수동부품	1,828	7.1	2.2	150	-1.2	904	1.7	2.4
- 접속부품	4,101	11.3	5.0	346	-0.1	2,061	6.9	5.4
- 기타전자부품	269	102.9	0.3	23	9.4	151	51.2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93	-0.6	11.4	834	1.0	4,704	-2.9	12.4
- 컴퓨터	3,241	5.3	4.0	280	-8.7	1,677	-1.5	4.4
- 주변기기	3,642	6.2	4.5	362	10.1	1,979	6.1	5.2
· HDD	773	0.4	0.9	69	-14.4	385	-7.3	1.0
· 프린터	1,230	15.4	1.5	98	-12.0	653	4.3	1.7
· 모니터	913	-9.0	1.1	90	29.3	533	12.8	1.4
· 컴퓨터부품	1,810	-19.5	2.2	144	0.7	749	-24.5	2.0
- SW 및 콘텐츠	599	1.2	0.7	48	1.2	298	4.2	0.8
○통신 및 방송기기	9,527	38.2	11.7	381	-57.7	2,942	-41.3	7.7
- 통신기기	9,374	38.8	11.5	371	-58.5	2,877	-41.9	7.6
· 유선통신기기	2,405	59.9	2.9	125	-61.3	805	-39.8	2.1
· 무선통신기기	6,970	32.7	8.5	247	-56.9	2,072	-42.7	5.5
휴대폰(부분품 포함)	5,281	23.4	6.5	166	-62.2	1,360	-53.6	3.6
- 방송국용 기기*	153	12.2	0.2	10	20.7	65	16.2	0.2
○영상 및 음향기기	2,726	-5.7	3.3	219	-8.3	1,342	-4.7	3.5
- 영상기기	836	-11.1	1.0	74	-5.5	413	-8.4	1.1
· TV	198	-0.2	0.2	12	-23.7	103	-3.0	0.3
LCD TV	54	208.8	0.1	4	-37.4	36	1.6	0.1
TV 부분품	136	-10.3	0.2	7	-14.9	52	-24.5	0.1
- 음향기기	1,403	2.6	1.7	106	-12.9	660	-5.7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487	-16.3	0.6	39	0.3	269	4.4	0.7
· 셋탑박스	124	15.1	0.2	16	192.4	66	-2.0	0.2
○광자기매체	1,535	-7.0	1.9	40	-69.2	392	-51.5	1.0
정보통신응용기기	11,866	13.3	14.6	1,041	3.4	6,208	8.2	16.3
○의료정밀광학기기	8,029	13.1	9.8	699	3.9	4,205	8.5	11.1
○가정용 기기	1,123	24.9	1.4	117	-1.5	655	18.4	1.7
· 냉장고	89	7.2	0.1	10	7.6	50	38.3	0.1
· 세탁기	57	-19.2	0.1	5	19.2	28	-5.1	0.1
· 에어컨	92	189.2	0.1	16	1.9	83	61.1	0.2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05	-23.1	0.1	6	-25.3	43	-16.1	0.1
○전기 장비	2,610	11.6	3.2	220	5.7	1,304	3.7	3.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318	13.0	1.6	110	3.9	609	-8.0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IT 전체	156,617	81,539	75,078	12,900	6,208	6,692	35,291
정보통신기기	136,884	69,673	67,211	10,853	5,167	5,686	30,359
○전자부품	89,134	46,592	42,542	7,613	3,693	3,920	21,009
- 반도체	50,146	32,483	17,663	4,352	2,537	1,815	8,915
· 메모리반도체	23,533	6,781	16,752	1,941	364	1,577	7,382
· 시스템반도체	19,959	19,081	878	1,846	1,648	197	1,368
- 평판디스플레이	31,380	6,691	24,690	2,533	528	2,005	11,664
- 전자관	188	80	108	3	7	-3	-21
- 수동부품	1,605	1,828	-223	128	150	-22	-153
- 접속부품	4,868	4,101	766	489	346	143	718
- 기타전자부품	113	269	-155	10	23	-13	-93
○컴퓨터 및 주변기기	7,620	9,293	-1,673	645	834	-188	-1,026
- 컴퓨터	1,396	3,241	-1,845	121	280	-159	-1,033
- 주변기기	5,069	3,642	1,427	451	362	88	603
· HDD	519	773	-254	9	69	-60	-333
· 프린터	1,201	1,230	-29	94	98	-5	-76
· 모니터	1,968	913	1,056	124	90	34	398
- 컴퓨터부품	956	1,810	-855	50	144	-93	-412
- SW 및 콘텐츠	199	599	-400	24	48	-24	-184
○통신 및 방송기기	27,809	9,527	18,282	1,810	381	1,429	7,188
- 통신기기	27,574	9,374	18,200	1,789	371	1,418	7,131
· 유선통신기기	1,089	2,405	-1,316	72	125	-53	-339
· 무선통신기기	26,486	6,970	19,516	1,717	247	1,470	7,469
휴대폰(부분품 포함)	25,048	5,281	19,767	1,579	166	1,413	7,478
- 방송국용 기기*	234	153	82	22	10	12	57
○영상 및 음향기기	10,705	2,726	7,979	721	219	502	3,087
- 영상기기	8,305	836	7,469	525	74	451	2,894
·TV	7,804	198	7,606	488	12	476	2,983
LCD TV	851	54	797	71	4	67	376
TV 부분품	6,625	136	6,489	398	7	391	2,512
- 음향기기	1,152	1,403	-251	108	106	2	-49
- 기타 영상음향기기	1,248	487	761	88	39	49	243
· 셋탑박스	579	124	455	31	16	14	107
○광자기매체	1,618	1,535	82	63	40	22	1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733	11,866	7,867	2,048	1,041	1,007	4,931
○의료정밀광학기기	5,277	8,029	-2,751	516	699	-183	-1,261
○가정용 기기	4,762	1,123	3,639	424	117	307	1,692
· 냉장고	2,483	89	2,394	231	10	220	1,184
· 세탁기	655	57	598	43	5	37	222
· 에어컨	342	92	250	41	16	25	143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83	105	378	52	6	47	191
○전기 장비	9,211	2,610	6,601	1,055	220	836	4,30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937	1,318	3,620	411	110	301	1,733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6,617	1.7	100.0	12,900	-2.5	73,265	-5.2	100.0
○ 아시아	106,454	7.3	68.0	9,406	5.2	51,615	0.9	70.4
- 중 국	56,159	3.4	35.9	5,141	7.0	27,959	4.1	38.2
- 홍콩	17,681	17.8	11.3	1,355	-2.6	8,496	2.3	11.6
- 일 본	8,364	6.5	5.3	917	12.5	3,963	-4.1	5.4
- ASEAN	15,173	9.9	9.7	1,427	20.9	7,865	10.5	10.7
· 싱가포르	5,805	2.9	3.7	421	-9.8	2,745	-3.8	3.7
· 인 니	864	-9.3	0.6	72	5.6	396	-14.1	0.5
· 말 련	2,046	-15.3	1.3	174	-1.8	937	-10.3	1.3
· 태 국	1,154	1.5	0.7	90	-19.7	518	-16.3	0.7
- 대 만	6,982	8.8	4.5	439	-25.1	2,568	-32.0	3.5
- 인 도	1,682	9.4	1.1	86	-33.3	577	-27.4	0.8
○ 북미	18,871	-3.7	12.0	1,173	-30.9	7,598	-22.1	10.4
- 미 국	17,720	-4.3	11.3	1,103	-29.5	7,209	-21.7	9.8
- 캐나다	933	6.1	0.6	46	-60.2	253	-45.1	0.3
○ 유럽	16,803	-20.5	10.7	1,146	-8.5	7,339	-16.0	10.0
- EU	14,485	-22.9	9.2	977	-6.3	6,279	-17.5	8.6
· 영 국	1,068	-28.6	0.7	68	-13.8	429	-28.4	0.6
· 독 일	2,460	-25.5	1.6	136	-27.2	951	-27.4	1.3
· 프랑스	701	-24.8	0.4	33	-33.7	365	-10.7	0.5
· 이탈리아	557	-26.2	0.4	30	-21.0	216	-41.0	0.3
- 러시아	1,337	-12.9	0.9	109	-6.9	643	2.7	0.9
○ 중동	4,393	13.3	2.8	359	-9.7	2,119	-12.2	2.9
- 사우디	599	39.5	0.4	46	-3.2	258	-28.3	0.4
- UAE	1,429	12.6	0.9	101	-15.6	610	-24.2	0.8
○ 중남미	8,435	0.2	5.4	692	-9.4	3,848	-12.5	5.3
- 브라질	2,826	16.3	1.8	323	5.1	1,608	9.6	2.2
- 멕시코	4,669	-10.0	3.0	274	-22.8	1,839	-24.8	2.5
- 칠 레	214	9.7	0.1	14	-51.9	79	-34.3	0.1
○ 대양주	1,011	-0.9	0.6	82	-23.8	491	-7.9	0.7
- 호 주	911	-3.5	0.6	71	-26.0	440	-8.9	0.6
○ 아프리카	634	-0.1	0.4	42	-35.3	254	-22.0	0.3
○ 브 릅 스	62,004	3.7	39.6	5,659	5.6	30,787	3.5	42.0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81,539	7.8	100.0	6,208	-10.2	37,975	-6.5	100.0
○ 아시아	65,039	6.9	79.8	4,989	-9.1	29,888	-8.4	78.7
- 중 국	29,268	11.2	35.9	1,976	-20.9	12,972	-13.0	34.2
- 홍콩	1,093	15.0	1.3	56	-40.7	435	-21.8	1.1
- 일 본	12,267	2.6	15.0	983	-6.0	5,914	0.4	15.6
- ASEAN	12,158	2.5	14.9	866	-12.9	5,251	-15.3	13.8
· 싱가포르	5,563	5.9	6.8	363	-18.5	2,379	-14.3	6.3
· 인 니	446	7.4	0.5	43	30.9	212	-9.4	0.6
· 말 련	2,734	1.7	3.4	200	-14.9	1,167	-16.7	3.1
· 태 국	1,514	-2.7	1.9	114	-16.0	586	-30.9	1.5
- 대 만	10,184	5.0	12.5	809	-5.2	4,985	-1.2	13.1
- 인 도	51	19.3	0.1	5	20.8	30	35.9	0.1
○ 북미	8,816	9.3	10.8	633	-8.0	4,520	13.0	11.9
- 미 국	8,428	10.0	10.3	589	-10.9	4,268	11.8	11.2
- 캐나다	205	-12.7	0.3	19	40.3	96	-6.6	0.3
○ 유럽	6,677	16.5	8.2	512	-22.5	3,063	-11.2	8.1
- EU	6,225	21.2	7.6	473	-23.7	2,799	-13.3	7.4
· 영 국	462	18.3	0.6	41	31.8	230	5.8	0.6
· 독 일	2,555	9.1	3.1	222	13.3	1,264	0.3	3.3
· 프랑스	649	-1.6	0.8	55	-11.3	299	-10.9	0.8
· 이탈리아	261	0.2	0.3	18	-23.5	122	-8.8	0.3
- 러시아	20	-77.8	0.0	1	-51.0	13	89.9	0.0
○ 중동	336	-22.7	0.4	26	18.1	214	22.7	0.6
- 사우디	1	-12.5	0.0	0	346.5	1	32.6	0.0
- UAE	15	242.5	0.0	2	72.6	12	115.4	0.0
○ 중남미	525	19.0	0.6	40	-4.2	227	-17.7	0.6
- 브라질	35	118.5	0.0	4	-10.3	10	-3.8	0.0
- 멕시코	483	15.0	0.6	36	-1.8	215	-17.6	0.6
- 칠 레	1	-57.9	0.0	0	-91.1	1	18.7	0.0
○ 대양주	129	20.4	0.2	6	-38.7	52	-22.2	0.1
- 호 주	117	22.0	0.1	4	-54.4	44	-25.8	0.1
○ 아프리카	13	-24.1	0.0	2	47.3	10	98.3	0.0
○ 브릭스	29,374	11.0	36.0	1,985	-20.8	13,025	-12.8	34.3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56,617	81,539	75,078	12,900	6,208	6,692	35,291
○ 아시아	106,454	65,039	41,415	9,406	4,989	4,417	21,727
- 중 국	56,159	29,268	26,891	5,141	1,976	3,165	14,987
- 홍콩	17,681	1,093	16,588	1,355	56	1,299	8,061
- 일 본	8,364	12,267	-3,903	917	983	-66	-1,950
- ASEAN	15,173	12,158	3,016	1,427	866	561	2,614
· 싱가포르	5,805	5,563	242	421	363	58	366
· 인 니	864	446	418	72	43	29	185
· 말 련	2,046	2,734	-688	174	200	-26	-230
· 태 국	1,154	1,514	-360	90	114	-23	-67
- 대 만	6,982	10,184	-3,202	439	809	-370	-2,418
- 인 도	1,682	51	1,631	86	5	81	547
○ 북미	18,871	8,816	10,055	1,173	633	540	3,079
- 미 국	17,720	8,428	9,293	1,103	589	514	2,941
- 캐나다	933	205	728	46	19	27	157
○ 유럽	16,803	6,677	10,126	1,146	512	634	4,276
- EU	14,485	6,225	8,260	977	473	504	3,479
· 영 국	1,068	462	606	68	41	26	199
· 독 일	2,460	2,555	-95	136	222	-86	-314
· 프랑스	701	649	51	33	55	-22	66
· 이탈리아	557	261	296	30	18	12	95
- 러시아	1,337	20	1,318	109	1	108	630
○ 중동	4,393	336	4,058	359	26	333	1,904
- 사우디	599	1	598	46	0	46	258
- UAE	1,429	15	1,414	101	2	98	598
○ 중남미	8,435	525	7,910	692	40	652	3,622
- 브라질	2,826	35	2,791	323	4	319	1,598
- 멕시코	4,669	483	4,186	274	36	238	1,625
- 칠 레	214	1	213	14	0	14	78
○ 대양주	1,011	129	882	82	6	77	439
- 호 주	911	117	795	71	4	68	396
○ 아프리카	634	13	621	42	2	40	244
○ 브릭스	62,004	29,374	32,630	5,659	1,985	3,674	17,762

(참고) 6월 IT수출입 동향

□ 6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5% 감소한 129.0억불, 수입은 10.2% 감소한 62.1억불, IT수지는 전산업 흑자(49.6억불)를 상회하는 66.9억불 흑자를 기록

○ 주요 품목 중 휴대폰(15.8억불, △28.6%), 디스플레이패널(25.3억불, △4.0%) 수출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43.5억불, 3.4%↑)는 증가 기록

○ 냉장고, 에어컨 등 계절상품 중심으로 가정용기기(4.2억불, 3.7%↑)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태블릿PC 등, 6.5억불, 3.0%↑) 수출이 증가세 지속

○ 국가 별로는 미국(11.0억불, △29.5%), EU(9.8억불, △6.3%), 대양주(0.8억불, △23.8%) 감소한 반면, 일본(9.2억불, 12.5%↑), 중국(홍콩포함, 65.0억불, 4.8%↑) 등 아시아 권 수출은 증가

□ IT수입은 전자부품(36.9억불, △3.1%),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억불, 9.4%)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동기대비)					
구 분		2012년		2011년	
		6월 ^P	상반기 ^P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473.5 (1.3)	2,753.9 (0.7)	467.4 (11.1)	2,735.9 (23.6)
	IT 산업	129.0 (△2.5)	732.7 (△5.2)	132.3 (1.5)	773.2 (6.2)
수입	전체 산업	423.9 (△5.4)	2,646.5 (2.5)	448.2 (27.1)	2,582.5 (26.7)
	IT 산업	62.1 (△10.2)	379.7 (△6.5)	69.1 (10.4)	406.0 (15.1)
무역수지	전체 산업	49.6	107.4	19.1	153.4
	IT 산업	66.9	352.9	63.1	367.2

※ 자료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잠정치

상반기 자동차 산업 동향
- 미국, EU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내수는 다소 둔화 -

□ 지식경제부는 금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2,380,782대), 수출(1,700,364대)은 전년동기비 각각 3.4%, 10.4% 증가하였으며, 내수(757,353대)는 전년동기비 4.2% 감소하였다고 밝힘.

< 자동차산업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12.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12.1-6월	전년동기비
생 산	421,661	8.6	-3.6	2,380,782	3.4
내 수	134,612	1.2	-2.3	757,353	-4.2
국산차	124,034	2.2	-3.7	695,114	-6.0
수입차	10,578	-9.7	18.0	62,239	20.5
수 출	300,114	11.2	-1.4	1,700,364	10.4

* 6월 SAAR(계절조정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은 1,567,771대

□ (수출)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10.4%가 증가한 1,700,364대를 기록하였음

① 미국, EU로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은 다소 감소

<'12.1-5월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분	수출 대수		증감률(%)
	'11.1-5월	'12.1-5월	
미국	232,568	299,937	29.0
EU	156,541	176,449	12.7
아태평양	121,438	152,565	7.6
중남미	201,693	195,383	-3.1
동유럽	118,512	122,857	3.7
기타	385,227	453,059	17.6
합계	1,236,320	1,400,250	13.3

- 미국으로의 수출증가는 미국 시장 회복세*에 기인하였으며, EU 지역은 자동차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FTA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과 직영 판매체제 구축 및 각종 마케팅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

* '12.1-5월 미국 자동차 시장 증가율: 13.4%

** EU 승용차 시장 증감률(%) : '08(-5.2), '09(-1.5), '10(-5.0), '11(-1.4), '12.1-5월(-7.3)

- 중남미는 최대 시장인 브라질의 수요 감소*로 인해 지역별로 유일하게 감소(* '11.12월부터 수입차에 대해 공업세 30%p 인상 조치)

②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으로 평균 수출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12.1-6월:250억불, 전년동기비 15.7%)

* 평균 수출단가(달러) : 13,331/대('11.1-5월) → 13,603/대('12.1-5월)

< '12 상반기 발표된 국산차에 대한 해외 품질평가 주요 실적 >

- ◆ (북미 자동차 전문기자) 아반떼, '2012 북미 올해의 차' 선정,
- ◆ (중국 CCTV) 알페온 어시스트, '2011 중국 올해의 차' 친환경차부문 1위
- ◆ (미국 JD파워) 현대차, '2012년 브랜드 재구매율 조사' 1위
- ◆ (영국 소비자단체) 기아차,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 선정

③ 상대적으로 가격과 연비 강점이 있는 경·소형과 SUV 차종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차종의 지속적인 판매 증대와 차종 확대

구분(대,%)	차종	승용차 수출	전략차종 수출	비중
'11 상반기	10종	1,451,522	431,994	29.8
'12 상반기	13종	1,613,914	722,449	44.8

* 전략차종 : ('11.上,) (경형) 모닝, (소형) 아반떼, 엑센트, 아베오, (SUV) 캡티바, 코란도C, (중형) 쏘나타, K5, SM5, (CDV) 올란도, ('12.上) 既 차종 + (소형) 프라이드(UB), (SUV) 코란도스포츠, (중형) i40

□ (내수) 상반기 내수시장은 신차효과 약화, 고유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비 4.2% 감소하였음

* ①유가('11.上→'12.上) : 휘발유 1,903.2원/ℓ → 2,005.8원/ℓ (5.4%↑), 경유 1,721.9원/ℓ → 1,828.4원/ℓ (6.2%↑), ②가계대출('11.1/4→'12.1/4) : 802.5조원 → 857.8조원 (6.9%↑)

① 지난해에는 同 기간 그랜저, 모닝 등 인기있는 차종을 중심으로 7개(반기기준 최다) 신차가 출시된 반면 올해에는 3개로 축소

< 전년동기비 상반기 출시 신차 판매 점유율(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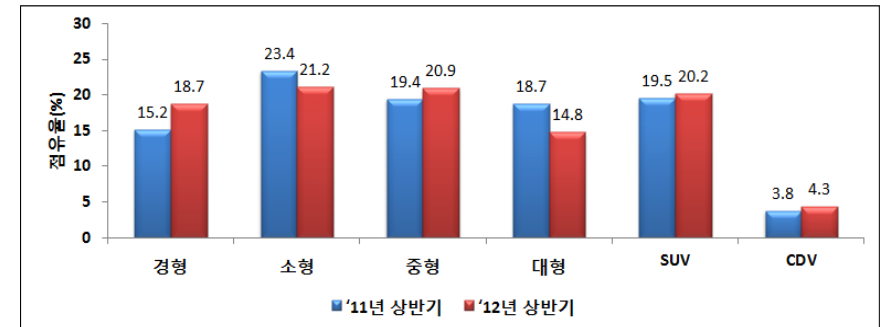
구분	국산차(승용) 판매	신차 판매	비중	차종
'11년 상반기	607,794	133,679	22.0	7종
'12년 상반기	574,530	29,492	5.1	3종

* '11.上 출시신차 : 그랜저HG, 벨로스터, 모닝TA, 올란도, 아베오, 캡티바, 코란도C

* '12.上 출시신차 : 싼타페(DM), K9, 코란도스포츠

③ 차급별로 경형, 중형, SUV, CDV 차량의 비중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소형, 대형 차량은 감소세를 나타냄

< 국내 승용차 차급별 점유율 현황 >



* (경형) 연비강점으로 증가, (소형) 고유가로 경형으로 수요 이전, (중형) 쏘나타, K5 하이브리드 출시로 비중 상승, (대형) 지난해 그랜저HG 신차효과가 약화되면서 감소, (SUV) 싼타페 신형 신차효과로 비중 상승, (CDV) 올란도 신차효과가 유지되어 비중 상승

- 특히, 고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형,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크게 늘어남

< '12년 상반기 고연비 차량 판매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구분	판매 대수	증감률
경형	107,200	16.4
하이브리드	12,491	154.2

④ 다양한 차종과 모델을 앞세운 수입차가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한 62,239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

* 내수판매 중 수입차 점유율 : '11년 상반기 6.5% → '12년 상반기 8.2%

< 국내 수입차 브랜드 및 모델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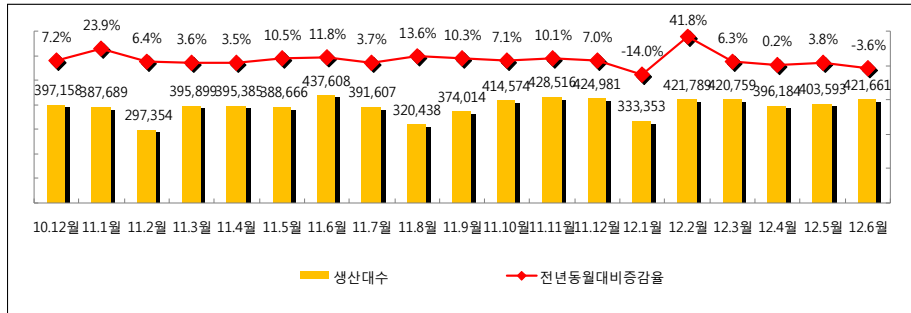
구분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브랜드	23개	24개
모델수	347개	439개

- 특히, 판매대수 중 큰 비중('12상반기, 48%)을 차지하는 2,000cc미만의 차급에 대한 브랜드(12개→16개) 및 모델수(84개→127개)가 크게 증가함

참고 1 6월 자동차 생산 동향

□ 6월 생산은 내수 감소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3.6% 감소한 421,661대 기록

< '10.12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추이 >



- 현대(179,900대)와 기아(146,777대)는 신차효과와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전년동월비 4.4%, 1.8% 각각 증가
- 한국지엠(72,701대)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13.3% 감소하였으며, 르노삼성(10,790대)은 내수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57.1%, 쌍용(10,319대)은 전반적인 수출부진으로 4.4% 각각 감소

< '12.6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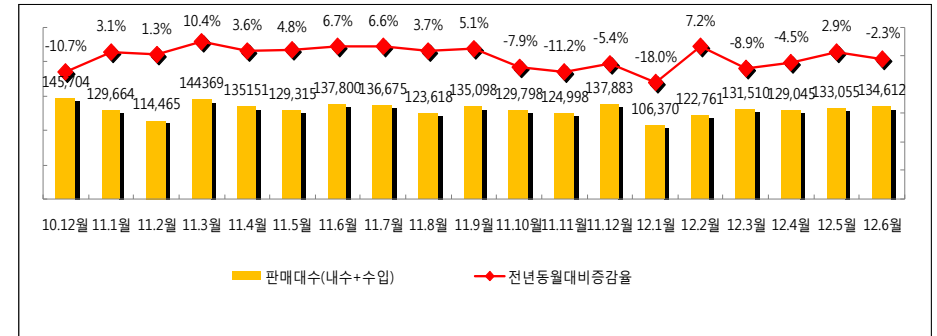
구 분	'12.6월		'12.1-6월	증 감 률		
	점유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합 계	421,661	100.0	2,380,782	8.6	-3.6	3.4
현 대	179,900	42.6	995,729	13.8	4.4	9.7
기 아	146,777	34.8	846,615	5.1	1.8	7.8
한국지엠	72,701	17.2	393,438	7.5	-13.3	-5.2
르노삼성	10,790	2.6	83,744	-13.0	-57.1	-36.0
쌍 용	10,319	2.5	56,920	5.0	-4.4	0.0
기 타	1,174	0.3	4,336	58.6	-13.9	-30.3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2 6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

□ 6월 내수판매는 국산차 인기모델의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불안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한 134,612대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비는 소폭 증가

< '10.12월 이후 월별 자동차 내수판매(국산+수입) 추이 >



- (국산차 판매) 6월 국산차 판매는 신형 쏘타페, K9의 신차효과 등으로 금년 들어 월별 최고 실적인 124,034대를 기록했지만 유럽 경기 불안과 가계 부채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3.7% 감소
- 현대(59,711대)와 기아(42,111대)는 신형 쏘타페와 K9의 신차효과, 한국지엠(13,540대)은 스파크, 말리부 등의 꾸준한 시장수요 등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함
- 쌍용(4,033대)은 1월 출시한 코란도스포츠와 연비가 좋아진 코란도 C 판매호조로 45.2% 증가한 반면, 르노삼성(4,008대)은 주요 모델의 경쟁심화 등으로 57.5% 감소
- (수입차 판매)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서, 특히 저배기량(2천cc미만)차종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비 18.0%가 증가한 10,578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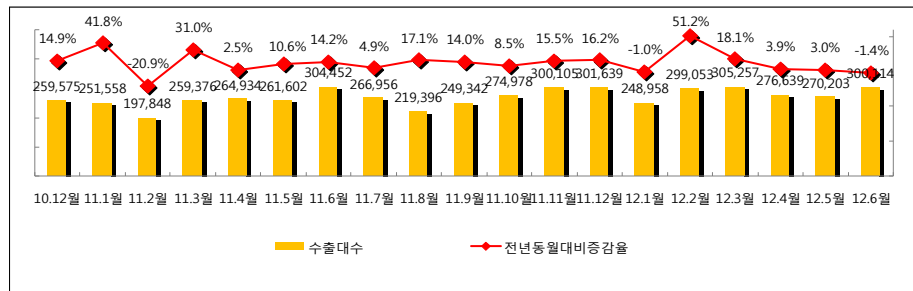
* 배기량 별 점유율(%) : 2천cc미만(47.9), 2~3천cc(33.6), 3~4천cc(15.4), 4천cc이상(3.1)

* 수입차 점유율(%) : 7.5('12.2월)→8.1('12.3월)→8.3('12.4월)→8.8('12.5월)→7.9('12.6월)

참고 3 6월 자동차 수출 동향

- 6월 수출은 FTA 발효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지난해 월간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1.4% 감소한 300,114대 기록

< '10. 12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추이 >



- 현대(117,222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상황에 대응한 수출확대 노력 등으로 2.4% 증가, 기아(102,646대)는 프라이드, 스포티지R, 포르테 등 주력 차종의 해외수요 확대 등으로 2.6% 증가
- 한국지엠(65,184대)과 르노삼성(8,504대)은 유럽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2.9%, 42.5% 각각 감소하였으며, 쌍용(6,005대)은 코란도스포츠 내수물량 선대응 및 브라질 공업세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2% 감소

< '12. 6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12. 6월	점유율	'12. 1- 6월	증 감 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합 계	300,114	100.0	1,700,364	11.2	-1.4	10.4
현 대	117,222	39.1	661,578	12.7	2.4	17.4
기 아	102,646	34.2	610,473	4.2	2.6	14.5
한국지엠	65,184	21.7	338,781	23.2	-2.9	0.8
르노삼성	8,504	2.8	52,414	10.3	-42.5	-26.1
쌍 용	6,005	2.0	34,764	-0.9	-20.2	-0.6
기 타	553	0.2	2,354	-6.6	40.7	32.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4 6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 현황

< '12. 6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현황 (단위 : 대, %, 소수 두자리 반올림) >

구 분	'12.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12.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134,612	1.2	-2.3	100.0	757,353	-4.2
국 산 차	124,034	2.2	-3.7	92.1	695,114	-6.0
현 대	59,711	2.9	-0.1	44.4	328,113	-4.7
기 아	42,111	3.3	-0.2	31.2	239,138	-3.7
한국지엠	13,540	4.1	-1.6	10.1	71,506	3.5
르노삼성	4,008	-14.1	-57.5	3.0	30,648	-41.7
쌍 용	4,033	-1.7	45.2	3.0	21,841	7.9
수 입 차	10,578	-9.7	18.0	7.9	62,239	20.5
BMW	2,136	-28.4	2.5	1.6	14,512	19.6
벤 츠	1,878	0.5	7.7	1.4	9,807	6.3
아우디	1,385	8.2	60.3	1.0	7,297	50.2
폭스바겐	1,276	-13.0	2.6	1.0	7,754	17.6
토요타	753	-12.4	104.1	0.6	5,328	115.0
포 드	465	2.0	44.9	0.3	2,276	18.3
미 니	422	-19.3	58.6	0.3	2,580	11.8
크라이슬러	408	7.7	35.1	0.3	2,076	31.6
혼 다	306	5.5	41.0	0.2	1,947	12.9
렉서스	276	-33.2	-22.7	0.2	2,003	0.9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고 5 **6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 '12. 6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대, %, 소수 두자리 반올림) >

순위	브랜드	'12. 6월	전월비	전년동기비	비중	'12.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134,612	1.2	-2.3	100.0	757,353	-4.2
1	현대차	59,711	2.9	-0.1	44.4	328,113	-4.7
2	기아차	42,111	3.3	-0.2	31.3	239,138	-3.7
3	쉐보레	13,540	4.1	-1.6	10.1	71,506	3.5
4	쌍용차	4,033	-1.7	45.2	3.0	21,841	7.9
5	르노삼성	4,008	-14.1	-57.5	3.0	30,648	-41.7
6	BMW	2,136	-28.4	2.5	1.6	14,512	19.6
7	메르세데스-벤츠	1,878	0.5	7.7	1.4	9,807	6.3
8	아우디	1,385	8.2	60.3	1.0	7,297	50.2
9	폭스바겐	1,276	-13.0	2.6	0.9	7,754	17.6
10	토요타	753	-12.4	104.1	0.6	5,328	115.0
11	타타대우	484	-20.1	-36.4	0.4	2,827	-22.7
12	포드	465	2.0	44.9	0.3	2,276	18.3
13	미니	422	-19.3	58.6	0.3	2,580	11.8
14	크라이슬러	408	7.7	35.1	0.3	2,076	31.6
15	혼다	306	5.5	41.0	0.2	1,947	12.9
16	렉서스	276	-33.2	-22.7	0.2	2,003	0.9
17	푸조	255	14.9	-19.6	0.2	1,264	-7.7
18	랜드로버	181	30.2	52.1	0.1	817	13.9
19	닛산	178	-13.6	61.8	0.1	1,169	41.4
20	볼보	170	4.3	3.0	0.1	810	2.3
21	대우버스	147	-12.0	3.5	0.1	1,041	24.7
22	포르쉐	117	-17.6	41.0	0.1	708	16.4
23	재규어	109	34.6	28.2	0.1	606	29.5
24	인피니티	94	3.3	-54.6	0.1	575	-54.5
25	캐딜락	80	95.1	12.7	0.1	290	-29.3
26	스바루	40	0.0	33.3	0.03	256	-19.2
27	시트로엥	30	-18.9	-	0.02	73	-
28	미쓰비시	12	20.0	-	0.01	22	-35.3
29	벤틀리	5	-61.5	-37.5	0.004	59	78.8
30	롤스로이스	2	0.0	-33.3	0.001	10	-33.3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우리산업의 장래 먹거리, 미래선도기술개발 본격 착수

-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분야 사업단 선정 -

- 총 77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동반성장 R&D 생태계 구축 -

-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아바코, 피엑스디 등
-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건설, Khan 등
- ◇ 인쇄전자용 초정밀 생산시스템: 삼성전자, 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하이셀 등

□ 지식경제부와 R&D전략기획단이 지원하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
 자로 LG디스플레이·아바코·피엑스디 컨소시엄(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GS건설·Khan 컨소시엄(심해자원용 해양플랜트),
 삼성전자·주성엔지니어링·LG디스플레이·하이셀 컨소시엄(인쇄전자)이 각각
 선정되었음.

○ 이들 3개 사업단에는 77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중 67.5%가 이들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대기
 업은 32.5%)되어 대형 미래기술 분야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구축함.

* 유형별 참여기관(총 154개. 세부과제 중복 참여 포함)
 - 중소·중견기업 77개, 대기업 31개, 연구기관 15개, 대학 31개 등

□ 지식경제부와 R&D전략기획단은 7.11(수) 오전 10:30, 교육문화회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R&D전략기획단장, 3개 사업단 소속
 기업 및 기관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 및 협약식을 가졌음.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
 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선도사업
 (Future Flagship Program)」으로 추진

□ 미래산업선도기술은 R&D전략기획단이 각계 전문가 700여명의 의견을 모아 발굴한 과제들로, 6년 내외의 개발기간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하면 매출 260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대효과('25년) :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

□ 이날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단이 출범함으로써 미래산업선도기술은 향후 6년여의 기술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며, 각 사업단에는 사업기간동안 550~8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첨부1] 협약식 행사 개요

[첨부2] 선정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현황

【참 고】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작성 상세 설명자료

(첨부 1) 행사 개요

□ 추진배경 : 우리부의 대표적인 대형 R&D사업인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중 3개 과제의 협약 및 사업단 출범행사

* R&D 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이 '10.3월 이후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대형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 중

* 금번 협약과제(3개)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심해자원용 해양플랜트, 인쇄 전자용 생산시스템

□ 일시, 장소 : 7. 11(수) 10:30 ~ 11:30, 교육문화회관(가야금 홀)

□ 참석자(약 200여명)

○ 지경부장관

○ R&D 전략기획단 : 황창규 단장, 정보통신·주력 MD

○ 과제 참여 기업·기관 대표 및 연구 참여자

- (주)LG디스플레이 여상덕 부사장, (주)아바코 성득기 대표이사

- (주)현대중공업 이충동 부사장, Khan(주) 현장환 대표이사

- (주)삼성전자 유인경 부사장, 하이쎈(주) 윤종선 대표이사

□ 주요 행사내용

○ 지경부장관 격려사

○ 사업내용 및 사업단 소개

○ 협약서 서명, 출범 퍼포먼스

○ 기념 촬영 등

(첨부 2) 선정 컨소시엄 참여기업 · 기관 현황

①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LG디스플레이(주)	
1세부	LG디스플레이(주)	LG화학, LG하우시스, 코오롱, LG전자, 동진썬미켈, 코텍, 케이알이엠에스, 디앤케이, 케이엔더블유, 경희대학교(2), 한국과학기술원, 호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세부	(주)아바코	주성엔지니어링, 고려반도체시스템, 나래나노텍, 디오브이, 지엔티시스템즈
3세부	(주)피엑스디	(주)서버사이드, 전자부품연구원

②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현대중공업(주)	
1세부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종합기술원, GS건설, UIT, 태성, Khan, 지노스, HSS, DSR, 미래산업기계, 한국에너지재료,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울산대학교, KAIST, 한국선급
2세부	GS건설(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종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애플, DMC, 강림중공업, 동화엔텍, 데카텍, 마팩플랜트건설, 선보공업, 에이엠티퍼시픽, 전진엔텍, 주인정보시스템, Khan, 코멕이엔씨, 퍼스텍
3세부	Khan(주)	현대중공업, DSME, KIGAM, ABS, 성일, UIT, PSE, KAIST, POSCO, LS전선, RIST, 스틸플라워, 일진제강, 세진중공업, 성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벨, DMC, 대창메탈, 에이스브이
4세부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KT서브마린, Khan, 아쿠아드론, 썬컴정보, 에드벡트, 한국해양연구원, KAIST, 한양대, GLND

③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삼성전자(주)	
1세부	주성 엔지니어링(주)	디바이스이엔지, ㈜지엘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영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제주대학교, KAIST
2세부	삼성전자(주)	삼성정밀화학, 동우화인켈, 나노신소재, 에스에프에이, 케이씨텍, 유니젯, 파루, 한국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인쇄전자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3세부	LG 디스플레이(주)	나래나노텍, LG전자, LIG ADP, HPK, KAIST, 동진썬미켈, 아이컴포넌트, KNW,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4세부	하이셀(주)	(주)에스아이티, (주)에프피, 성안기계(주), (주)미루시스템즈, (주)피에스엠, (주)피엠씨, 건국대학교(3), 국민대학교, 안동대학교

【참고】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작성 상세 설명자료

SMARTOPIA KOREA! beyond Greater, towards Greatest...

- 3대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단 공식 출범 -
(지경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공동 주관 협약식 개최)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사업단 출범

- 총 154개 기관 (대기업 31, 중소기업 77, 대학 31, 연구소 15 등) 동시 참여
- 2025년 기대 효과 :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올해 예상 총수출의 30% 수준),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대면적(60인치 이상) UD*급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부품 및 응용제품 공히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 해양플랜트

- 심해 자원의 채굴, 분리·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이 가능한 친환경·지능형 해양 플랜트 Total Solution 국산화로 2020년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선도 국가 도약 목표

※ 인쇄전자

-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를 저비용으로 연속 대량 생산하는 인쇄전자 산업 구성 요소인 소자/장비(공정)/소재 기술의 Total Solution 확보로 2020년 인쇄전자 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산학연 망라한 대한민국의 R&D 역량을 총결집,**
국가 R&D를 통해 “대한민국형 동반과 균형”의 Best Practice 구현
 -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산·학·연 각 R&D 기관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
- **과거와는 차별화된 “동반과 균형” 전략**
 - “대한민국형 글로벌 표준”의 가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정부가 초기 시장 리스크를 분담
 - 대기업 납품 위주 구조를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통로를
 찾아 주는 역할을 정부와 대기업이 담당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01년 43%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30% 초반 대까지 하락)
- **사업단 전략 방향**
 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 생태계 완성 추구
 - 중소기업의 사업단 참여 비율 50%
 ② 국가 R&D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계 일자리 확충에 매진
 - 국가 R&D 참여시 신규인력 채용 의무화,
 고용 촉진형 인건비 지원 제도 적용
 국가 R&D 전담 연구원 지원 확대,
 대기업 연구 인력의 중소·중견 기업 파견제 등 제도화 추진
- **국가 R&D 프로세스 혁신**
 ① 기획·원천 개발단계 정부 주도, 응용 개발단계는 기업 주도
 - 정부 부담 : 기획 100%, 원천 70%, 응용 30%
 ② 철저한 사업계획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경쟁 시스템 도입
 - 각 사업별 2배수 경쟁 기획 추진
 ③ 지적재산권은 개발자 소유 원칙

- 목 차 -

1. 협약식 개요
2. 추진 경과
3. 신시장창출형 사업 개요
 - 1)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2)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3)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4. R&D 프로세스 혁신
5. 사업단 출범의 의의
6. 사업단 구성
7. 사업단 전략 방향
8. 결 론

1. 협약식 개요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은 7월 1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R&D 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중소·중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3개 사업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수립한 “국가 R&D 메타플랜”인 미래산업선도기술은 3~5년 내 사업화를 목표로 한 “조기성과창출형”과 5~7년 후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신시장 창출형” 등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조기성과창출형”의 경우, 작년 7월 5개 사업단*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과 협약을 마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 註) 천연물 신약,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기반의 그린수송 시스템,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 K-MEG(Korea-Micro Energy Grid))

이 날 협약식은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추진 경과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자동차, 선박, 반도체, 휴대폰, TV 등 주력산업이 골고루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나, 5~10년 뒤에도 이 산업들이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주력 산업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이 기반 위에 우리 실정 및 문화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조기에 사업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필수 과제다.

즉, 대한민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또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early에 이를 “대한민국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R&D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산업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MD (Managing Director)가 주축이 되어
 - ①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문화 적합성 및 역량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신성장 동력 발굴
 - ② 발굴된 신성장 동력의 글로벌 적합성 검증
 - ③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기술 강국의 R&D 사례 벤치마킹
 - ④ 세계 석학으로 구성된 18명 해외자문단으로부터의 체계적인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1년 3월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을 선정한 후,

‘11.12월~’12.4월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쟁 기획을 실시하였으며,

‘12.6월 사업자 선정 평가를 완료하여 오늘 최종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3. 신시장창출형 사업 개요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대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로 2025년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올해 예상 총 수출의 30% 수준),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이 기대된다.

1)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사업 개요

- 대면적(60인치 이상) UD*급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가 대화하듯 입·출력 가능한 시스템 개발

* UD(Ultra Definition) : 3840x2180의 초고해상도로 풀 HD (Full High Definition) 1940x1080 해상도의 4배



□ 추진 배경

- TFT-LCD 이후 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산업은 실감화, 경량화, 박형화, 다기능화 등의 추진으로 제 2의 도약 필요
- 실감 화질, 사용 편의성 등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부품 및 응용제품 공히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 한국이 강한 IT 인프라와 연계 개발 가능

□ 기대 효과

- '25년 매출 82조원, 수출 63.2조원, 고용 8.4만명, 설비투자 23.6조원 유발

2)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사업 개요

- 3,000m급 친환경 심해 해양플랜트의 해저/해상 통합 엔지니어링, 핵심 기자재, 설치 기술 개발
- 심해 자원의 채굴, 분리·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이 가능한 친환경·지능형 해양 플랜트 Total Solution 국산화로 2020년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선도 국가 도약 목표



□ 추진 배경

○ 對중국 차별화

- 중국의 추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신개념 대용량·고효율·친환경 기술의 조기 개발로 조선 및 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 시장 환경변화 대응

- 과거 해상/해저 분리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및 토털 솔루션 확보를 위한 R&D 투자 필요

○ 조선, 플랜트,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연관 산업 경쟁력 우수

□ 기대 효과

- '25년 매출 102조원, 수출 100조원, 고용 11.5만명, 설비투자 24.6조원 유발

3)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 사업 개요

-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를 유연기판 위에 인쇄하여 연속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 (박막태양전지, 디스플레이, RFID 등 생산)
- 인쇄전자 소자/장비(공정)/소재 기술의 Total Solution 확보로 2020년 인쇄전자 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추진 배경

-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 및 서비스까지 연계된 Total Solution 개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 디스플레이, IT, 태양전지 등 대규모 수요 산업 보유
- 우리나라는 롤 기반 프린팅 및 코팅 등 핵심 기술과 우수 장비기술을 旣 보유하고 있어 패터닝 기술 등을 추가 획득할 경우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가능

□ 기대 효과

- '25년 매출 77조원, 수출 50.7조원, 고용 6.4만명, 설비투자 24.6조원 유발

4. R&D 프로세스 혁신

□ 금번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은 다음 원칙 下에 진행되었다.

- ① 민관 합동 대형 R&BD의 성격을 띠고 있다. R&D 프로세스 中 기획·원천 개발 단계는 정부가, 응용 개발 단계는 기업이 주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 부담 : 기획 100%, 원천 70%, 응용 30%)
- ② 철저한 사업계획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각 과제별 2배수 경쟁 기획 추진).
- ③ 기획 → 개발 → 사업화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해당 산업을 총괄하는 R&D 전략기획단 소속 MD(Managing Director)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 ④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및 출연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5. 사업단 출범의 의의

□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30% 초반 대까지 하락 (독일 80%, 대만 56%)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와는 차별화된

“동반과 균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즉,

- ① “대한민국發 글로벌 표준”의 가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정부가 초기 시장 리스크를 분담하며,
- ② 대기업 납품 위주 구조를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통로를
찾아 주는 역할을 정부와 대기업이 담당토록 하는 R&D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6. 사업단 구성

- 3개 사업단 전체 기준, 총 154개 기관 (대기업 31, 중소·중견 기업 77,
대학 31, 연구소 15 등)이 동시에 참여, 산·학·연을 망라한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총결집된 명실상부한 “국가 R&D 메타 플랜”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을 엄정하게 선별한
후 이들에 한해 집중 지원하는 “R&D 혁신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그 결과, 성장 잠재력과 R&D 의지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단
참여 비율과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 할애 비율이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중 67.5%가 중소·중견
기업에게 지원된다.

즉,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효과적

으로 결합하여 이들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금번 사업단 출범의 궁극적인 목표다.

7. 사업단 전략 방향

- 금번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단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
화”, 그리고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전략 방향을 가진다.
- 첫째, 3개 사업단 공히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 생태계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 대기업 : 대면적 고해상도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소재
및 UI(User Interface) 기술 등 개발

< 해양 플랜트 >

- 대기업 : 지능형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및 Floating Platform Topside 친환경 시스템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Subsea Production & Processing 시스템 기술
및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 기술 개발

< 인쇄 전자 >

- 대기업 : OLED조명, Digital Signage, Active Wallpaper,
FPCB (연성회로기판)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Roll-to-Roll 인쇄 기술 이용한 FPCB용 연속 생산
시스템 개발

□ 둘째, 다음 내용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가 R&D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계 일자리 확충에 매진한다.

- 대기업 : 국가 R&D 참여시 신규인력 채용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 교육훈련 실시 등
- 중소기업 : 고용 촉진형 인건비 지원 제도 적용
- 출연연 : 총인건비 한도내 인원 자율 운영 (T/O 관리 폐지)
- 대학 : 국가 R&D 전담 연구원 지원 확대
- 대기업 연구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제 도입
- 대기업 연구원(인건비는 대기업 현물 부담)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연구 체제를 강화하여 “동반성장 R&D 생태계” 조성

8. 결 론

□ “부지런히 선진국을 쫓는 나라” 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문화, 스포츠, 주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 중이다.

우리의 과학 기술도 지금의 이 여세를 몰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국 과학 기술이 그 열쇠를 쥐고 있으니만큼, 어떻게 하면 온 나라를 과학하는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최상의 과학 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것인지 등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동반과 균형”이란 대기업의 경쟁력을 희생 혹은 위축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동일한 사업에 국가 R&D의 주체인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소, 대학을 함께 참여시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이끌어 내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과 연구계의 경쟁력 확보 역시 동시에 실현시키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 금번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 협약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건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프트웨어 계의 "슈퍼스타 K"

- SW의 장인(匠人), 마에스트로 3기 발대식 개최 -

- 1~2기 과정을 통해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 '스피릿', 노인복지 분야 업무환경 개선 SW '케어노트' 개발자 등 많은 인재 배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SW 분야의 혁신적인 재능을 갖춘 100명의 인재들을 제3기 "SW 마에스트로(Maestro)" 연수생으로 선발하고, 7.11(수)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SW 마에스트로"는 창의적인 SW 인재를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 고수(高手)인 멘토가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SW를 대표할 스타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 총 3단계의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며, 연수생들 사이에서 'SW 계의 슈퍼스타 K'로 불리고 있다.
- 그간 "SW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작년 말 첫 선을 보인 이후 다운로드 2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 '스피릿'의 개발자 전우성(17세),
- 전국의 노인복지 시설 4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 업무환경 개선 SW인 '케어노트'의 개발자 이동훈(23세) 등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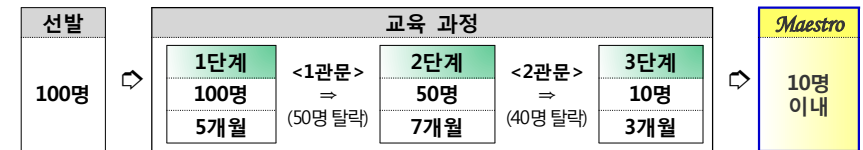


- 제3기 연수생도 정보올림피아드 등 각종 SW경진대회 수상자뿐 아니라, 벤처창업 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창업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인재들이 많아, 1~2기 선배들처럼 SW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제3기 선발개요 : 연수생 모집공고('12.4.16) 및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자 총 448명 중 100명의 연수생을 최종 선발(경쟁률 4.5:1)
- (성별) 남성 95명, 여성 5명, (연령) 평균 22.3세로 2기와 같은 수준 (학력) 대학생 82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원생 6명, (지역) 수도권 80명, 수도권외 지역 20명
- 아울러, 금번 3기 과정부터는 멘토단도 대폭 개편하여 올해 5월 멘토 17명을 새롭게 위촉하였으며, 특히 특허·법률·회계·경영 전문 가도 초빙하여 더욱 풍성한 멘토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멘토단 : 국내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SW개발자(39명) 및 특허·법률·회계·경영 전문가(4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
- 연수생들은 1년 3개월 동안 서바이벌 방식의 3단계 심화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며, 10명 이내의 연수생이 "국가 SW 마에스트로"로 최종 선정될 것이다.

< SW Maestro 과정 체계 >



- * 과정개요 : 100명의 연수생을 모집, 15개월간 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3단계 경쟁시스템을 통해 10명이내의 "SW Maestro 인증자" 배출
- * 지원혜택 : 연수생에게는 월 100~200만원의 장학금, 최고급 IT기기, 특허 출원 비용, 해외 견학, 군복무 연계 혜택(사이버사령부에서 SW 연구원 형태로 근무) 등이 제공되며, "SW마에스트로 인증자"에게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여하는 인증서 및 5천만원의 지원금,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제공

- 윤상직 차관은 축사를 통해 SW는 대표적인 지식 산업으로서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SW 마에스트로” 연수생들이 멘토를 뛰어넘는 최고의 실력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 등을 함양하여 우리나라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자료>

1. “SW Maestro 과정” 제3기 발대식 계획
2. “SW Maestro 과정” 제3기 연수생 명단(100명)
3. “SW Maestro 과정” 멘토단 명단(43명)

참고1 | SW 마에스트로 과정 제3기 발대식 계획

□ 추진 배경

- SW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SW Maestro 과정’ 발대식을 통한 제3기 연수생 사기 고양 및 對국민 관심 제고

□ 발대식 개요

- 일시·장소 : ‘12. 7. 11(수) 11:00~13:00,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양재동)
- 참석 : 연수생(100명)·멘토(20명), 1~2기 연수생 20명 등 160여명
 - * 주요 인사 : 윤상직 지경부 1차관,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동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 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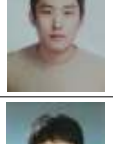
* 사회 : 신영일 아나운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03 (3분)	내빈 입장 및 착석	사회자
11:03 ~ 11:10 (7분)	축하 공연	
11:10 ~ 11:16 (6분)	기획 영상	
11:16 ~ 11:22 (6분)	개식선언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11:22 ~ 11:26 (4분)	환영사	NIPA 원장
11:26 ~ 11:30 (4분)	축 사	지경부 차관
11:30 ~ 11:40 (10분)	연수생 임명장 수여 및 선서	차관, 연수생대표
11:40 ~ 11:43 (3분)	SW Maestro 旗 전달	차관, 연수생대표
11:43 ~ 11:55 (12분)	멘토 축하영상 및 감사패 전달	NIPA 원장
11:55 ~ 12:00 (5분)	기념 촬영 및 행사 종료	전원
12:00 ~ 13:00 (60분)	오 찬	전원

참고2 | SW 마에스트로 과정 제3기 연수생 명단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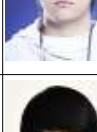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1		강건우 (18)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 전국 정보과학 창의성 대회 - 프로그래밍 부문 금상[2011] - 전국 청소년 과학경시대회-정보과학 프로그래밍 고등부 은상[2011] - 정보올림피아드 지역예선대회 - 고등부 은상[2011] - 서울시 정보과학 경시대회 - 프로그래밍 부문 동상[2011] - 정보올림피아드 지역본선대회 - 고등부 동상[2010]
2		강동원 (19)	서울대학교	- 한국정보올림피아드경시부문전국장려상[2010] - KISEF 특별상 (Intel Excellence in computer award)[2011]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전국 은상[2010]
3		강필구 (21)	한양대학교	삼성전자YoungLifeStyle앱공모전-공모전에서3위[2012]
4		고동현 (25)	한국항공대학교	KMTV 모바일앱 개발(코발트레이)[2010~2011]
5		박하녹 (23)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창업경진대회서울중기청장상[2011] - 전국대학생 스마트폰 게임개발 공모전 대상 - 온넷&오렌지크루 주최 - 제2회 전국대학생 스마트폰 게임개발 공모전 대상[2011]
6		구사무엘 (23)	전국대학교	- 충남대학교 인터넷 침해 대응 기술 연구 센터장상[2010] - 카톨릭대학교 컴퓨터학과장상[2010] - 방송통신위원회 & KISA 6회 해킹 방어대회 우승[2009] - KISA 5회 해킹 방어대회 우승[2008] - 동명대학교 총장상 - 동명대학교 청소년 해킹대회 성적 우수[2007]
7		구진욱 (23)	송실대학교	제6회산학협동산업기술대전 동상[2006]
8		김동우 (20)	성균관대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내2010년제3회IT페스티벌 금상[2011]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9		김두형 (25)	한국의국어 대학교	o 제8회임베디드소프트웨어공모대전결선-입상[2011]
10		김미중 (24)	국민대학교	o mp3멀티테스팅기기 개발(국민대학교)[2012] o 영상처리 및 통신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국민대학교)[2011] o pid제어와 보상필터를 통한 밸런스로봇 개발(국민대학교)[2011]
11		김민호 (26)	고려대학교	o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장려상[2011]
12		김민환 (17)	한국디지털미디 어고등학교	o 제 11회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공모전부분 수상[2010] o 제 20회 전국정보과학창의성대회 수상[2009] o 제 15회 서울특별시 정보과학경시대회 수상[2009] o 교교생 창업하기 대회(Be The Ceos) 수상[2011]
13		김승원 (24)	인하대학교	o 대한민국 앱창작터 경진대회 - 입선[2011] o 인하대학교 앱창작터 경진대회 - 은상[2011]
14		김신헌 (24)	홍익대학교	o AK Project 개발(스마일게이트)[2011~2012] o 서버 안정화 TF 참여(스마일게이트)[2010~2011] o NS Project 개발[스마일게이트][2009~2011]
15		김영덕 (26)	제주대학교	o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최종평가통과하여1000만원지원금획득[2012]
16		김예경 (23)	중앙대학교	o DirectX-3D Jenga 개발(중앙대학교)[2011]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17		김재원 (25) 충북대학교	○ 라인트레이서 대회[2006] ○ APPs 100 FESTIVAL/LG U+/본상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회[2011.] ○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 우수단기과제 2등[2012]
18		김정호 (22) 한양대학교	○ 2D Physics Engine 개발[2012] ○ Cadenza Revolution 개발[2011~2012] ○ World of Disaster 개발[2011] ○ Three Days 개발[2011]
19		김준수 (24) 울산대학교	○ 한국공학교육협회장상-창의적공학설계공모전특별상[2011] ○ 교내 공학설계 공모전 최우수상[2011]
20		김지수 (18) 양영디지털 고등학교	○ 제3회 소프트웨어 창작 공모전 2위[2011] ○ 정보올림피아드 지역(본선예정) - 최우수(1위)[2012] ○ Cisco Networking Academy Council 주관 NetRiders Korea 2011 제7회 스킬경진대회 - 장려상[2011] ○ KETI SMART 아카데미 - 금상[2011]
21		김지훈 (24) 세종대학교	○ 합동참모의장표창-합참위기구조지침체계개발유공[2011] ○ MS 이매진컵 한국대표선발전 Finalist - 이매진컵 한국대표선발전 결승전 진출[2010]
22		김진용 (24) 충남대학교	○ 삼성오오 프로젝트 개발[2012] ○ OnAirTex 개발[2012] ○ 덤앤더머스(판게아솔루션)[2011] ○ 충남대학교 App 개발(MOTION)[2011] ○ 소드걸즈 개발[2010~2011]
23		김환태 (25) 고려대학교	○ 대한민국애플창작터경진대회-SaveYourMoment-입선[2011] ○ LG U+ App 100 Festival - 아리카리사투리 - 입선[2011]
24		김희성 (19) 중앙대학교	○ 2010 컴퓨터 꿈나무 표창장[2010]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분 은상[2010] ○ 제26회 경남 정보올림피아드 은상[2010] ○ Intel Excellence in Computer Science Award[2010] ○ 제2회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전 대상[2011]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25		노연재 (20) 성균관대학교	○ 방방곡곡 개발[2011~2012] ○ 마비노기 nonclient-bot 개발[2010~2011] ○ 지뢰찾기맵백 개발[2007]
26		문성훈 (24) 세종대학교	○ 제9회대한민국대학생벤처창업경진대회-CheckOneProject입선[2008]
27		박경준 (21) 승실대학교	○ KOI 전국대회 / 동상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분[2009] ○ ACM-ICPC Daejeon Site 2011 / 10등 / 동상[2011] ○ ACM-ICPC Manila Site 2011 / 14 등 [2011]
28		박병진 (20) 포스텍	○ DefConHackingConferenceCTF본선8위[2011]
29		박아윤 (17)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 ISEC2011CTF국제해킹방어대회-3위[2011]
30		박종국 (17)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 서강대학교2011전국고교생게임아이디어공모전에서특선을수상[2011]
31		박준철 (17) 한국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정보영재 개인연구탐구발표대회 - 동상[2007] ○ 대전광역시 컴퓨터 꿈나무 - 표창장[2008] ○ 한국정보과학교육협회 제 5회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 동상[2011]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전국청소년컴퓨터경진대회 - 은상[2010] ○ 한국정보과학교육협회 제 4회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 동상[2010]
32		박진 (20) 단국대학교	○ 2010 전국 청소년 게임캠프 은상 Round & Round[2010]
33		박찬기 (25) 단국대학교	○ 건강정보콘텐츠발굴아이디어경진대회-동상[2012] ○ 2012 모바일포교콘텐츠 공모전-우수상[2012] ○ 전국 학생 스마트앱 경진대회 (서울여자대학교)우수상[2012]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34		박지환 (21)	연세대학교	○ 2009년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경시부문-장려상[2009] ○ 제 5회 전국정보과학경시대회 C언어 프로그래밍 부문 - 대상(1위)[2008] ○ 전국정보과학경시대회(C언어 프로그래밍 고등부) - 장려상(5위)[2007] ○ 제 26회 경기도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은상[2009]
35		배준현 (16)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 교내정보올림피아드 은상[2011] ○ 2010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2010] ○ 교내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은상[2009] ○ 2009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중등부 전국 대상[2009] ○ 제 25회 서울시정보올림피아드 동상[2008] ○ 교내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동상[2011]
36		백서현 (25)	성균관대학교	○ 스마트홈아이디어공모전 우수상-홍채인식절전형TV고안[2010] ○ 킹고모바일공모대전 우수상[2010] ○ 스마트홈아이디어공모전 우수상[2010]
37		백운천 (26)	동국대학교	○ shout out 개발(동국대학교)[2011] ○ 오늘날신에게 붙은 귀신은 개발(YAPP)[2012] ○ Unibook 개발(UnoBook)[2012] ○ Pimfy iOS 개발(Pimfy)[2012]
38		백진욱 (26)	경기대학교	○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 Honorable Mention[2005] ○ 제 9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일반분야 최우수상[2011]
39		부요한 (21)	부경대학교	○ 2011 ACM-ICPC Asia-Daejeon Regional-Final Standing 28위[2011]
40		서민규 (28)	동의대학교	○ 자랑스런 효민인상 - 총장상[2011] ○ 아이나비앱스 앱 개발 공모전 - 우수상[2011] ○ 제 2회 부산모바일 앱 공모전 - 최우수상[2011] ○ 2011 Core-A 응용 경진대회 - 특별상[2011] ○ SK C&C 대학생 IT 공모전 - 최우수상[2011] ○ 제2회 Core-A 응용 경진대회 - 특별상[2010]
41		서은화 (23)	연세대학교	○ 제21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전국대회 중등부 금상[2004] ○ 제 2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 전국대회 고등부 장려상[2007] ○ 서울특별시 과학탐구발표대회 - 고등부 은상[2007]
42		서재원 (17)	서해고등학교	○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상[2009] ○ APIO(아시아 태평양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은메달[2012] ○ 제27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동상[2010] ○ 2009년 컴퓨터 꿈나무 표창장[2009]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43		성창훈 (20)	한양대학교	○ 제 26회 경기도 정보올림피아드 도 본선[2009] ○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IT영재교육원 여름캠프[2009]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2009]
44		소현진 (24)	창원대학교	○ 월간웹스마트공모전 우수상[2012] ○ 중소기업청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입상[2008]
45		송준호 (19)	송실대학교	○ 제2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은상[2008] ○ 2009 특허청-ETRI 발명캠프 - 최우수상[2009] ○ 제27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동상[2010]
46		송치원 (22)	동국대학교	○ 제18회 전국컴퓨터경시대회 프로그래밍 동상[2007] ○ 제2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대회 장려상[2008] ○ 제3회 전국 청소년 과학 경시대회 프로그래밍 고등부 은상[2008] ○ The ACM Asia Programming Contest Seoul Site 2009[2009] ○ Honorable Mention - The ACM Asia Programming Contest Daejeon Site 2011[2011] ○ 제14회 TU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대회 프로그래밍 고등부 동상[2007]
47		송태웅 (25)	한성대학교	○ 컴파일러 어휘분석기 개발(한성대학교)[2012] ○ Sudoku Solver 개발(한성대학교)[2012] ○ Loyal Battle Sudoku 개발(한성대학교)[2011] ○ 바이오넷, IRPlayer, SVN 관리, mPCC 개발(엠투미)[2011] ○ 파일탐색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한성대학교)[2011] ○ 허프만 코드 생성기 개발(한성대학교)[2011]
48		신찬웅 (18)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 제4회 서강게임아이디어공모전 입선[2011]
49		심규민 (20)	카이스트	○ FDC Presidential Award-학교 Freshman Design Course[2011]
50		심영재 (24)	서강대학교	○ 2008 서강대학교 프로그래밍 대회 동상[2008] ○ 2010 Korea Web Contest 홈페이지 일부 동상[2010] ○ 제 15회 전국 컴퓨터 경시대회 프로그래밍 부문 장려[2004] ○ 제 21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광역시 장려[2004] ○ 제 2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광역시 장려[2003]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51		심예람 (21) 인하대학교	- o 한미프로젝트 개발(한미암검진센터)[2012] - o newon 개발[2011~2012]
52		안민욱 (18) 세종대학교	- o Korea Electricity Status 개발(DevTeams)[2012] - o Canvas Note 개발(DevTeams)[2012] - o DRIDC Server Checking Server 개발(DevTeams)[2012] - o Earthquake_ikr 개발(DevTeams)[2011] - o SeoulBus Twit 개발(DevTeams)[2011]
53		양현철 (25) 서울시립대학교	- o 제10회 서울산업대 라인트레이서 경연대회 - 3위[2007] - o 제5회 지능형 모형자 설계 경진 대회 Freescale특별상[2007] - o '06 지능 로봇 레이싱 대회 - 신인상[2006] - o 제8회 단국대학교 마이크로로봇 대회 - 대상(1위)[2011] - o 제29회 전(全) 일본 마이크로 마우스 경연대회 금상(1위)[2008]
54		오성진 (22) 전국대학교	- o Silver Operating System 개발[2012] - o Sharing Virtual System 개발(컴퓨터테크놀로지)[2012] - o 웹서버개인정보유출방지 개발(컴퓨터테크놀로지)[2011~2012] - o DLP(Data Loss Prevent) 개발(컴퓨터테크놀로지)[2011]
55		오세운 (25) 경상대학교	o 제1회경남도립남대대학인터넷정보기술과-경진대회동상[2009]
56		오영택 (22) KAIST	- o POPONG:Public Open Political engineering(pongpong) 개발[2012] - o KAIST 신입생 반 배정 및 시간표 배정 개발(KAIST)[2012] - o EFRD Monitoring System 개발(세트랙아이)[2012] - o KAIST 반대표자협의회 웹사이트 구축(KAIST)[2009] - o ICISTS-KAIST 웹사이트 구축(ICISTS-KAIST)[2009]
57		오혜성 (21) 세종대학교	- o 2007 장안대학 e-Game Festival 우수상[2007] - o 제 3회 공상이상 청소년 문화 콘텐츠 창작 페스티벌 우수상[2007] - o 제 1회 청강 창작 문화 콘텐츠 공모전 - 게임 기획 부분- 대상[2008] - o 제 7회 2008 Korea Web Contest - 게임 기획 부분- 동상[2008]
58		유성진 (23) 한양대학교	- o 라인트레이서 개발[2012] - o CRM System 개발(참기술)[2012] - o 모비틀 홈페이지 개발(모비틀)[2011~2012] - o 위닝카오스 개발[2011] - o 학회모바일페이지 개발(자람)[2011] - o 홈페이지 개발(15사단)[2011]
59		이동현 (21) 서강대학교	o 사단법인한국음향학회의2010년도음성통신및신호처리학술대회 최우수발표상인 소리상을수상[2010]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60		이민구 (18) 과천중앙 고등학교	- o Youth Venture Summit Creativity / Total #3 Award.[2011] - o Startup Asia에서 한국 최초 참가 전체 4위[2012] - o IBS(Internet Business Startup) 지원과제 선정[2011] - o TWiST Seoul 2nd Prize 2등[2011] - o 제1회 JST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2011]
61		이병운 (23) 중앙대학교	- o 행정안전부장관상-ISEC2009CTF우수[2009] - o KISA 2009 해킹 방어대회 우승[2009] - o 2006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최우수상[2006]
62		이상민 (26) 중앙대학교	o 제1회안다미로게임제작대회-3위[2002]
63		이세진 (26) 연세대학교	- o 청년기업가정신대회-본상[2011] - o 2010 연세 학생벤처 CEO말굴 경진대회 - 최우수상[2010] - o YES Challenge 밥슨 컬리지 단기연수 - 최종 참가자[2011]
64		이승용 (18) 서울대학교	- o 제 5회 전국청소년과학경시대회 - 대상[2010] - o 제 4회 전국프로그래밍경시대회 - 금상[2010] - o 2010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경시부문 - 금상[2010] - o 2009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상[2009] - o IPSC(Internet Problem Solving Contest) 참가 - 4위[2011] - o 2010년 컴퓨터 꿈나무 표창상[2010]
65		이우근 (23) 광운대학교	- o 아모스 리스닝, 스피킹 파이, 차도도 시리즈 개발[2012] - o 영한스토리북 시리즈 개발(Waterbear Soft)[2012] - o 삼성엡스 지원, 텐 잉글리시 한국어/일본어, 터치베이비, 정철 파닉스, 토들러페이지, 토익 스피킹 마스터, 업다운 회화패턴, 리스타트 리얼토크, 요럴텐 시리즈, 스피킹 패키지, Discovery Level Test, Discovery Dictionary, 동양북스 JLPT 개발(Waterbear Soft)[2011]
66		이윤석 (24) KAIST	- o 한국정보올림피아드경시부문은상-정보올림피아드고등부[2006] - o ACM ICPC Seoul Site 2008 13th Place[2008]
67		이윤정 (23) 이화여자대학교	- o WebBizCreationProject2010-신규인터넷서비스개발지원과제로선정 - o Imagine Cup Windows Phone Challenge 2nd Place[2011]
68		이은총 (23) 충남대학교	- o HackInTheBox 국제 해킹방어대회 3위[2008] - o 서울이코드 삼성멀티캠퍼스 안드로이드 교육 프로젝트 우수상[2012] - o 서울이코드 삼성멀티캠퍼스 안드로이드 교육 성적우수상[2012] - o ISEC 국제 해킹방어대회 2위[2011] - o KISA 해킹방어대회 1위[2011]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69		이재영 (20)	서울시립대학교	- o BBuing Community, Advertisw System, AV manager 개발(2Become1)[2011] - o Social Nametag, Cont Novel 개발(J-Raof)[2011] - o WC X-mas 개발(J-Raof)[2010] - o 도서출판 문사철 홈페이지 개발(도서출판 문사철)[2009] - o 도서출판 나비꿈 홈페이지 개발(도서출판 나비꿈)[2009] - o IRC 스크립팅 개발(J-Raof)[2008]
70		이재웅 (24)	송실대학교	- o Campus Life Award - 바다 모바일 앱 공모전[2012] - o Honorable Mention - ACM ICPC 2011 Asia Regional in Manila[2011] - o 제 20회 인천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은상[2004]
71		이준영 (24)	동아대학교	o 교내학회알고리즘경시대회1등[2011]/
72		이청희 (29)	고려대학교	- o 경희대학교정보경시대회-대상[2000] - o ACM Asia 대전-10위[2002] - o 한국정보올림피아드-금상[1997]
73		이태우 (24)	연세대학교	- o 제11회 건국대학교 전국벤처창업 경진대회 우수상[2011] - o 제12회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 동상[2011] - o 제11회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동상(ACM/ICPC)[2011]
74		이태호 (24)	연세대학교	o 스위스, 콜런스 개발(비스킷크리에이티브)[2011~2012]
75		이학수 (27)	KAIST	- o 맥락기반 단어 암기 기능성 게임 워드 콜렉트리안 개발[2011] - o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홀로그램 플레이어 개발[2011] - o 키넥트와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기능성 애완동물 야미 개발[2011] - o V3 Internet Security 8.0 개발 참여(안철수연구소)[2009]
76		이한솔 (23)	연세대학교	- o 펑거스타일 개발[2012] - o 공군 모바일 앱 개발(공군중앙전산소)[2010~2011]
77		이완승 (24)	동아대학교	o 2011특별한지구를위한특별한애플리케이션공모전시즌2 입상[2011]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78		이희덕 (22)	송실대학교	- o 소셜이노베이션캠프-우수[2010] - o T Store Android Application 공모전-금상[2010] - o 한국어정보처리경진대회-장려상[2009] - o 임베디드공모대전-최우수상[2009] - o T Store Application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장려상[2009] - o Adobe AIR Application 공모전-장려상[2009] - o 정보올림피아드 지역예선-은상[2006]
79		인용휘 (25)	인하대학교일반대학원	- o 대한민국앱창작경진대회-금상[2011] - o KT 글로벌 에코노베이션-에코노베이션상[2011]
80		임종혁 (20)	연세대학교	- o 제23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정보 올림피아드-동상[2006] - o (주)코원시스템 개최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 대회 - 최우수상[2007] - o 서울특별시 Hi-Seoul 창업 캠프-우수[2012] - o 제7회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대상[2005]
81		임준성 (29)	KAIST	- o 교육부장관상-제2회에듀넷홈페이지경진대회[2000] - o 광주일보 사이버 홈페이지 경진대회 고등부1등[2000] - o 송실대학교 IT대학 SW 공모전 동상[2008]
82		장유리 (19)	이화여자대학교	- o 제26회 서울특별시 정보올림피아드 - 경시부문 동상[2009] - o 제25회 서울특별시 정보올림피아드 - 경시부문 동상[2008] - o 제24회 서울특별시 정보올림피아드 - 경시부문 은상[2007] - o 제23회 서울특별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동상[2006] - o 제11회 서울특별시 컴퓨터 경시대회 - 프로그래밍 동상[2005]
83		전규현 (19)	성균관대학교	o 선린인터넷고등학교디지털콘텐츠공모전-대상[2009]
84		정성욱 (27)	세종대학교	- o IEEEICIG2010Ms.PacManAICompetition-3위[2010] - o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 - 입상[2011] - o 창의설계 경진대회 (세종대학교 주최) - 3위[2012]
85		정승수 (24)	세종대학교	- o 투혼 개발[2011~2012] - o Software Rendering Engine 개발[2011~2012] - o RollCake, 3D 캐릭터 뷰어, Mosquito 개발(세종대학교)[2011] - o 게트리스 개발[2007~2008]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86		정용기 (25)	건국대학교	- 신세계몰 스마트TV 서버 API 개발(한국데이터통신)[2011] - 메쓰플레폼 LMS, 한국정보인증 API 개발(한국데이터통신)[2011] - 이력서 관리 프로그램, 교육지대 사이트, 호스팅 솔루션 Pilar 개발(한국데이터통신)[2010] - 호스팅 솔루션 API 개발(웹터즈)[2009] - 웹서버 구축 자동화 솔루션,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웹터즈)[2008]
87		정한터 (21)	숭실대학교	- THI 개발(숭실대학교)[2012] - Serendipity 개발(9Flava)[2012] - 섹시걸 버블버블(엔타즈) 개발[2011~2012] - 내내정 개발(이화애플터)[2011] - PentaFo 개발[2011] - Cherry Blossoms(숭실대학교)[2011]
88		조영국 (25)	건국대학교	- 국제로봇올림픽아드서울예선 동상[2004] - 교육인적자원부장관배 마이크로로봇경진대회 동상[2003]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 정보기술 금상[2005]
89		조준희 (23)	KAIST	- ACM-ICPC World Final (세계대회 결승) - 13위[2011] - ACM-ICPC Asia Seoul Regional Contest 2위[2009]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 은상[2007] - ACM-ICPC Asia Daejeon Regional Contest 1위[2010]
90		조현제 (23)	인하대학교	실시간 동작분석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도구 개발(인하대학교)[2012]
91		진민화 (20)	인하대학교	윈도우 입력 폼 오버랩을 통한 키보드보안 우회 및 키로킹 개발(NewHeart)[2012]
92		차명훈 (23)	포스텍	- CODEGATE 2009 해킹방어대회 - ZERONE EYE(3위)[2009] - 제 6회 KISA 해킹방어대회 - 3위[2009] 2005 한국과학기술원 Computing Festival - 동상[2005] - 경기도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 금상[2006] - ACM Asia Programming Contest Seoul Site 2008 - 15th place[2008]
93		최길우 (27)	숭실대학교	- 숭실대학교CapstoneDesignExhibition-은상[2011] - 우리은행 스마트 앱 아이디어 공모전 - 우수상[2012]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 공모전 - 은상[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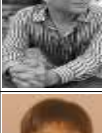
연번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94		최수진 (22)	숙명여자대학교	- 사물놀이 연주 App 개발[2012] - Here I Am 개발(숙명여자대학교)[2011~2012] - 손맛의 여왕 개발(숙명여자대학교)[2011]
95		최승일 (16)	한국에너지메이선 고등학교	- 테트리스, Extreme Ray for Windows Phone 개발(Dif)[2012] - Magnetism, Extreme Ray for Android 개발(Dif)[2011~2012] - Extreme Ray, 지뢰찾기, DirectX 프레임워크 개발(Dif)[2011]
96		최종찬 (18)	서울영상 고등학교	2009년컴퓨터꿈나무로선정[2009]
97		최태양 (19)	동아대학교	- 부산특성화고교직업교육박람회(공모전)-대상[2010] - 부산 지방기능경기대회 정보기술직종 - 은상(2위)[2010] - 제 2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대회 - 장려상[2008]
98		한대용 (26)	국민대학교	- 지능형모형차설계경진대회-장려상[2009] - Microsoft Imagine Cup 2012 Korea Final 세계연맹상[2012] - Microsoft Imagine Cup 2012 Korea Final 1st Prize[2012]
99		한륜희 (21)	아주대학교	- 교내모의해킹대회-금상[2008] - StartupWeekend 3rd at Wonju - 우수상 (ConnectU)[2011] 2007 전문계고교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2007]
100		한진수 (21)	한양대학교	컴퓨터활용중등부최우수-입상[2005]

참고3 SW 마에스트로 과정 멘토단 명단 (43명)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1	개발기획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황병선 (42) (신규)	o (주)삼성전자 게임기사업팀 근무 o (주)LG CNS 임베디드S/W팀 부장 o (주)에이전트리더 대표이사
2		 (주)에드프레스카 (대표이사) 이의정 (38) (신규)	o (주)디앤디소프트 창업 및 마케팅 근무 o (주)디스트릭트 홀딩스 혁신컨설팅 그룹장
3		 (주)두나무 (대표이사) 송치형 (33) (신규)	o 이노무브 그룹 유한회사 근무 o (주)다날 근무 o (주)디지털 비즈니스넷 근무
4	WEB	 오라클 (부장) 김태완 (38)	o 한국자바개발자 협의회(JCO, javacommunity.org) 운영위원 o 대우정보시스템 표준 J2EE 프레임워크 개발 o 기업용(대우정보시스템) 표준 J2EE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컨설팅 o (현재) 한국오라클 Middleware기술 컨설턴트
5		 포워드 벤처스 엔젤씨 (자장) 박용주 (33)	o apache Avalon 커미터, 자바 코드 커버리지 측정 o Tokyo Tyrant 클라이언트 등 각종 오픈소스 프로젝트 o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6		 (주)클라우드인 (대표) 김병곤 (36)	o ISO15504 프로세스 개선 국제공인 심사위원 o Big Data Platform 개발 o 자율 분산 시스템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 개발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7	 (주)아첸소프트웨어 (대표이사) 현철주 (44)	o 자바 애플리케이션 성능 프로파일링 전문가 o (저서) JBoss Application Server/EJB 2&3 집필
		 (주)코난테크놀로지 (책임) 신승은 (37) (신규)	o 아첸자바커뮤니티(www.artszen.org) 대표 o JCO(javacommunity.org)회원 및 강연활동 o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매거진에 약1년여 스트럿츠2컬럼 기고 o 현재 아첸소프트웨어에서 모바일 웹 개발 플랫폼 개발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푸시서버 개발 중
		 리얼 네트워크 (PM) 강상진 (39) (신규)	o 한국게임개발자협회 (KGDA) 개발분야 멘토링 o (주)삼성SDS 솔루션 개발팀장 o Microsoft Korea 책임연구원
		 (주)세완 (대표이사) 고세완 (37)	o Microsoft 공인 최고기술전문가 (윈도우폰 분야) o 서울시 창조산업육성자문단 자문위원 o 삼성전자 스마트폰, KT 스마트폰 등 다수 스마트폰 제작 및 지휘 o IT경력 20년의 모바일/임베디드 컨설턴트 및 개발자 o 동작인식, 스마트폰, 임베디드 관련저서 다수
	8		
	9		
	10		
	11	 (주)버즈니 (대표이사) 남상협 (30)	o 차세대 의견검색 버즈니 대표이사 o 2008 TREC Blog Track 1위 / NIST(미국 국립표준 기술원) 주최 / 국내 최초 o 차세대 검색 및 Data Mining 관련 4개 국내 특허 등록/3개 국내 특허 출원/ 2개 미국 특허 출원, 버즈니 영화 가이드, 버즈니 맛집 가이드 서비스
	12	 NHN (부장) 유석문 (41)	o Software Engineering Method and Theory Supporter IEEE member o Google Test Automation Conference 2009 member o 테스트 자동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NTA 개발 o NHN 지도지역서비스 개발 Lab장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 김수현 (38) (신규)	o (주)벨록스소프트 공동 창업 및 CTO o IBM TJ Watson 연구소 근무
	14	 삼성전자 MSC (파트장) 김동현 (37) (신규)	o (주)LG전자 네트워크 연구소 근무 o (주)티맥스 소프트 근무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15			LG전자 서초R&D 캠퍼스 (선임)	김남형 (34) (신규)	o ㈜비트컴퓨터 강사 o ㈜다임텍 근무
16			(주)레드덕 (팀장)	오우택 (34) (신규)	o ㈜팅크웨어 근무 o ㈜NHN 검색연구실 과장
17	아키텍처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책임연구원)	손영수 (32)	o .NET Advisor o 소프트웨어 공학 커뮤니티 운영(2003년부터 현재까지) o Enterprise 솔루션 및 Framework 구축 o (저술) 소프트웨어 패턴
18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수석연구원)	한대희 (40)	o 대용량 처리 서버 개발, SNS 서버 개발 (대용량, scalable architecture 연구) o SMSC(이통망 연동 SMS 서버), Web 2.0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 및 서비스 개발 o 영어학습 콘텐츠store (ecosystem) 설계 o 키워드 검색 서비스 (웹2.0 방식) 개발
19			애자일 컨설팅 (대표)	김창준 (39)	o SW개발자 교육 컨설팅 전문가 o 애자일 방법론 교육 및 컨설팅,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o 탁월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방법 연구 및 교육, 타분야 전문가들의 협업법 교육 o 행복하면서 생산적인 개인과 조직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애자일 방법론 연구 및 컨설팅, 교육
20	모바일		지킬닷컴 (대표)	정승일 (39)	o 2009 SKT 앱스토어 공모 우수상 o 2009년 KT벤처 어워드 안드로이드 부문 대상 o 중소기업 발전소 IT부문 전문위원 o LG전자 스마트폰 개발자 모임
21			소프트웨어 인라이프 (대표)	장선진 (35)	o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솔루션 설계 및 구축 o 2010 KT Venture Award 수상 o 2009년 지경부 공개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지정과제 대상 o 모바일 솔루션 기획 및 설계, 구축 o SaaS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구축
22			다음 (UNIT장)	김동현 (38)	o 다음 이미지 모음 서비스 파이 기획, 개발, 운영 o 다음 동영상 플랫폼 기획, 개발, 운영 o 다음 tv팟, 모바일앱 기획, 개발, 운영 o 다음 tistory, SNS yozm 담당 o 다음 소셜 모바일게임 유닛장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23	임베디드		동부하이텍 반도체 (책임)	이명수 (34)	o CMOS Sensor SOC Firmware 개발 o 임베디드 시스템 커널 설계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o 화질 개선 알고리즘 개발 및 특허 등록 o 교통ITS 관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24			캠브라스 (대표)	조정현 (42)	o 휴대용 게임기 개발 o 게임 서버 개발 o OS 개발, SDK 개발 미들웨어 개발 o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산객체, 아키텍처 설계
25			SDS파트너스 (기술이사)	김영훈 (40)	o 한이음에서 멘토로 활동(지식경제부 임명 멘토) o 사설 교환기의 주장치 개발 o LG전자 휴대폰 부가서비스 등 모바일 SW개발 o LG U+ 플랫폼, 서비스 개발 o 자연언어처리,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o NIPA, KEIT, KCA, TIPA 평가위원 o ITFIND knowledge editor
26			SKPlanet (매니저)	배권환 (34)	o 리눅스 사용 경력 16년 o 대규모 시스템 설계 및 구현 (CDN, Cloud, NoSQL 등) o KISA DDOS 대피소 (40G DDOS) o CDNetworks OUI
27	OS		LG전자 Car&Media 연구실 (주임)	김대진 (33) (신규)	o (주)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 14기 o (주)엔터기술 연구소 선임연구원
28			티베로 (수석)	백설기 (35)	o 티맥스소프트 SW Maestro 선정(2009) o OS 커널 개발 (TMOS) o Secure OS 개발 (SysKeeper OS) o Cluster DBMS 개발 (TIBERO) o JVM 및 JIT compiler 개발 (TVM)
29			(주)NUSCO (대표이사)	백창우 (33)	o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14기 (2004 수석입소) o 제2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모 대전 금상(2004) o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2004 최우수 프로젝트 선정 o 유닉스/리눅스 프로그래밍 필수 유틸리티 외 다수 기술서 저술 o 삼성종합기술원 RTOS Kernel 전체 개발 (삼성가전 표준 platform, 삼성전자 판매 기여도 2위 과제 선정) o 삼성종합기술원 Processor, Compiler 및 Debugger 개발 o 삼성 SDS SoC RTOS Kernel 개발
30			파인드 스티브 (대표)	서형주 (33)	o Microsoft C# MVP (9년) o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수상(2005) o 안철수연구소, NHN(첫눈) 근무 o (저술)마이크로소프트의 IT전략과 미래 외 10권 집필·번역 o 대한민국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은상 수상 o 디버그랩, 데브피아(Visual C++) 운영자 o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방법론 교육
31	보안		김태하 연구소 (대표)	김태하 (34)	o 삼성전자 소프트웨어멤버십 14기 o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 연구원 o Filesystem SDK™ 6.0, DataMagic™ 5.0 개발 o 국내최초 Microsoft exFAT 파일시스템 구현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32			(주)삼성전자 (책임)	허종오 (34) - 정보공학 국제기술사(APEC/EMF),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기술거래사 - 글로벌 악성코드 수집 허니팟 개발, 보안 종합 위협분석 시스템 개발 - 안철수연구소 보안시스템 전문 개발 Project Manager - 저서) 정보보호 전문가의 알짜 CISSP 노트, Security+ (ISC)2 아시아 태평양 정보 보안 리더십 공로(Asia-Pacific Information Security Leadership Achievements, ISLA)상 수상
33	DB		티베로 (수석보)	송용주 (34) 2007~현재: 국산 상용 DBMS 티베로 개발 - 국내특허보유 -검색가능한 가상파일시스템과 그것을 이용한 파일검색방법 (10-0771154-0000) -태그 정렬을 이용한 파일 검색기 (10-0911411-0000)
34			프리랜서	홍민희 (23) - 프로그래밍언어 설계/구현 커뮤니티 LangDev 운영 http://langdev.org/ - IBM developerWorks 컬럼 기고 - MassChallenge 2011 Finalist http://masschallenge.org/ - 제1회 청년기업가대회 최고상 (DMS상) 수상
35	게임		(주)넥슨 (수석)	박병용 (32) 1인 게임 제작 "발프루기스 나이트"(1998) 1인 게임 제작 "호루스캐논"(2006) 1인 게임 제작 "돈키호테 온라인"(2010) 1인 매신저 제작 "오션스7매신저"(2008) 1인 게임 제작 "음서버 온라인"(2010) - 넥슨 프롬픽 프로젝트 리더(2010)
36			(주)이노스파크 (대표)	김성용 (37) - 광학 모션 캡처 스튜디오 구축 (NDE, 2000) - 스포츠 온라인 게임 '프리스타일' 국내외 라이브 개발/서비스 기술 총괄 (JCE, 2009) - 멀티 플랫폼 엔진 및 소셜 플랫폼 개발. 스마트폰 게임 'Angry Honey', 'Fly Gaga' 출시 (2010) - 모바일 SNG 'Rule The Sky' 런칭/서비스 (2011~)
37	SW 품질 관리		(주)어니컴 (대표)	문일룡 (44) (신규) 삼성의료재단 제일병원 의료정보 개발팀 대리
38	UX/UI		LG전자 UX혁신연구소 (수석)	조형준 (44) (신규) LSR연구소 근무
39			SK텔레콤 마케팅부문 (매니저)	주영민 (35) (신규) - LEDRI UX 리서치 연구원 - ITL UX 팀장

연번	분야	소속 및 성명		주요 이력
40	회계		도원회계법인 (이사)	안선 (43) (신규) - 삼일회계법인 근무 - 중정회계법인 이사
41	특허, 법률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변리사)	김재철 (41) (신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KISA해킹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위원 -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자문위원 등
42			특허법인 누리 (대표이사/ 변리사)	김종혁 (36) (신규)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팀 변리사 -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 변리사
43	인문, 경영		(주)로아컨설팅 (대표이사)	김창훈 (37) (신규) (주)베타리서치엔컨설팅 스카이벤처팀장 - 고려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지경부, 빅데이터 SW산업 육성전략 모색

- 13th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개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7월 11일(수), 빅데이터 SW산업 육성전략 모색을 위해 '13th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를 누리꿈스퀘어(상암동)에서 개최하였음
- 지경부는 그 동안 빅데이터 SW산업육성을 위해 R&D, 인력양성, 네트워킹, 정보교류 등을 지원해왔으며,
 -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의 빅데이터 관련 지원을 보다 체계화 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12년 지경부 빅데이터 주요 지원현황 ◆

- * (R&D)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관리 SW원천기술 개발' 등 '12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3개의 기술과제를 추진 중('12년 예산: 73억원)
- * (인력양성) 충북대에 빅데이터 교육·연구를 위한 융합학과 신설 지원 등
- * (네트워킹) 국내 솔루션의 공동 브랜드화를 위한 빅데이터솔루션포럼 운영 지원

- 컨퍼런스는 빅데이터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된 이후 '빅데이터 활용과 산업경쟁력'과 '빅데이터의 SW공학적 접근'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 동 컨퍼런스에는 빅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내 SW기업 임직원 및 개발자, 학생, 연구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음

< 13th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7.11(수) 13:00 ~ 18:00, 누리꿈스퀘어(서울 상암동 소재)
- 성격: SW품질 개선을 위한 SW공학 정책방향과 SW공학 적용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컨퍼런스를 연2회 개최
 - 최근 IT화두인 '빅데이터'를 주제로 13번째 컨퍼런스 개최 추진
- 주최/주관: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자 :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 SW 기업 임직원·개발자, 학생, 연구자 등 약 500여명
- 발표: KT경제경영연구소, 연세대, 삼성경제연구소 SK planet 등

- 금번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활용과 SW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이원석 교수는

- “빅데이터 기술은 정보화 사회를 최적화 사회로 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 정책과 SW개발자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언급하였음

- KT경제경영연구소 유태열 소장은

-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BM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였음

-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은 축사에서

-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가의 富와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빅데이터와 에너지와의 융합이 미래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최근 급변하는 IT트렌드를 반영하여 '12년 하반기 내 선도사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빅데이터 SW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 행사 후 사진 별도 송부

첨부1 지식경제부, 빅데이터 SW산업 육성을 위한 '12년 지원현황

- 지식경제부는 빅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해 R&D, 인력양성, 네트워킹,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음

① R&D

- 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3개 과제를 '12년 R&D 신규 과제로 추진 중

과제명	분야	연구기간	'12년 출연금 (백만원)	총 출연금 (백만원)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관리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SW	5년	2,900	14,500
초소형·고신뢰(99.999%) OS와 고성능 멀티코어 OS를 동시 실행하는 듀얼 운영체제 원천기술 개발	SW	5년	2,800	14,000
빌딩내 기기들을 웹을 통해 연동하여 사용자 맞춤형 최적제어·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SW	4년	1,600	6,400
3개 과제			7,312	34,900

② 인력양성

- '12년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대학 ITRC 지원사업」 등을 통해 빅데이터 인력육성 추진 중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충북대, (대학 ITRC 지원사업) 부산대학교

③ 빅데이터 솔루션개발 포럼지원

- 국내 기업의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포럼 운영을 지원 중
- * 와이즈넷, 아인소프트, 투비소프트, 한국키스코, 큐브리드, 클라우다인 등

④ 정보교류의 場을 마련

- 빅데이터 컨퍼런스, 빅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세미나 등

첨부2

행사 프로그램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Part 1』 : 특별 강연 (국제회의실 3층)		
13:00 ~ 13:30 13:30 ~ 13:35 13:35 ~ 14:05 14:05 ~ 14:10 14:10 ~ 14:15 14:15 ~ 14:40	현장접수 사전준비 및 개회선언 Big-Data와 SW산업 경쟁력 인 사 말 축 사 Big-Data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유태열 연구소장 정경원 원장 윤상직 제1차관 이원석 교수 KT경제경영연구소 NIPA 원장 지식경제부 차관 연세대학교
14:40 ~ 15:00	Coffee Break	※ 각 세션 별로 국제회의실 대회의실로 이동 (사전 등록)
『Part 2』 : 사례 발표 (국제회의실 3층, 대회의실 4층)		
세션 1 : Big-Data 활용과 SW산업경쟁력 (국제회의실 3층)		
15:00 ~ 15:40	Big-Data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 사례	SK Planet 이준섭 팀장
15:40 ~ 16:20	Big-Data 서비스 : 중소기업의 활용방안	와이즈넷 강용성 상무
16:20 ~ 16:30	Coffee Break	-
16:30 ~ 17:10	Big-Data의 공공 DB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채승병 수석연구원
17:10 ~ 17:50	Big-Data 시대의 데이터 분석인력(Data Scientist)의 가치	충북대 조완섭 교수
세션 2 : Big-Data의 SW공학적 접근 (대회의실 4층)		
15:00 ~ 15:40	Big-Data 관리를 위한 이기종 클러스터 DBMS SW 개발 및 글로벌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KT클라우드웨어 이준섭 팀장 / SW공학센터 하창석 수석
15:40 ~ 16:20	Big-Data의 관리/운영 프로세스와 체계	ZUM Internet 김우승 연구소장
16:20 ~ 16:30	Coffee Break	-
16:30 ~ 17:10	Big-Data 기반의 시스템 개발 방법론	클라우드인 김병곤 대표
17:10 ~ 17:50	비정형 Big-Data 활용을 위한 아키텍처 및 시스템 환경 구축 사례	솔트룩스 최광선 본부장
폐회식		

첨부3

발표자 이력

	- o (현)KT 경제경영 연구소장 - o 2009.1~ 현재 KT 경제경영 연구소장 - o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1992)
유태열 연구소장	
	- o (현)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 o (현)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실무위원 - o (현)국가 DB 심의위원 - o (현)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단 전문위원(Review Board) - o 미국 퍼듀 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1990)
이원석교수	
	- o (현)SK Planet 팀장(2011~현재) - o (전)SK 텔레콤 팀장(2005~2011) - o (전)Information Sciences Instit.(Marina del Rey, CA) 연구원(1999~2005) - o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 전산학 박사(1999) - o 연구분야 : Big Data Platforms, Cluster computing, Grid computing , Data analytics algorithms
이준섭 팀장	
	- o (현)(주)와이즈넷 / 혁신기획실 상무(2001~현재) - o (전)라스21 독일법인 책임 - o 건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 o 포상 : 38회 상공의날 모범관리자상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1년)
강용성 상무	
	- o (현)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1실 복잡계센터 수석연구원 - o KAIST 박사과정 졸업 (경제물리학/복잡계이론 전공) - o 연구분야 : 사회경제시스템의 복잡계 모델링, 데이터 분석기반 전략경영 등
채승병 수석연구원	

	○ (현)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1997~현재) ○ (현)충북대학교 대학원 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 학과장 (2012~현재) ○ (현)충북대학교 BK사업 (유비쿼터스비즈니스시스템) 책임교수 (2006~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1987~1990, 1996) ○ KAIST 전산학과 박사 (1996) ○ 관심분야 :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비즈니스 시스템(ERP)
	○ (현)KT Cloudware, Big Data Division, NoSQL 팀장 ○ (전)Ahems, CIO(~2012) ○ (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콘텐츠연구본부 연구원(2008~2011) ○ KIAST 전산학과 석사(2008)
	○ (현)줌인터넷(ZUM Internet)(주) 검색기술본부 부설 연구소장 ○ (전)SK텔레콤&SK플래닛 - 아키텍트 및 프로젝트 매니저(2008~) ○ (전)삼성전자 - 개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트(1990~) ○ 개인블로그 : kimws.wordpress.com ○ 관심분야 : 빅데이터 프로세싱, NoSQL 및 다양한 분산 컴퓨팅
	○ (현)클라우드인 대표 ○ (현)한국자바개발자협회(JCO) 회장 ○ (현)JBoss User Group 대표 운영자 ○ (현)지식경제부/NIPA SW Maestro 멘토(Cloud, Hadoop, Java EE) ○ Open Flamingo Founder ○ Platform Advisory Group 자문위원 ○ 공개SW개발자대회 운영위원 ○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부대회장
	○ (현)솔트룩스 전략사업본부 본부장(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서비스 연구 개발 총괄) ○ (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언어/문서 분야 표준개발위원 ○ (현)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 (현)플랫폼 전문가 그룹 대표 컨설턴트 ○ (현)웹 코리아 포럼 시맨틱 웹 분과위원 ○ (전)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에이전트리더 기술연구소, 큐브테크 기술연구소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박사수료)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의 요람, 판교 클러스터 출범”

— 반도체 및 IT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

- 현재 100여개 팹리스 기업과 장비 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판교 일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된다.
- 지식경제부는 7.11(수) 오후 홍석우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반도체클러스터(Pangyo Semicon Cluster)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경기도 기흥과 이천을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우리 반도체 산업 및 전체 IT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 ‘12.7.11(수), 14:30 ~ 16:00 /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 * 주요 참석자 : 지경부 홍석우 장관,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이종훈 의원(새누리), 한국반도체협회 권오철 회장, ETRI 김흥남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김경원 원장, 성남시 이재명 시장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 300여명

<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개념도 >



- 현재 판교 반도체클러스터에는 60여개의 팹리스 기업, 50여개의 장비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기흥,화성), SK 하이닉스(이천)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업들이 소재해 있으며,

○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수원), 단국대(죽전), 경희대(기흥), 성균관대(수원) 등 유수의 공과대학들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활발한 기술개발 및 혁신창출 활동을 수행중이다.

○ 여기에 전자부품연구원 SoC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SoC 융합센터 등 반도체 지원 기관이 금년 6월 판교 입주를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도체 산·학·연 클러스터의 틀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그 의미를 밝혔다.

□ 홍석우 장관은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그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순환적 공생발전 생태계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 “자동차로 30~4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해, 활발한 협업과제 수행과 관련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판교 클러스터는 지난 2010년 발표된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사이언스 파크 등 반도체 선진국들의 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축 되었다.

<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 >

구 분	실리콘밸리(美)	신주 과학단지(臺)
현 황	(産) Intel, 애플, HP, 구글 등 7,000여개 (學)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産) TSMC, UMC, 미디어텍 등 450여개 (學) 교통대, 칭화대 등
특 장	·반도체, SW, 통신 등 종합적 IT 클러스터 ·전세계 하이테크 기업 본사의 20% 소재	·파운드리-팹리스간 협업체제가 장점 ·전체 클러스터 매출의 70%가 반도체 분야

□ 향후 정부는 더 많은 팹리스 기업, 장비기업, 연구소 등이 판교 클러스터내에 입주*토록 유도함으로써 연구 및 혁신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수도권 내

파운드리(부천, 청주), 수요기업(파주, 탕정), 소프트웨어 단지(송파, 테헤란밸리)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IT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미래 비전 : “Semicon-Star” >



* 팹리스(I&C테크놀로지, C&S테크놀로지, 아미노로직스 등), 장비기업(주성엔지니어링, 탑엔지니어링, 엑시콘, 엘오티베콤 등), 재료기업(동진썬미켈, 솔브레인 등), 소자기업(하나마이크론 등) 추가입주 계획 확정

참고 1. 행사개요

2.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 요약
3. 산·학·연 협력 약정 체결문
4. 반도체혁신센터 현판식

참고 1 행사 개요

□ 개요

- 일시/장소 : '12.7.11(수), 14:30~16:00 / 판교 테크노밸리
* 경기도 “글로벌R&D센터(판교)” 준공식과 병행하여 개최
- 참석자 : 장관, 경기도지사, 반도체협회장 등 관계자 250여명
* 정부 및 지자체 : 지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지역구 의원(이종훈, 새)
관련 기관장 : ETRI원장, KETI원장, 반도체산업협회장
기업 : 삼성전자, 동부하이텍, 팹리스 기업 50여개사 대표
대학 :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등

□ 주요 내용

-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 발표 (지식경제부)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협정 체결식
* (産)반도체협회장, 대중소기업 대표 (學)단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研)ETRI, KEIT
- 글로벌 R&D센터 內 “반도체혁신센터” 현장 투어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4:32	개회식 및 국민의례	
14:32 ~ 14:37	내외빈 소개	
14:37 ~ 14:40	판교테크노밸리 경과보고 및 홍보동영상	경기도
14:40 ~ 14:43	글로벌R&D센터 유공자 표창	경기도
14:43 ~ 14:48	경기지사 격려사	
14:48 ~ 15:08	지식경제부 장관 축사	
	입주기업 대표(GE에너지 공성도) 축사	
	성남시장(이재명) 축사	
	한국반도체협회장(권오철) 축사	
15:08 ~ 15:15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 프리젠테이션	지경부
15:15 ~ 15:23	산·학·연 협력 약정 체결식 및 기념촬영	산·학·연 대표 9명
15:23 ~ 15:30	글로벌R&D빌딩 준공 기념 테이프커팅	경기도
15:30 ~ 15:35	“반도체혁신센터” 현판식	지경부
15:35 ~ 16:00	“반도체혁신센터” 시찰	지경부

참고 2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 요약

분 야	내 용
반도체의 중요성 & 산업의 위상	○ 반도체는 가전, 자동차, 모바일 등 주력 제품의 핵심 부품 ○ 미국, 일본에 이은 전세계 반도체 3위 생산국 * 국내 전체 수출의 9.0%, 국내 GDP의 5.4%, 고용의 4.6%
반도체 산업의 도전과 과제	○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 ○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 구축 ○ 우수한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원활한 인적 교류 ⇒ 미국·대만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산·학·연 간 선순환적 클러스터 구축
해외 클러스터 사례	○ 미국 실리콘 밸리 및 대만 신주 사이언스 파크 “반도체 기술을 기점으로 IT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생태계 조성”
한국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	○ 판교-기흥-이천을 연결하는 삼각지역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지리적으로 30~40분 이내 근접 분포 <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개념도 >



- (기업)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대기업, 팹리스 기업(60여개), 장비기업(50여개)
- (연구기관) ETRI·전품연·한국나노기술원 등
- (대학) 성균관대·경희대·단국대·융합과학기술대 학원 등
- (인력) 반도체 전체 종사자의 47.5%(54천명)

○ 판교 클러스터를 송파-테헤란밸리, 파주-탕정, 부천, 청주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및 IT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확대발전

- 산학연 간 협업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한국형 반도체 생태계의 발전 및 비전

참고 3 산·학·연 협력 약정 체결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발전을 위한 협력 약정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학·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産)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설계자산(IP) 확보, 학교 및 연구소와의 활발한 협력 연구, 팹리스-수요기업-파운드리 간 협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수 설계인력 확보 등에 노력한다.
 - 나. (學) 우수 인력의 육성 및 공급, 수요 지향적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R&D과제 발굴 및 반도체 중소기업의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 다. (研)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지원, 공동 R&D과제 발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설계 및 검증 기반 구축 지원, 공동시설 활용도 제고,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 등에 노력한다.
- 정부는 산·학·연이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과제 지원, 기반 구축, 인력 공급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
- 이 협정 체결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12년 7월 11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 장

삼성전자(주)
사 장

동부하이텍(주)
사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성균관대학교
총 장

경희대학교
총 장

실리콘마이터스(주)
대표이사

전자부품연구원
원 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 장

참고 4 반도체혁신센터 현판식

□ (개요) 반도체 클러스터내 공동R&D,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연구 지원센터로서 ETRI, KETI 등이 입주

□ 장소 : 글로벌R&D센터 A동 1층 엘리베이터 옆



□ 현판식 참석자

이 름	소 속	비 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장	
권오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허 욱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팹리스 기업 대표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생태계 조성 추진

- 지경부, 7.12(목) 제9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 IT융합의 확산 및 IT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7.12(목) 팔래스호텔에서 윤상직 제1차관 주재로 제9차 IT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등 우리나라 IT산업과 정책을 이끌어온 18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음

* SW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보고는 모두 우리 기업의 SW를 활용하여 발표

□ 윤상직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IT산업이 무역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반도체, SW 수출이 증가하는 등 IT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음

* '12년 상반기 수출 실적 : (IT) 733억불, △5.2%, (전체) 2,754억불, 0.7%↑

○ 또한, IT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인재양성과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지경부(기술표준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활용·확산을 통해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주도형 국제표준화 생태계 조성전략을 발표하였음

○ 기업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확대,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활용 확산 촉진, 기업의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등 국제표준의 제안→채택→사업화의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제표준화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 활용 역량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 및 미래사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날 회의에는 IT융합의 효과적인 확산, IT인력양성사업 과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됨

-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IT융합을 가속화하고, 의료·먹을거리 등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IT융합을 확대할 필요성 등에 대해 토의하고
- IT인력양성분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IT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IT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SW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상세 자료는 별첨 안전을 참조

< 별첨 1 > 제9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요

< 별첨 2 > IT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별첨1

제9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IT분야 오피니언 리더, 舊정통부 장·차관, 정부의 IT정책에 관한 건전비판 인사 등을 **우리부 IT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
- (경과) 노준형 前 정통부 장관 등 産學언론 민간전문가 2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분기별 회의 개최

2. 제9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7.12일(목) 11:30~13:30 / 팔래스H 지하1층 그랜드볼룸B
- 참석자 : 1차관, 자문위원 18명, 정보통신국 국·과장,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국·과장 등
- 안건(안) : IT융합 확산, IT인력양성, 기업개발 표준화

3.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30 ~ 11:32	2'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정책과장)
11:32 ~ 11:35	3'	기념사진 촬영		
11:35 ~ 11:40	5'	인사 말씀		차관
11:40 ~ 11:46	6'	토의 과제 발표	IT융합 확산	정보통신산업국장
11:46 ~ 11:53	7'		IT인력양성	
11:53 ~ 12:00	7'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촉진	기술표준정책국장
12:00 ~ 13:25	85'	오찬 및 자유토론		진행(차관)
13:25 ~ 13:30	5'	맺음 말씀		차관

별첨2

IT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현 보 직	비 고
1	노준형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前 정보통신부 장관
2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정보통신부 차관
3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4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現 정보처리학회 회장
5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6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7	박준성	KAIST 산업공학, 전산학과 교수	
8	조현정	(주)비트컴퓨터 회장	現 SW산업협회 부회장
9	송혜자	(주)우암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10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11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12	강철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13	박진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現 한국통신학회 회장
14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現 벤처기업협회장
15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16	허엽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17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	
18	구원모	전자신문 대표이사	
19	이지은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20	최정숙	포커스컴퍼니 대표이사	現 여성벤처협회장
21	박성미	코오롱글로벌 기술연구소장	
22	김성조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23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24	이소영	시현코리아 대표이사	

* 불참 위원(6명) : 설정선, 정태명, 조현정, 강철희, 남민우, 최정숙

창조적 융합의 시대, 문화부와 지경부 손을 잡다

- 문화기술의 융합 및 한류·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MOU체결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7월 12일(목) 대학로에 위치한 '기술·인문융합창작소'에서 '문화와 기술의 융합,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양 부처가 기술 개발 및 혁신, 융합인재 양성, 한류와 산업의 동반 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이다.

○ MOU 취지를 살려 체결식도 기존의 '서면 협약식'이 아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협약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체결식 이후에는 아르코미술관에서 이기봉 작가의 'the Cloudium'(흐린방) 전시를 관람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디지털협약식) 양 장관이 태블릿 모니터에 띄워진 MOU 협약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면, 중앙스크린에 투사된 MOU 협약서에 동시에 서명됨

□ 양 부처 협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류 문화 및 산업 진흥

○ 전통문화 재현 로봇 공연처럼 전통문화와 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한류 열풍을 패션산업의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타 산업과의 연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로봇 국악공연 "에버가 기가막혀"> <로봇 한복패션모델>

② 기술 개발 및 혁신

○ 기술에 인문학적 감성이 접목된 아이폰이나 공연에 디지털기술을 접목시킨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문화·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원과 지식경제부 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을 활용하여 공동 기획·연구 수행

③ 융합 인재 양성

○ 문화예술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 부처 유관기관 간 인력 교류와 기업의 창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④ 기업 메세나(문화예술 후원활동)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

○ 기업 메세나 확산과 산업현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목을 위해 노력하며, 산업단지를 행복한 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문화공연, 벽화 조성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예술위원회 공동, 산업단지 내 문화적 요소 확충에 협력

-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문화생활도 누리는 행복한 일터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일자리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벽화 공모전>

⑤ 해외 진출 및 홍보

-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전시 참가, 한류 관련 행사의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3D영화, 만화 등의 콘텐츠와 3D-TV 등 기기의 해외 동반 진출과 해외 한국상품전과 한류문화축제를 연계하여 한류와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 특히, 올해 11월초에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 예정인 '양곤 세계 일류한국상품전 및 한류문화축제'는 한국 상품전과 한류문화 축제를 연계한 행사로 한국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문화·기술을 홍보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특히, 지난 5월 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간 체결한 MOU(12.5.2)의 이행에 부처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⑦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의 공동 수립, 예산·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연계,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그간 양 부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과 한류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MOU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고부가가치화, 한류와 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의 창조적 활용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기술인문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고 하면서 “양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붙임1 : 업무협약(MOU) 문안

* 붙임2 : 업무협약(MOU) 체결관련 양 부처 주요 협력사업

* 붙임3 : 행사장 개요

-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업무협력 합의서(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기술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과 한류의 동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업무협력 방향) 양 부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2. (한류문화 및 산업진흥)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타 산업 연계 확산, 전통지식의 산업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신시장 개척과 한류문화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기술 개발 및 혁신) 양 부처는 문화·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산하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융합인재 양성) 양 부처는 문화예술적 소양 및 인문사회적 사고를 가진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기업 메세나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 양 부처는 기업 메세나(문화예술 후원활동)와 '창의경영,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업·산업현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해외진출 및 홍보)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 한류 연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전시 참가, 한류 관련 행사의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양 부처는 대한민국의 문화·기술의 홍보와 첨단기술의 체험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 (부처 간 교류 증진)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의 개최와 현장체험 방문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자문위원 교차 추천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여 종료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2012년 7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 2부를 작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 한류 문화 및 산업 진흥

-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문화부) 전통문화산업박람회 공동개최, 전통문화요소 발굴·아카이브화, 전통문화와 로봇기술 융합 아이템(전통문화 재현 로봇공연 등) 발굴
 - (지경부)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 홍보 및 대상기업 지원, 로봇 시범 보급사업 일환으로 문화부에 예산 지원
- 한류콘텐츠와 패션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
 - (문화부) 한류콘텐츠 및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
 - (지경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의 육성

□ 기술 개발 및 혁신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제품, 기술 비즈니스모델 발굴·기획 협력
 - * 문화부(문화기술연구원), 지경부(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 협력, 공동기획연구
-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 (문화부) SW 저작권 보호 등 공정이용 기반 조성
 - (지경부) SW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융합 인재 양성

- 유관기관 간 인력교류, 기업의 창의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문화부)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지경부) 프로그램 보급

□ 기업 메세나(문화예술 후원활동)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

- 기업 메세나 확산 협력
- 산업단지 문화예술 동아리 및 공연 사업 확대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부 유관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문화요소 확충 지원사업 실시 중

□ 기기-콘텐츠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홍보

-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킬러 콘텐츠 공동 개발
 - (문화부) 3D, CG, 홀로그램 및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 (지경부) 무안경 3D-TV 등 스마트기기 기술개발 협력 및 번들(타재)형태로 콘텐츠와 기기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
 - 국제 IT기기 및 콘텐츠 전시회에 기기와 콘텐츠 동반 참가
 - (문화부) 3D영화, 만화, 애니, 게임, 스마트콘텐츠 등 콘텐츠 지원
 - (지경부)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3D TV 등 기기 지원
 - 콘텐츠 및 한류 연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문화부) 콘텐츠 및 한류 관련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 선정 지원
 - (지경부) 해외 전시회 개최/참가 시 콘텐츠기업의 참여 지원
- * 한국관광공사와 KOTRA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홍보행사에 공동 참여하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과 무역 홍보를 동시에 추진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기술과 예술, 스포츠의 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성공적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

□ 기타 협력과제

- 에너지시설 및 폐산업자원(폐광시설, 유헥공장 등) 문화·관광자원화
 - (문화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추진
 - (지경부) 체험 공간 제공 등
- 조선·자동차·IT 등 '산업관광' 육성
 - (문화부) 모델코스 발굴 및 관광상품화
 - (지경부) 산업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 참여 유도
- 전시·회의산업 지원체계 효율화

붙임 3 업무협약(MOU) 체결식장 개요

□ 체결식장 약도



< 무역·투자 >

□ 체결식장 전경



다국적기업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홍석우 장관,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 간담회 참석 -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은 ‘12.7.9(월) 11:30~13:00,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 협회(회장 : 한국코닝 이행희 사장)의 초청으로 20명의 다국적 기업 한국인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행사는 다국적기업 한국인 CEO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격려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수렴 및 지속적인 對韓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최됨
- 홍 장관은 “98년 외환위기 극복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국내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산업고도화와 무역 1조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면서,
 - 금년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32.5% 증가한 71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또한, 이러한 외국인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액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음
- 참석한 다국적기업 CEO들은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과 함께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 노사관계 및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언급하였으며,
 - 특히, 한국정부가 앞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격려 및 애로

청취를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가져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혁신,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확대 등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한국인 CE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다국적 기업 본사와 한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적인 사업확대와 투자 유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참고1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다국적기업의 한국인 CEO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 '12. 7. 9(월), 11:30~13:00 (오찬 포함)
- 장소 : JW메리어트호텔(강남) 미팅룸3(3층)
- 참석 : (지정부) 장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장 (협회) 회장단 등 20명 (회장 한국코닝 이행희 사장)

□ 논의 내용

-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및 외국인투자기업 업계 애로·건의사항 수렴

□ 진행 계획

시간 계획	주요 내용	진행
11:30~11:34('4)	참석자 소개	협회 사무총장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
11:34~11:37('3)	협회 소개	협회 회장 (이행희 한국코닝 사장)
11:37~11:40('3)	인사말씀	장 관
11:40~11:50('10)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발표	투자정책관
11:50~12:55('65)	오찬 및 토의(건의사항)	협회 사무총장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
12:55~13:00('5)	기념촬영	-

참고2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 개요

* KCMC : Korean CEO's Associ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협회 개요

- 목 적 : 한국 투자환경 개선, 인재양성, 사회봉사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
- 설립일 : 1989년
- 구 성 : IT, 금융, 자동차, 의약품 등 산업 전분야 150명의 CEO
- 회 장 : 한국코닝 이행희 사장
- 활 동 :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 각종 자선사업 추진

□ 회장단 구성 (19명)



참고3

간담회 참석자 명단

順	회사명	성명	직위
1	한국웹스토	박성호	사장
2	인컴브로더	박일준	대표
3	한국 다우케미칼	양창원	대표이사
4	한국쓰리엠	정병국	사장
5	동우 화인켐	문희철	부회장
6	한국 화이자 제약	이동수	사장
7	듀폰 코리아	임정택	사장
8	한국 바스프	신우성	회장
9	카길 애그리 퓨리나	이보균	사장
10	한국 코닝	이행희	사장
11	인텔 코리아	이희성	사장
12	도레이 BSF	홍재열	사장
13	Groupe SEB Korea	팽경인	대표
14	Accor Ambassador 호텔	권대욱	사장
15	한국 암웨이	박세준	사장
16	한국 월드키친	박갑정	사장
17	디비에스 은행	방효진	대표
18	맥쿼리증권	윤경희	회장
19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병남	대표
20	김·장 법률사무소	현천옥	변호사

< 에너지·자원 >

셰일가스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향 제시

- 지경부, 셰일가스 TF 공개 세미나 개최 -

□ 지식경제부는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로 인한 세계 에너지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지식경제부는 7.11(수)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셰일가스 TF 공개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관합동 셰일가스 TF가 그동안 분과별로 연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에너지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서도 대거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민관합동 셰일가스 TF는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14일 발족

□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지금 세계는 셰일가스로부터 촉발된 천연가스 황금기의 초입에 서 있다는 점을 모두가 주목해야 하며,

○ 이를 우리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회로 삼기 위해 중립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셰일가스 개발, 도입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 국내 제조업에 대해서도 미리 영향을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

□ 셰일가스 TF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강주명 교수는 오늘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TF 연구과정에 반영하는 등 향후 셰일가스 대응책 마련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힘

□ 이날 셰일가스 TF 5개 분과장들이 발표한 중간연구결과에 따르면,

○ 총괄분과장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는 셰일가스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개발분과 석유공사 장성진 처장은 공기업·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입분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박사는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수요와 산업여건과 함께 투자재원 조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발전분과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천연가스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산업분과 아주대학교 박은덕 교수는 셰일가스 생산국의 석유화학, 철강 등 경쟁력 향상을 주목하고 국내 업계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 지식경제부는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추가 연구를 거쳐 8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세일가스 TF 공개 세미나 개요

□ 개 요

- 목적 : 세일가스 TF 중간 연구결과 발표,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TF 연구에 반영
- 일시·장소 : '12.7.11일(수) 14:00~17:25, 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 가 자 : 産學研 등 관심있는 인사 350여명
- 진행방식 : 각 분과별로 중간 연구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프로그램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05	·개회사	서울대 강주명 교수(TF 위원장)
14:05~14:10	·축 사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세션 I		
14:15~14:30	·세일가스 임팩트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
14:30~15:00	·개발분과 발표	석유공사 장성진 처장
15:00~15:30	·도입분과 발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박사
15:30~15:45	·질의/응답	
15:45~16:00	·Coffee Break	
세션 II		
16:00~16:30	·발전분과 발표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
16:30~17:00	·산업분과 발표	아주대학교 박은덕 교수
17:00~17:15	·질의/응답	
17:15~17:25	·총평 및 폐회	서울대 강주명 교수(TF 위원장)

< 표준 >

신기술제품(NEP) 및 친환경 재활용제품(GR) 43개 인증

- 기표원, 2012년 제2회 인증서 수여식 개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7월 11일 10시30분, 기술표준원 소강당에서 신기술제품 17개와 우수재활용제품 26개에 대하여 각각 신제품(NEP*)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마크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NEP(New Excellent Product)제도: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하여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

** GR(Good Recycled)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 녹색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여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제도

- 금번, 신제품(NEP)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주)가교테크(대표:윤홍익)의 “온습도 및 냉방부하 예측을 이용한 최적 제어장치”는

- 익일 온습도 예보에 근거하여 건물에 필요한 냉방부하를 미리 예측·산출하는 신기술을 개발 적용한 제품으로 건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전력피크 수요관리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실제 적용효과 : 전년 동기대비 에너지비용 14.6% 절감

- 또한, (주)범용테크놀로지(대표: 이태양)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용 매거진* 자동세척장치”는

* 매거진 : 반도체공정에서 반도체가 장착된 PCB 기판을 이송하는 상자형 용기

- 기존 탄화수소계열 세정제 대신 물을 세정액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미세입자 제거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킨 신기술제품으로 관련 산업에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신청제품 현장 적용결과 제품 수율이 0.6%(약 100억원 상당) 향상

* 미세 입자(10 μ m 이내) 제거 효율 : 기존 85% 수준 → 99.5% 개선

- 친환경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으로 인증받은 제품 중 아이에스동서(주)가 개발한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자기질 바닥타일)”은

- 장식광산의 폐기물 오니와 불량 폐기 처리된 페타일 등을 점토, 고령토 등과 배합하여 분말화하고, 핵심기술인 고강도 분말화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한 우수한 친환경 재활용제품임

- 아울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를 전담하는 공공구매책임자지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공공구매책임자지정 제도 :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적정성을 조사·검토하도록 규정(‘12.1.26 산촉법 개정, ‘12.7.27 시행)

- 앞으로 산업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에너지절감·자원순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 1. NEP·GR 인증제도

2. 인증제품 목록

1. 신제품(NEP)인증 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인증대상

- 사용자에게 판매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대체기술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성능·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 인증주체 :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 업무위임)

□ 인증유효기간 : 3년

□ 지원내용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등 199개)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그 품목의 구매액 중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
- 조달우수제품 등록시 가산점 부여(조달청)
- 산업기반자금 융자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중소기업청·시중 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

□ 연도별 인증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594	189	450	168	360	120	327	98	237	64	185	59

2.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인증 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 녹색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여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인증대상

- 국내 발생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
- 환경친화성이 높고 에너지·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 수요를 조사, 우선 발굴·선정하고 제품별 규격품질기준을 제정하여 인증

□ 인증주체 : 기술표준원장

□ 인증유효기간 : 3년 이내

□ 효과 :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공공기관 평가시 구매실적 반영)
- 공공건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10.7.1) 및 GR인증제품의 사용여부의 필수항목 적용
-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제도 반영(조달청), GR인증을 획득한 재생아스콘 의무화(환경부), GR인증을 획득한 인쇄용지의 국정교과서 사용(교과부) 등 공공·민간구매지원 및 홍보지원

□ 연도별 인증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97	57	83	27	67	30	100	84	131	61	148	94

인증제품 목록

1. 신제품(NEP) 인증제품

- 가온전선(주)의 “철도공사 덕트 포설용 박막연철 테이프를 적용한 고유연성 방서 케이블” 등 17업체 17품목

순서	회사명 (대표자)	인증 제품명	핵심기술 내용 요약	담당자 (문의처)
1	가온전선(주) (구자엽/김성은)	철도공사 덕트 포설용 박막 연철테이프를 적용한 고유연성 방서 케이블	철도 공사 덕트 포설의 주 용도로 사용되며 박막 연철 테이프를 적용하여 쥐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우수한 고유연성을 갖춘 방서 케이블 제품임	김경중 부장 (031-459-6227, 010-4397-2804)
2	(주)리엔 (이남영)	수중 불분리성을 갖는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 첨가제	지반 보강 공사 등에서 그라우트의 점조성과 보수성을 증대시켜 재료 분리 현상을 방지하고 수중에서도 그라우트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보강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공을 용이하게 하는 수중 불분리성 그라우트 첨가제임	오성호 소장 (043-211-1008, 011-9284-3557)
3	(주)범용테크 놀리지 (이태양)	반도체 제조용 매거진 자동세척장치	기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세정 기술을 개선·개량하여 반도체가 장착된 PCB 기판 운송에 사용되는 “매거진”의 미세입자를 세척·제거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탄화수소계열 세정제 대신 물을 세정액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미세 입자 제거효율을 크게 개선하였고 신청제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한 결과 수율이 0.6% 향상되는 등 기술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으며 기존 제품 대비 성능·품질을 크게 개선한 제품임	이태양 대표 (031-319-5100, 010-7520-5253)
4	(주)금강 (박현숙)	급수용 스테인리스박판/폴리에틸렌 복합판 (직판 및 롤판, 외경 120mm 이하)	환경친화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스테인리스판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압출 코팅하여 국내 최초로 제조한 급수용 금속/합성수지계 복합판 제품으로, 박판 스테인리스판 조판기술 및 폴리에틸렌 압출코팅 공정을 신기술로 적용하여	하정훈 실장 (055-743-2327, 010-2402-1004)

순서	회사명 (대표자)	인증 제품명	핵심기술 내용 요약	담당자 (문의처)
			내수압성, 당김강도, 압축강도, 열피로 박리성 등이 우수하며, 특히 롤판으로 제조 가능하여 현장적용성을 우수하게 개발한 제품임	
5	(주)엘지하우시스 (한명호)	PLA(Poly Lactic Acid)계 시트 적층 바닥재(접착타일, 비접착타일, 균일질시트, 목질복합마루 타입)	환경 및 인체유해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기존의 합성수지계 바닥재에 비해 압입률, 가열감량율, 오염성 등의 제반 물성이 우수함과 동시에,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방출이 거의 없는 인체에 무해한 환경성을 보유하고, 아울러 연기 밀도, 낮은 유독성가스의 발생 등 화재로부터의 안정성 등을 확보 가능한 환경 친화형 PLA계 바닥재 제품임	박명석 과장 (02-6930-0332, 010-5711-9995)
6	(주)대유 (강상돈)	양·배수장 및 농수로용 오물 제거장치(폴리체인 회전식 제진기)	양수장 또는 배수장 등에 설치하여 수중에 쌓인 쓰레기 등의 오물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베어링이 필요 없는 U자형 가이드레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제진기 설치 베이스판을 개발하여 설치의 편리성 높였고, 구동축과 커버가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하여 사용편리성을 높인 장치임	윤옥희 과장 (061-333-8727, 010-5113-5964)
7	(주)휴비스 (유배근)	신축성 PET/PTT 복합방사 단섬유	PET, Nylon과는 차별화된 소재로서 PTT를 원료로 하는 차세대 신소재이며, 스프링과 같은 특이한 사슬 형태의 분자 구조에 의해 소프트, 편안한 신축, 회복력, 선명한 컬러 및 형태 안정성 등 다양한 장점을 발현하는 신축방직 복합 단섬유임	백승효 팀장 (02-2189-4956, 010-3833-9286)
8	이노디지털(주) (김인기)	안드로이드 OS기반 IP스마트박스	다양한 서비스 연동이 가능한 개방성을 기반으로 디지털방송 및 통신융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박스로,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를 수신하는 일반 IP셋톱박스와 달리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네트워크의 대역폭에 따라 자동으로 적응하여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신 및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방형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OS 기반의 IP스마트 박스에 적용한 제품임	문경태 과장 (031-716-2636, 010-6648-4688)
9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드레인보드 필터재용 등방성	연약지반 보강용으로 시공되는 수직 배수재(드레인보드 제품)에 적용되는	정호진 과장 (02-3677-3856)

순서	회사명 (대표자)	인증 제품명	핵심기술 내용 요약	담당자 (문의처)
	(박동문/이웅열)	폴리에스터 장섬유부직포	필터용 부직포로 세계에서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인장강도를 중·횡의 방향에 걸쳐 동등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임	
10	(주)부스타 (이병희)	비례제어 컴팩트형 저녹스 관류보일러 (증발량:1~3ton/h)	고부하 저녹스 연소기술, 연동감응식 비례제어 시스템 기술, 고효율 컴팩트 보일러의 자동화 설계 및 제작기술 을 적용한 제품으로 특히, 연동감응식 비례제어 시스템 기술을 국내 최초 로 관류보일러에 적용된 제품임	고동완 부장 (02-3665-9600, 010-3270-3423)
11	(주)코멤텍 (김성철)	PTFE 멤브레인을 이용한 집진용 에어필터 여재	미세다공구조를 가진 PTFE membrane을 이용하고 고온의 열접합 기술을 적용 하여 개발한 집진용 에어필터 여재 제품으로 여과효율과 필터 주기의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임	천대열 부장 (031-497-4070, 010-5355-2815)
12	(주)가교테크 (윤홍익)	온·습도 및 냉방부하 예측을 이용한 냉방시스템 최적 자동제어장치	대형 건물의 복합냉방시스템을 운전 시간대별 냉방부하 특성과 냉방기기의 성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적 제어하는 장치이며, 숙련된 운전자의 경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던 기존의 운전방식을 탈피하여 최근 5년 간의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익일 시간대별 온도 및 상대습도와 냉방 부하를 예측하고 다양한 조합의 냉방 장치를 최적 제어하여 냉방시스템의 운전비용을 크게 절감한 제품임	강형철 실장 (042-861-8602, 010-4158-0365)
13	(주)인터파워 (이규찬)	저주파구동방식의 메탈할라이트 램프(35W, 70W)용 전자식 안정기	대규모 공간의 조명이 필요한 공공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시설, 백화점 등에서 메탈할라이트 램프를 구동하기 위해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안정기로 오스람, 필립스 제품과 유사한 2단 구성의 파워단 회로와 이 회로를 구동 할 수 있는 독자의 제어기술 및 회로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외산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임	조현진 상무 (02-856-3031, 010-2712-4799)
14	(주)세고산업 (배영석)	3차원 유선형 베인 및 와류방지 가이드가 장착된 고효율 입형 다단 원심펌프 (0.01~2.2m ³ /min)	3차원 형상의 임펠러 베인과 임펠러와 중간 챔버의 와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와류 방지 가이드를 설계적용 하여 임펠러에서 토출되어지는 유체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최두열 부장 (032-345-2611, 011-660-4635)

순서	회사명 (대표자)	인증 제품명	핵심기술 내용 요약	담당자 (문의처)
			펌프의 소음 감소와 효율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기존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입형다단 원심펌프를 국내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임	
15	(주)다원프릭션 (조정환)	고속철도용 소결 브레이크 패드	금속계 마찰재 개발과 최적의 브레이크 패드 형상 설계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고속철도용 소결 브레이크 패드를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이며,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현재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차량(KTX)에 전량 사용되고 있어 수입대체는 물론 향후 수출효과가 매우 큰 제품임	오성훈 부장 (070-7732-9766, 010-7510-5108)
16	(주)지앤지테크 놀리지 (조희남)	지하수 관정 압축 팩커그라우팅 유닛	그라우팅 케이싱 하단에 설치한 외관 과 내관의 안전장치 해제를 통해 상호 슬라이딩하여 팩커용 고무를 압축하게 함으로써, 그라우팅 케이싱과 지하수 심정 공벽 사이를 차폐시키는 기술 (환경부 NET 제275호)을 적용한 제품 으로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수밀성능 과 팩커손상(긁힘, 파손)에서도 차폐기능 에 영향이 없는 품질성능을 구현한 제품	조희남 대표 (032-812-0777, 010-3773-3839)
17	전진바이오팜(주) (이태환)	구조물용 다중감각자극의 겔상 조류기피제	조류의 접근으로 인한 구조물의 오염과 기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 감각기관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조류 퇴치 효과가 나타나는 겔상의 조류 기피제임	최원식 팀장 (053-593-7197, 010-4532-0419)

2.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 아이에스동서(주)의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자기질 바닥타일)등 24업체 26품목

순서	업체명 (대표자)	제품명	주요기술내용	성명 (연락처)
1	서울아스콘 (주) (김금희)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GR F 4005-2009)	- 순환골재를 30 %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성복도로용으로 사용하는 페아스콘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환경 오염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	김금희 대표 (032-574-6525)
2	한일에코 산업(주) (주명주)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보도용, 차도용) (GR F 4007-2008)	- 기업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디자인의 다양성 및 품질의 우수성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 콘크리트 블록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주명주 대표 (041-855-7112)
3	(주)성립 (권인섭)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1종) (GR K 0001-1998)	- 방사노즐과 냉각 유닛에 대한 온도 및 풍속 최적화와 차별화된 원사 절사 감지 시스템 운영하여 국내 매출증대는 물론 재활용 섬유 제품의 수출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임.	권인섭 대표 (054-463-2183)
4	아이에스 동서(주) (이성철)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자기질 바닥타일) (GR F 4008-2008)	- 페타일 및 폐소지를 분말화 할 시 수반되는 현재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고비용 등)를 극복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폐기물 비용부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매출의 향상이 기대됨.	이성철 대표 (02-3218-6701)
5	(주)세원 리테크 (이승주)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GR M 3077-2009)	- 공정중에 발생하는 플라스틱까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시각장애인 통행로에 보급에 일조할 수 있는 되는 일석이조의 제품임.	이승주 대표 (032-469-2001)
6	대림 아스콘(주) (서상연)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GR F 4005-2009)	- 페아스콘 분쇄 시 잔류용력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형 AP 함량 측정설비를 보유하여 순환골재에 포함된 AP의 재활용으로 인해 외화를 절감하고 장기적인 국가 부가가치 재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서상연 대표 (031-323-0437)

순서	업체명 (대표자)	제품명	주요기술내용	성명 (연락처)
7	(주)부성리 사이클링 (김성제)	재활용 고무 어린이놀이터용 바닥재(L형) (GR M 6004-2008)	- 페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유해성이 낮아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로 사용되며, 시공 후 교체 시 2차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보전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	김성제 대표 (061-363-8050)
8	(주)교우 산업 (황광하)	도로용 재활용 용제 (GR M 1103-2003)	- 강압증류 방식으로 산업폐수장에 버리거나 소각 처리되는 폐유기용제를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도로용 용제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음.	황광하 대표 (031-499-0617)
9	(주)홍창 엔앤티 영천공장 (장지식, 장 근호)	사료용 옥골분 (GR M 9010-2006)	-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동물성 지방을 엄격한 이물질관리와 효과적인 파쇄설비 도입으로 사료 및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임.	장지식 대표 (054-334-1711)
10	(주)장성 산업 (김천수)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대형 용벽 블록류(적층용 벽블록류) (GR F 4038-2008)	- dolomite의 콘크리트용 골재화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열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 사용되는 토목용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제조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어 환경 친화성 및 자원화 용이성을 높이는데 일조함.	김천수 대표 (033-372-5559)
11	(주)에코 청진 (박중걸)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보도용) (GR F 4007-2008)	- 유색 천연골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제품의 표면을 대리석과 같은 질감으로 표현할 수 있어, 대리석 사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석산 파괴를 막고 천연 골재자원의 감소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임.	박중걸 대표 (054-931-2001)
12	석성기업 (주) (강정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1종, 2종) (GR F 4004-2012)	- 폐도자기를 활용하여 타업체과는 차별화된 호안블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적재산권(특허 56건 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 및 재료도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 호안블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강정용 대표 (031-882-1381)
13	(주)에코 닉스 (김갑중)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1종) (GR F 4004-2012)	- 자동생산설비 및 시험 검사 설비에 따라 균일한 품질의 호안블록이 생산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임.	김갑중 대표 (062-352-7001)
14	(주)한라 환경 (오태흠)	페타이어분말 (A-2, A-3) (GR M 6021-2011)	- 유해성이 적은 소형타이어를 4차에 걸친 파쇄, 선별을 통하여 생산한 양질의 페타이어 분말로서, 재활용 고무 제품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크며 소각처리가 발생하는 환경유해성을 저감할 수 있음.	오태흠 대표 (064-721-0025)

순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제 품 명	주요기술내용	성 명 (연 락 처)
15	(주)파스텍 (설현수)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1종) (GR M 3085-2009)	- 용융사출냉각 등의 공정을 통해 기존 모래기초 공법에서 유효 받침각을 상향시켜 관의 변형 및 부동 침하를 방지한 제품으로 2차 재활용이 가능 하고 부존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함.	설현수 대표 (041-852-9365)
16	(주)한일 세라믹 (김영래)	재활용 점토벽돌(1종) (GR F 4014-2004)	- 특허기술력(표면에 색상, 무늬 도포 또는 부분 처리 기술)으로 제품 표면을 개선한 제품으로 플라이 애시를 재활용하여 미연탄소분의 연소로 인해 경제적인.	김영래 대표 (041-742-5600)
17	청산 아스콘(주) (이필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GR F 4005-2009)	- 순환골재 인증을 취득하여 편장석유를 개선하고 드라이어 온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활용 아스콘을 안정 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매출이 10 %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필태 대표 (031-835-0511)
18	동광 전업(주) (김연우)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0.7, 1.2) (GR F 4013-2011)	- 한국전력공사의 폐전주를 이용하여 한국 전력공사의 지입자재인 콘크리트 근가로 재활용함으로써 보통골재 및 천연 골재를 대체 사용하게 되어 원가를 절감 효과를 가져옴.	김연우 대표 (063-652-7353)
19	(주)지오웨이 (이주형)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GR M 6006-2008)	- 안정적인 공정을 기반으로 페타이어 분말, 안료 및 바인더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MSDS 관리 등)하고 있어, 소각하거나 매립시 발 생가능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	이주형 대표 (033-345-5792)
20	(주)부성리 사이클링 (김성제)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GR M 6006-2008)	- 타사의 제품과는 달리 Roll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치수오차가 적고 점토블록, 석재블록 등의 제품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며, 변색 및 탈색이 없고 디자인을 고급화 할 수 있어 다양한 도시 미관을 연출할 수 있음.	김성제 대표 (061-363-8050)
21	(주)부성리 사이클링 호남공장 (김성제)	페타이어분말 (A-2, A-3) (GR M 6021-2011)	- 항균성, 항곰팡이의 특성 및 탈취율이 탁월한 금속 광물질인 분말을 폐고무칩과 배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종래의 충격흡수 및 미끄럼방지 기능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제품의 기능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순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제 품 명	주요기술내용	성 명 (연 락 처)
22	국제 산업(주) (조복현)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200Φ~800Φ)	- 파이프 내면을 복층의 나선형 공간 구조로 성형하고 관내에 Rib을 설계함 으로써 일반 하수관에 비해 원강성을 10% 이상 향상시켰으며, 외부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시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고질적인 하수관의 누수문제를 개선한 제품으로 향후 매출 증대가 예상됨.	조복현 대표 (031-533-2577)
23	우성세라 믹스공업(주) (이정환)	재활용 점토벽돌(1종) (GR F 4014-2004)	- 완전 소결로 압축강도가 탁월하고 다공 벽돌(폐기공 형상)로 일반제품보다 경량화 시켰으며, 소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쇄 하여 건설용 골재 및 충전재 또는 사모트로 2차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	이정환 대표 (031-682-2199)
24	(주)명신 연와 (변규만)	재활용 점토벽돌(1종) (GR F 4014-2004)	- 기존제품에 비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성온도를 일반제품에 비해 낮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료비를 절약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 제품 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됨.	변규만 대표 (031-835-0012)
25	한솔제지(주) 장항공장 (권교택)	인쇄용지 (75g/m2) (GR M 7002-2010)	- 탈수화(Sheet화) 공정을 신설하여 기존 DIP펄프의 함유율 및 물류 효율성 향 상시켰으며, Soft Nip Calender 처리 를 통해 면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향후 검정교과서 및 EBS 교재의 원지로 활 용도가 큰 제품임.	권교택 대표 (02-3287-6311)
26	아트원 제지(주) (권교택)	인쇄용지 (75g/m2) (GR M 7002-2010)	- MSP 코팅량 상향(min 19 g 이상)을 통한 표면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코팅 칼라배합 최적화를 통한 표면물성 조정 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수입 DIP를 사용 및 화학펄프 사용 시 소모되는 리파이닝 에너지(Refining Energy)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옴.	권교택 대표 (042-939-1635)

출입문 열쇠로 교통카드·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

– 교통카드·핸드폰 등록을 해제하고 전용카드 사용하면 안심 –

관련 사업자들 정부측에 자진리콜 약속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일부 「디지털도어록」에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지난 6.29(금) 내렸던 소비자주의보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함

○ 당초 문제가 되었던 「디지털도어록」을 비롯한 ‘카드식 출입문잠금장치’ 전반에 걸쳐 관련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자발적 리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측에 보고해옴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 사업자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접수된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자발적 리콜 업체와 관련제품의 수량은 각각 총 17개 업체, 약 125만개*에 달하고,

* 디지털도어록 110만개 + 현관개폐기 15만개

○ 업체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은 피해 예방법 안내*, 시중에 유통 제품에 대해 전용카드 보급 및 해당 제품의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임

*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을 해제하고, 전용 카드키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음을 알림

○ 향후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금번 사례는 최근 교통카드나 핸드폰을 출입문잠금장치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등 보다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 일부 교통카드 등의 식별번호(UID)가 모두 동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밀번호로 등록한 출입문잠금장치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난 것임

* 교통카드 및 핸드폰 유심칩의 식별번호(UID)가 중복되어도 교통카드로써 기능함에는 문제 없음

□ 기술표준원은 사업자들의 자발적 리콜내용을 제품안전포털(www.saftykorea.kr)을 통해 공표 및 홍보*하고, 이번 리콜 대상제품 이외에도 추가 제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제보를 접수할 계획임

* 교통카드 및 핸드폰 등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등록 해제, 전국민 대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에 등록·사용 자제 등 적극 알림

○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수집 및 필요조치 반영 등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 임

○ 추가로, 자발적 리콜 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약 3개월 후)를 접수하여 사업자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자발적 리콜 접수현황

□ 총 17개 업체 총 125만개

- 디지털도어록 : 15개 기업 약 110만개
- 현관개폐기 : 5개 기업 약 15만개

구 분	제조사	모델명
디지털도어록	(주)대양디엔티	DDP-5000 등
	밀레시스텍(주)	TRIPLE, COMBO 등
	삼성에스엔에스주식회사	RF타입
	(주)씨큐셀린지	EF680K
	(주)아이레보	Smart,MX540 등
	(주)아이빌리브	SNR400,MTR601 등
	(주)인터크리에이티브	M120, S120
	(주)에버넷	갤럭시 스마트 등
	(주)엔터로직	EL/350,EL/250
	(주)엠에스씨엘	GE70C, IN500 등
	(주)하이레버	PTC71,PCC7,UT-II
	(주)하이원플러스	H-1300,1500
	(주)혜강씨큐리티	SMART TAP 등
	(주)코맥스	CDL100R 등
	(주)경동원	DL NW-600A 등
현관기	(주)경동원	UDP-100,HLPC-700등
	삼성에스엔에스주식회사	RF타입
	현대통신주식회사	M-CRRV-0700
	(주)코맥스	DRC-481L/RF1 등
	(주)코콤	KLP-3XXR2 시리즈 등

【붙임 2】

디지털도어록 시장동향

□ 현황

구 분	내 용
업체수	(주)아이레보, (주)삼성SNS, (주)밀레시스텍 등 32개('09년 기준)
보급규모	- 약 650~700만대('10년 기준, 아파트가 주력) - 가정용 디지털도어록 보급률 48%, 세계1위
주요 공급처	- 개인가정 수요자 70% - 건설업체 20% - 수출 10%
종사자	- 5만 여명 추정 - 제조 1만명, 설치 및 A/S 4만명
단가	- 10만원~50만원(설치비 포함 가격, 다양)

□ 국내시장 규모

- '10년 기준 1,800억원 시장규모, 매년 10~20% 성장, 특히 가정용 디지털도어록 보급률(48%)은 세계 1위

〈 국내 시장 통계 〉 (단위 : 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산액(억원)	875	1,194	1,536	1,750	1,800
생산수(천개) (전년대비 증감, %)	1,074 (-11.3)	1,232 (14.7)	1,001 (-18.8)	848 (-15.3)	879 (3.7)
사업자수(개)	45	29	33	32	30여개

*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수출 규모

〈 디지털도어록 수출량 〉

(단위: 개)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규모	19,862	12,928	19,227	35,287	43,560

* 자료출처 : '디지털도어록 수출량', 통계청, 2009.12